

親愛하는 百三十萬 跆拳道人 여러분! 七月의 太陽이 灼熱하는 더위 속에 國技振興과 國民體力의 向上을 위해 勞苦하시는 여러분에게 衷心으로 激動과 感謝의 뜻을 表하는 바입니다.

이에 세상 言及할 必要도 없이 跆拳道는 半萬年 歷史를 자랑하는 우리 民族·固有의 傳統의 武術로서 그동안 連續히 이어온 歷史와 함께 우리 겨레를 外敵의 侵入으로부터 保護하고, 또한 우리 國民精神의 國志와 身體를 健全하고 強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난날 8.15 解放과 더불어 새로운 모습으로 그 體系를 再整備한 跆拳道는, 마침내 國技로서 뿐만 아니라, 世界的인 「스포츠」로서 그 確固한 位置를 다져가고 있으며, 지금 東南亞를 비롯한 中東, 유럽, 美洲等 到處에서 世界的으로 「붐」을 일으키어, 우리의 國威宣揚은 勿論, 民間外交面에서도 크게 貢獻하고 있음은, 實로 130萬 跆拳道人 여러분의 꾸준한 努力의 보람이라 믿고, 이에 深甚한 謝意와 致賀의 뜻을 表하는 바입니다.

더우기 大韓跆拳道協會는 不備한 條件과 수많은 隘路에도 不拘하고, 現在 意慾의이고 推進力이 強한 金 雲龍 會長의 指導下에, 宿願事業이던 中央道場의 建立과 教本 및 機關誌의 發刊, 그리고 對内外의 積極的인 支援等, 莫重한 事業을 繼續的으로 處理해 오고 있음은 實로 흐뭇한 일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일찌기 本人은 暫時 동안이나마 跆拳道協會의 會長職을 맡아 보았던 사람으로서, 이 機會에 跆拳道를 아끼고 그 發展을 더욱 希求하는 衷情에서, 跆拳道人 여러분에게 몇마디 당부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온 國民이 合心團結하여 總力安保態勢強化에 精進하고 있는 이 때에, 여러분은 우리 國技인 跆拳道를 더욱 研磨하고 普及에 힘써, 自主國防力에 直結된 安保體育으로서, 國力伸張의 前衛의 使命을 다할 수 있는 時代的 要請에 即應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高句麗나 新羅時代와 같은 옛날에 있어서, 우리의 祖上들이 跆拳道를 오로지 盡忠報國의 手段으로 삼았던 歷史의 背景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릇 跆拳道의 基本的인 精神은 弱者를 돕는 『正義의 힘』으로서, 國家와 民族의 次元에서 利益을 追求하는 協同的인 姿勢에서, 그 理念을 찾아야 할 것이며, 더우기 『南北 共同聲明』에 따른 南北의 對話에서 榮譽로운 勝利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莫強한 國

# 跆拳道人에게

## 문교부장관 민 관 식

力培養에 의한 『일의 優位』만이 解決의 關鍵이 된다는 것을, 本人은 痛痛히 強調해 주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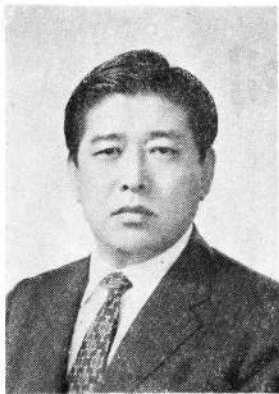
물론, 우리의 跆拳道는 자랑스러운 國技로서 뿐만 아니라, 世界的 跆拳道로서도 더욱 그 功績을 다함으로써, 後孫들에게 알차고 값진 民族의 遺産을 남겨주기 위해, 여러분은 特히 目標을 向해 一糸不亂하게 精進할 수 있도록, 刻苦의 努力과 創意으로써, 그 內面的 充實에 더욱 힘씀으로써, 名實共히 矜持 守은 『跆拳道 韓國』, 『跆拳道 宗主國』의 國技로서 『完全 土着化』가 보다 뿌리깊이 이루어 지도록, 全力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跆拳道는 사랑받는 世界的 「스포츠」로까지 더욱 크게 圓개를 칠 수 있게 될 것이며, 우리의 國威와 名聲은 四海에 더욱 크게 떨쳐지게 될 것이며, 젊은 때의 刻苦의 努力이나 試鍊이 바로 여러분의 百折不屈의 剛志와 忍耐力을 기르고, 強靱한 體力을 더욱 튼튼히 길러 줌으로써, 여러분 個人이나 國家의 앞날에 大成과 幸福을 期約하는 高貴한 試金石이 될 것입니다.

세계로, 國際社會에서의 韓國 跆拳道人의 分裂 印象을 完全히 拂拭하는 一方, 審査制度의 單一化와 優秀指導者 育成 및 節節識 拂拭 등의 劃期的 施策을 積極 志向함으로써, 지금까지 累積된 跆拳道界의 毒은 病弊를 一掃하고 大同團結을 期하는데, 指導層부터 積極 努力해 주실 것을 懇切히 바라 마지 않습니다.

當場 이 時點부터 跆拳道 指導層이 하나로 뭉쳐 所信있는 勇斷과 세모운 姿勢으로써, 참된 『跆拳道哲學』의 定立, 實踐에 하나의 示範의 契機를 심어준다면, 監督廳의 責任者로서, 本人은 더욱 기꺼이 可能한 最大限의 支援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요컨대, 國內外로 多事多難한 이 重大時點에서, 우리는 總力安保와 國民體育의 一環으로서, 跆拳道의 位置와 眞價, 그리고 우리들의 이에 對한 莫重한 使命과 責務를 깊이 自覺하고, 非常事態를 슬기롭게 克服할 수 있는 『體育報國』의 姿勢確立에 더욱 奮發해 주실 것을 懇曲히 당부하면서, 끝으로 跆拳道의 눈부신 跳躍과 發展을 衷心으로 祈願함과 同時에, 海外에서 勞苦하시든 跆拳道 師範들의 活躍에 對해 아낌없는 激勵와 讚辭를 보내는 바입니다.



# 跆拳道의

急變하는 국제정세는 이양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敵對의 시대에서 和解의 시대로, 對話없는 대결에서 對話있는 대결로 모든 세계가 바뀌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潮流에 併進하여 우리도 7·4南北共同聲明으로 翌로 4半世紀만에 分斷된 南과 北의 對話를 나누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우리 5천만 겨레는 머지 않은 날 民族統一이라는 宿願을 풀 수 있는 甚찬 希望을 안게되었다.

이러한 때 일수록 우리는 국민 모두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總力安保와 經濟建設을 위해 매진할것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태권도인 들도 뚜렷한 時局觀을 갖고 변화되어가는 새로운 상황에 대처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앞서 문교부는 안보체제의 강화를 위해 국방체육을 적극장려, 지원키로 방침을 세웠고 이에 따라 어느 경기 보다도 태권도가 각광을 받게 되었으며 태권도인의 使命 또한 莫重해 졌다. 이뿐만 아니라 「스포오즈」를 통한 南北의 實力競爭이 전개되어 北은 능가, 압도 할수 있는 「스포오즈」로서 태권도의 比重이 크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다.

이와같이 중요한 위치에 처해있는 우리 태권도는 해결해야 할 많은 課題를 안고 있다. 앞서 본 협회는 명년부터 실원될 태권도의 教科課程 삽입에 대비, 만반준비를 갖추기 위해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품세(型)의 制定과 教本의 편찬작업을 끝마쳤으며 이 사업을 수행해 낼수있는 지도자의 육성을 서둘러 이미 수차례 걸쳐 일선지도자 講習會를 열고 사업들의 實質上에 힘써 왔다.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의 遠大한 꿈을 이루기 위한 준비작업이며 외형적인 虛榮을 쫓기보다 內實을 튼튼히 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1백30만 태권도인의 宿願인 中央道場建立이 10월末에는 完工될 예정이며 이 道場의 완성을 계기로 명년 5월 세계태권도인을 한자리에 모아 세계전수권대회의 큰 잔치를 베풀때 우리는 미토소 태권도 宗主國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명실상부한 總本山으로서 자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중앙도장의 완공은 세계를 우리의 품으로 끌어들이는 새 역사의 출발이기도 하다.

## 來日을 위하여!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김운용

말로만 宗主國임을 내 세울것이 아니라 세계태권도계를 이끌고 갈수 있는 力量을 기르는 데 보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신수련을 의민한 힘의 과시나 제급의식의 고식적인 자세를 버리고 국가태권도를 世界的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組織的體系論과 分析的方法論의 持續적인 研究를 계속리 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본 협회는 해외개척을 위한 보급사업으로 英·獨문의 「맹프리트」를 발간하였으며 「핀켄」을 팀픽 개막에 앞서 세계「스포오즈」의 頂上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우리의 民族武藝를 시범할 기회를 가졌고 또한 태권도 영화의 상영을 통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로 부터 人정을 받게 되었으며 세계「스포오즈」로의 飛躍가능성을 재 확인 했다.

과거의 道場中心의 활동에서 國技로서의 地位확립을 이루고 이제는 世界의 「스포오즈」로서 基礎를 닦아야 할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不條理와 誤謬를 제거하는 것이 急先務라고 생각한다. 본 협회는 우리의 至上目標을 이루는 첫번째 작업으로 各館別로 실시 되어 온 무질서를 지양하는 單一審査制度를 마련하여 시행단계에 이르렀다.

이 單一審査는 段證의 남발을 막을 뿐만 아니라 段의 권위를 세우고, 低質 또는 似而非 유단자의 출현을 막게 될것이다.

이와함께 태권도인의 體質改善이 점차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한다.

이제까지 일부 태권도인들은 부리키는 系譜, 派閥意識에 갇혀 大同團合을 저해해 왔으나 앞으로는 小乘의인 我執에서 巨視의인 眼目的 融和로 우리의 자세를 바꾸어야 만 할것이며

사회가 요구하고 시대가 요청하는 방향으로 태권도인 모두가 한 덩어리가 되어 使命完遂에 매진 할것을 간곡히 당부 하는 바이다.

中央道場의 완공, 세계 태권도의 결속, 單一審査제도의 실현, 교과과정 삼입에 따르는 우리의 자세 確立, 似而非 태권도인의 淨化, 기타 不條理의 제거등 우리 태권도계가 당면한 과업을 團合된 힘을 통하여 성실히 수행하면서 태권도의 앞날을 위한 과감한 整風運動을 展開할 것을 제창하는 바이다.

# 태권도의

# 내일을 펼치다

우리태권도는 이제 발아기(發芽期)에서 개화기(開花期)로, 융흥(隆興)의 시대에서 도약(跳躍)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많은 사범들이 해외로 진출하여 세계적인 「스포오츠」로서 태권도를 보급하고 태권도를 통해 한국의 업을 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무대의 개척에 앞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우선 태권도에 대한 「이미지」를 정립(定立)하고 정신적인 개념의 기초(基調)를 확고히 해야 할 것이며 내실(內實)로서 도약을 위한 만반 준비를 다져야 할 것 같다. 그런 뜻에서 우리 태권도인의 총화(總和)와 창의(創意), 그리고 개척의 정신과 자세가 어느때 보다 절실히 요청되어 지고 있다.

여기에 한국태권도의 보다 밝은 내일을 밝히는 「캠페인」으로서 좌담회를 마련하여 먼저 사범 심판등 지도자의 자질 및 품격향상 문제를 다루어본다. 태권도 사범과 심판의 권위와 존엄성은 다른 경기와는 견줄수 없는 것이기에 이 기회에 권위확립을 강조하고자 한다. (편집실)

일시 1972. 6. 15(목) 오후 3시 장소 대한태권도협회 회의실

□	고 권 김 김 노 박 변 이 이 최 한 홍	□	배
참	선 영 영 용 영 봉 동 재 태 청 흥 정	회	영
석	식 문 작 휘 철 서 식 옥 성 대 태 부	기	
자			

(심판본부회의실)

**△배영기** 뜻깊은 좌담회를 마련하여 여러분을 모시기 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 느꼈던 것만 없이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심판문제에 중점해서...



(배 영 기)

**△배영기** 그문제에 대해서 대답하겠어요. 대회장에서 비점이 나오면 제재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대중앞에서 옷을 입고 벗고하는 제단도 있어 주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저는 것으로 한정입니다. 이것은 다른 운동 경기를 보더라도 벌칙이라는것이 있어 벌점을 많이 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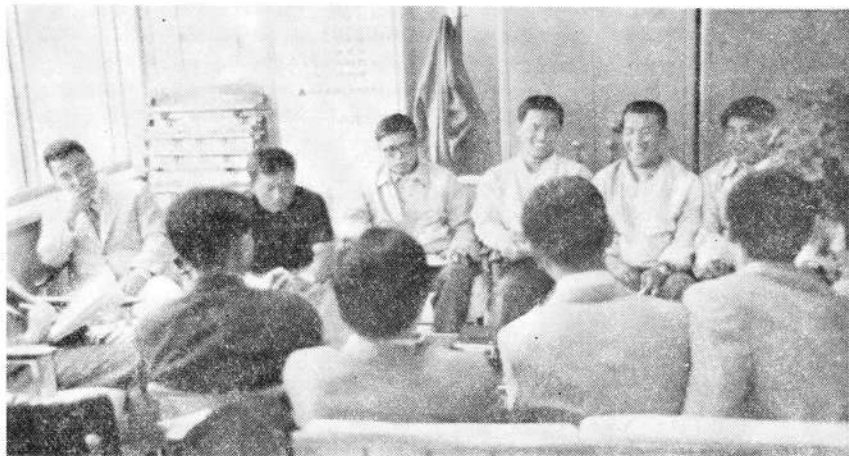
은 사람이 지게되는 겁니다. 그리고 승부를 아주 가려주는 것이 낫지, 입장이 곤란하여 비점이 나오는 경우 까지 있으니 이 빈번한 비점을 없애기 위해 특점을 하 나도 하지 않았을때는 주의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 우승을 주는 거지요 경기를 제각기 한사람에게 우승을 주는 것은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휘** 유도에서도 우세승이 있으나 태권도에서 우세승은 너무 애매하게 할 습니까?

**△배영기** 우리 태권도에서도 우세승을 줄수는 있지요. 그런데 그런 우세승이 나오면, 주심이 첫째는 욕을 먹고, 뭐가 우세한가를 따지기가 일수이고, 심지어는 하나도 「키 포인트」가 없는데 손발만 번쩍번쩍드는것이 우



(고 선 식)



세 하나는 등 비난을 받기 때문에 시합을 누가 깨듯이 했느냐, 하는 것으로 승패를 가리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규정을 만들때 여러심판원들께서도 이것이 좋다고해서 택한 것이니 그리 아십시오.

**△박봉서** 저는 매 대회 때마다 일어나는 불상사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대통령기 때도 해병대와 심판사이의 불미스러운 말들이 요가며, 선수가 심판과 분부일원을 불신하는 태도를 취한것은 발전 도상의 태권도들 일반으로부터도 질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경기라고 비판을 받기 알맞은 행동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은 강력하게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배영기** 그래서 이번 난동자들은 무조건 제명처분했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나오면 가차없이 제명처분해서, 태권도지에서 배장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난동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심판원들께서도 정확하게 권견성 없이 철저의 제임의 임하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의생자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동안은 대부분 흥분을 하게되므로 자신의 공격은 특점이 될것같고 상대방의 공격은 빛나간 것으로 혹은 그만대로 생각하는등 확실한 경기 우열을 판단치 못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때문에 선수들은 심판의 판정을 믿고 안심하고 경기에만 열중할수있는 풍토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김용희** 지금은 경기시간이 연장되어서 선수의 우열이 확실해 졌지만, 과거에는 1분 30초 2리전이라는 짧은 순간에 승부를 확정해야하므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우수선수들은 선수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심판원들과 안면이 있고, 따라서 자

기는 연습없이 경기를 해도 이길수 있다고 판독을 과시하며 때로는 이번 시합은 졌는데 내가 이긴것으로 판정이 났다는 등, 심판에 대한 불문한 감정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는 없을것로 확실합니다. 더우기 소관으로 저고 이긴다는 생각은 있을수 없는 것입니다.

**△김영작** 심판이 「제임」을 보는것은 기계가 아니고 사람의 눈에 의한 것이므로 「퀵리더」로 측정한것 같은정확세밀하지는 못하겠지요. 설혹 한두점 노쳐서 못보고 지나갔다 치더라도 그것을 문제삼는 선수가 있다면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군요. 더구나 자기 직속사범이 아니라고 반항 또는 난동을 부리는 것은 주먹을 내세워 금배



(김영작)

달이나 따보려는 한심한 쪽수이니 문제삼을것도 없겠지만, 선수를 기르는 관(館)에서 기술보다는 정신을 먼저 武道人답게 가르치 내보내 주었으면 합니다.

**△최청대** 제생각은 문제를 일으키는 선수도 선수여니와 선수를 지도하는 「코치」들이 먼저 철두철미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경기장에서 흔히 보는 일인데, 호수를 일러주오는 목이 터져라오 「야! 뭐하라!」「야! 질러!」하면서 스스로가 선수 못지않게 날뛰는 것을 보게되고, 자신이 내보낸 선수에게 패(敗)의 판정이 내리면, 억울해 못살겠다는듯이 눈을 부라리고 심지어는 경기장 안에서 선수를 욕박치르는 것은 아름

다른 동경일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경기장에 「코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려면 3·4단의 고단자로서 자기의 선수가 정확한 득점을 올렸는가 또는 얼마만큼의 실점을 하였나 하는 정도의 기본 판단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기 「물」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코치」가 있기에 한주먹을 정확히 때려야 득점이지 연속공격을 하

는 것은 득점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친절히 알려줘도 필장의 세계 들어간 「핀치」 다음에 도하나의 연속 공격이 들어가서 득점을 못하고 「케일」이 끝나면, 으메히 「코치」는 이쪽이 훨씬 공격이 많았는데, 관중이 잘못했다고 우겨대는 것을 보면 딱하 기만 합니다.



(최정대)

우선 시급한것은 선수출전에 따르는 「코치」의 등장은 자격을 획득한 사람에 한해서 나오게 하는 규칙이 세워졌으면 합니다.

**△노영철** 지금 하신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코치」들의 자격문제가 나왔으니 말이지, 과거 협회에서 제명처분을 받은 사람이 선수로 앞세우고 경기장에 들어오는 행위는 앞으로 근절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행동을 하는 대부분 사람은 제면



(홍정부)

과 앞날을 생각치 않는 사고자가 있음을 생각 할때 「코치」의 자격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작** 앞으로는 대회가 있을때마다 「코치」를 모아 놓고 경기 「물」을 한번씩 감상하게 하고 경기장에서 「매너」를 제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코치」의 잘못으로 선수의 장애가 막히는 불행은 사전에 방지 하는 방법도 될거고, 경기장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코치」의 감응은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침대** 김 사범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저는 개인전은 「코치」가 욕시 필요할런지 몰라도, 단 체전 만큼은 「코치」없이 주장이 선수를 들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불상사는 단체전을 치룰때 일어나고, 90% 이상이 「코치」, 감독의 분참로 일어나는 것을 볼때 말쑥할만 단



(한홍태)

체전의 「코치」는 없애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선수들은 자기가 「게임」을 하고 있는 동안 자기들의 우열을 판가름 할 시간적 여유가 있을리 만무한데 「코치」나 감독이 비가 유리한데 왔으니 「게임」을 포기하라고 흥분질을 하니 선수들은 「코치」의 명령을 기억 할 수 없으므로 경기질서를 깨뜨리는 겁니다.

**△배영기** 내 생각은 개인전이고 단체전이고 「코치」가 필요없다고 봐요. 권투와 같이 무슨 「맞싸지」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회전을 뛰는 것도 아닌, 2분 3회전인데, 「코치」를 해준다고 여러까지 배운 기술을 바꿀 것도 아니고 쓸데없는 잡음과 선수들의 판단을 그릇치는 경우가 더 많은것 같아 앞으로는 「코치」를 없애는 방향으로 해보겠어요.

**△한홍태** 작년 국민학교 선수권대회때 그런일이 있었어요 우리 임원들이 직접나와서 호수를 일러주고 벗겨주니 경기의 질서가 부드럽게 운영되더군요. 더욱이 「코치」가 누군지 모르니까 심판을 보는데에도 부담감이 없어서 좋더군요.

**△김용휘** 「코치」가 없으면 부담감이 적어진다는 말씀은, 지금까지 심판의 얼굴을 보고 짜졌던단 말씀 같군요.

(일동웃음)

「코치」문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태권도 도복에 협회의 규정대로 도장명이나 「마크」를 일체 부착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밀고 나갔으면 합니다.

「코치」와 감독과 소속관을 드르코, 선수의 실력 평가만 하는것은 깨끗한 관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겁니다.

**△홍정부** 지금까지 「코치」에 대한 이야기만 나왔고 주부심과 배심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는데, 저는 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합때마다 느리는 일인데 일부 배심원 중에서 주부심과 호유이 맞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심판을 볼때는 불과 1m내지 2m의 간격을 두고 쫓아다니면서 선수가상으로 「코트」를 뛰어 다니므로 정확한 관정을 내릴 수 있다고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배심원들은 고정된 자리에서 경기를 보게 되므로 오히려 심판의 판단보다 선명이 못할 것이 분명한데, 심판의 관정에 절대권한을 무너뜨리는 예가 자주 있는데 이런 점은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영기** 요전에 내가 배심원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좌담회식으로 얘기할때 「주심의 권한을 최대한으로 주도목하자」는 얘기를 했는데도 일부 배심원이 그렇게 말아드리지 않는데, 나는 그런 사람의 양식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배심을 보는 분이면 태권도계의 정수

라고 할수있는데 그런분이 선배의 권위의식에서 심판을 소홀히 취급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선배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 뜨리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겠조.

**△한흥태** 지난 대통령기 정탈전때 일인데 배심원과 심판사이 경기의 「물」이 차이가 있는것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심판장승희에게는 배심원에게서도 동석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구하여 예를 하나 들자면 두 선수가 같이 공방전을 하다가 「라인」밖으로 갈만 나갔다가 밀려 들어 왔습니다.

물론 「갈려!」도 하지 않았고 주의도 주지 않은게 계속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배심께서 호르라기를 불면서, 「왜 바깥으로 나갔는데 주의를 주지않느냐?」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시합「물」에 공방전에서 서로 나갔다가 그냥 시합이 계속되므로 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아시겠지만 한사람이 고의적으로 피해가거나 도망가면 주의가 되겠지만 그런 경우는 도대체 주의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니다.

**△배영기** 지금까지는 심판장승희 배심원이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시간을 쪼개조 걸뒀하면 빠져서「물」에 대하여 잘 모르는 분도 제설것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그런분들에게도 역시 배심을 양보해 달라고 제가 건의 하겠습니니다.

**△이재욱** 저도 배심과 심판사이의 「물」에 대한 상반의 견해를 이따끔 경험합니다. 그러나「물」에서 오는 잘못은 고칠수도 있겠지만 승패의 공명정대는 주부심과 배심인, 우리 심판단이 올바르게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기 정탈전의 결승전 실황은 T V로 중계를 하였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김봉서** M.B.C에서 공수부대 B팀과 A팀이 매결하는 광경을 「뉴우스」 시간에 보도하는 것을 보았는데 일군이 흠어져서 혼이 났습니다. 태권도의 경기는 다른 경기와 달리 일반에게 「게임」이 아직도 생소한데 그들의 경기 내용은 같은 육군「팀」끼리의 대전이고 시합은 2분 3회전 뿐인데 주부심에게 항의를 하고 배심부에게서 항의하는등 항의하는 시간만 길고 「게임」도 「게임」같지 않은 경기를 일반에게 보여져서 짜리뭉치 중계를 안한면 이 잘 생각하고 생각했습니다.

**△배영기** 우리 태권도는 다른 경기와는 달라서 그 「물」이 어려울 뿐아니라 흥미 분위로 관객을 흥화하는 「스토오츠」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의 중계를 중요시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기가 광고롭게 백빠진 절승이여서 그렇지 사력을 다해 싸우는 「드림」있는 경기내용은 태권도가 어느 경기 못지않게 멋진 경기입니다. 마치 야구

에서 9회말 「홈런」을 날리므로서 지던 경기를 이기게 하는 재미와, 마지막 3회전에서 둘러차기와 같은 위력있는 펀치가 글스에 명중하여 K.O승을 거두는것 같은 것은 태권도에서 야구의 홈이와 권투의 긴박감을 맛보게 하는 것이지요. 앞으로 국내에서는 세계 선수권대회와 같은 대항대회



(변 동 식)



(김 용 휘)

를 치르게 되면 좌승 「메스컬」의 초점은 우리한테 올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것은 국내에서는 메스컬의 관심이 적은 태권도가 외국의 여러나라에서는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겁니다. 월남을 비롯한 「말레이지아」, 「홍콩」, 日本, 구라파의 여러나라에서는 작고 큰 대회를 막론하고 모두 취급



(이 재 욱)

되고 한국 사람들의 시범경기이 신문사의 견문을 장식하는등 화려한 각광을 받고 있는때 조상의 멋진 「스프오츠」를 남에게 즐기게 하고 우리는 고차 남의 나라 것에만 혈안이 되는것은 「스프오츠」 주체성의 확립이란 말이 나올법 합니다.

**△노영철** 저는 경기때마다 느끼는 일로서 저의 심판석에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와 앉아있는 것에 불만이 많습니니다. 도대체 심판들이 앉아있는곳에 다소의 안면

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 몰라도 아무는것은 외부사람들의 눈에 거슬리게 보일것 같아 앞으로는 이걸 강력히 제지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박 봉 서)

**△배영기** 심판석을 따로 설치한 것은 심판을 우대한다는 것도 되겠지만 외부사람들과 집권을 막자는데 그 뜻이 있는것입니다. 간혹 한두사람이 안면이 있는 경우에는 나가달라는 말을 못하는 수가 있는 모양인데 그때는 여러사람이 함께 야기를 해서 안면이 없게 하여야겠어요. 극히드문 메가 되겠지만 외부 사람이 심판석에 앉아서 심판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앉아 있는 때가 있다는 말



을 들을때, 그때때에도 심판들이 단합되어 있으면, 쉽게 내뱉을수 있을 겁니다.

**△권영문** 제가 보기에는 지난 몇년전 보다 심판원들이나 배심원들의 질서는 장족의 발전을 가져 온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심판단은 「물」에 의한 확으로 일어나는 불경불란에 대해서는, 심판자 자신이 몇몇한 것이면 소신대로 밀고 나가고 배심의 문제는 배심원들의 회합이 있을때니 그쪽 일은 다이상 관여말기로 합니다. 그리고 협회의 공인(公認)형이 68년부터 시행이 되어, 저도 자 강승희씨마다 지방에서도 많이 와서 배우고 있는데 그때때에도 심판관정이나 경기「물」을 가르쳐서 확오렸는 경기를 치물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신식** 시합장에서의 저의 느낌은 몇몇 사람의 입으로부터 새나오는 이야기가 감을 일으키고 있는 요인이 되는것 같으니 우리 심판들도 경기후에는 말조심 자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까지는 우리태권도인이 지켜야할 예의규범이 엄연히 제정되어 있는데 각 도장에서는 예의규범을 소홀히 지도하는 것 같습니다.



(노영철)

**△변동식** 저는 우리 심판원 여러분에게 이권자리에 서 부끄럽다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년 대통령배 삼일제 되던 날인데 심판 불이 시간을 맞추지 않아 본부측으로부터 좋지않은 말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심판원들은 시간을 여유있게 갖고서 경기장에 나오도록 우리 스스로 출선수법, 말습의 요인을 제거하는데 앞장섰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영기** 지금 번사법에서 아주 좋은 말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심판들만 모인 라담에서 코치를 일찍하고 배심원을 원망하느니보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고치고 잘해 나가야 할것인가 하는 문제가 논의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배심원들이나 코치들의 입장에서 보면 심판원들에게 할말이 없을리 없습니다. 지금이 자리는 태권도의 내일을 향한 진취적인 대외의 광장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태권도중앙도장의 완공에 따라 세계의 대형선수들과 맞서 싸우게 되며, 종주국다운 심판의 공경성이라던가 「패너」, 「물」에 대한 철저한 훈련을 향하여야되는 등, 숙제가 얼마든지 있는것입니다.

**△한흥태** 세계대회 말씀을 하셨으니 평소에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을 이자리를 빌어 협회측에 건의하고 싶습니다.

현재 태권도는 세계의 곳곳에서 수 많은 사람이 조금씩다른 형을 고집하여 수련하고 있으며, 어떤나라에서는 겨루기 시합의에도 격과 시합을 하는 곳도 있는 모양인데, 겨루기 경기만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격과종목을 추가하여 격과의 「참피온」을 만들고, 협회의 형을 가장 멋지게 하는 사람에게는 미(美)의 「참피온」을 만들면 힘과 기술과 아름다움을 고루 갖춘 부도로서 더욱 환영을 받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영기**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협회에 건의 드려서 빠른시일내에 시행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한사범의 의견처럼 협회에서도 시행여부를 살고 현재 연구중이니가 미구에 시행 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김영작** 단체대항에 있어서 학생 및 군경팀이 출전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고 따라서 일반은 행렬을 붙날 없이 굳에서만 우승기를 독점해가는 것을 볼수있는데 앞으로는 일반팀은 一個의 도장대표만 선발해나오지 말고 협단위 또는 市단위로 들어서 팀을 조직하면, 대회가 좀더 「역사적」해 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協단위가 되면 協의 명예를 걸머지고 싸우게 되므로 관(館)의식도 없어지고 대회를 치를때마다, 관(館)과 관의 친목도모에도 많은 성과를 갖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조금전 「코치」문제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았는데, 「코치」의 난동이나 몰지각한 행위 때문에 「코치」를 경기장에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선수의 표정만 보아도 「컨디션」의 판별이 가능한 「코치」는 선수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 필요하며 삼보대와 호구를 어떻게 매주는것이 최상의 경기를 할수 있다는 선수특유의 개성을 알고있는 사람도 「코치」이므로 「코치」를 없애는존 췌문제는 재고해야 하겠습니다.

**△최청대** 저도 김사범 말씀에 공감합니다. 몇사람의 「코치」문제를 놓고 우수하고 선량한 「코치」가 경기장을 떠나야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훈련이 안된 「코치」도 훈련을 시키고, 좋지못한 경력과 근성이 있는 사람은 제명처분을 해버리므로써 경기장은 명량해질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경기때마다 관(館)의식이 분명히 체제하는것 같으면 協나 市단위로 경기를 갖게 되면 관(館)으로 부터 생겨나는 파벌의식이나 권파적인 승부욕이 없어져리라 믿습니다.

우리 심판원들도 自衛한 문제는 많겠습니다만, 말조심하고, 단정하고 시간을 잘지키자는등 세부적인것 가



(권영문)

올해 경기를 전후해서와 경기중에는 아는 선수라해서  
점심을 함께 하거나 차한잔을 나누게 되더라도 관중이  
나 다른 선수들에게는 의혹과 불만의 대상이 된다는 것  
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배영기** 오늘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지금까지 여  
러분께서 보되하신 것은 중립적으로 정리라고 이 라담  
회를 끝마치야겠습니다.

첫째, 심판식에 선배되는 사람, 혹은 후배되는 사  
람, 어느편에 있는 사람 등등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얽  
혀 놓고 쫓아 버리지 못하는게 오는 심판원들이 단결  
하라는데도 단결하지 않지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다고  
봅니다.

단결이 되어 있으면 외부사람이 결에 접근을 할수도  
없겠고 실속 접근한다 해도  
다함께 이야기하므로서 어떤  
한 사람이 눈총을 받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만은 빠져  
자, 하지 말고, 내가 알겠서  
자」 이런 정신으로 일케는겨  
일하도록 해주십시오.

둘째로, 「코치」문제인데,  
나 개인의 의견으로는 「코치」

가 입고 벗기는 호구도 심판이 맡아서 하도록하면 되고  
다쳐도 심판이 응급조치를하면 충분하리라 생각하는데  
관 반 의견이 많으므로 차후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우리 심판원들의 문제로서 「제임」  
후 물의가 일어나는 원인은 이 라담회를 통하여 대  
강논의가 되었으나 심판원은 입이 무거워야 한다는 중  
요한 사실이 바뀐 것 같습니다. 자기 관(船)원의 경기  
를 보고 나왔다고 해서 말을  
하게 되면, 심판의 편위는 그  
대로 반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을 보고난 후에  
토의가 필요하면 그 경기를  
추도한 다섯사람이 다시한번  
모여서 비판을 할일입니다.

알므로 심판에 대한 어떤 중  
요의 이야기던 관에 발설을  
하는 심판원이 있다면, 심판  
원에서 때버리는 조치를 취할테니 작자가 명심하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라담회의 안건들은 정리해서, 각 분과위  
원회에 전의, 또는 시정요청 할것을 약속하고 이만 그  
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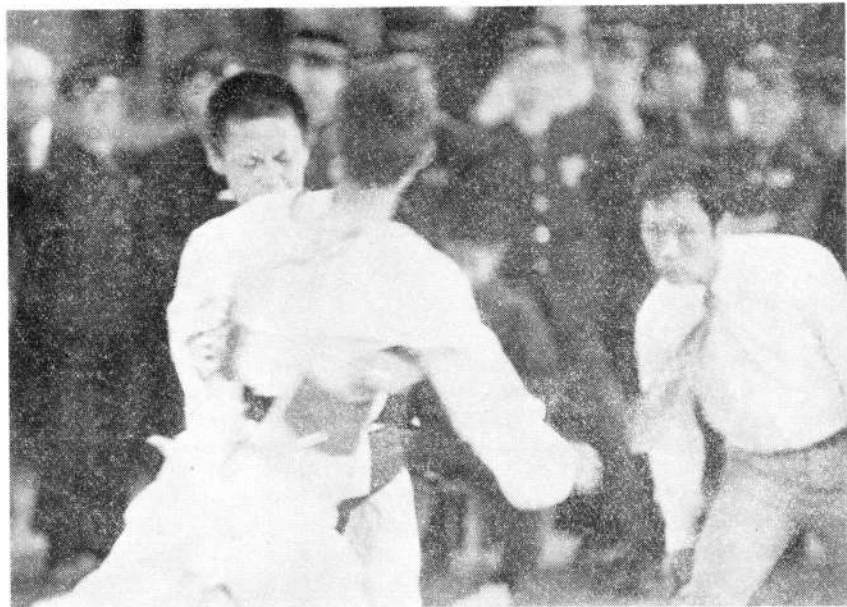
장시간 동안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봉기)



(이태성)





大統領旗爭奪

## 第七回全國團體對抗跆拳道大會

### 개 회 사

親愛하는 任員 및 選手 여러분!

그리고 이차리에 參席하신 來賓 및 市民 여러분!

오늘 大統領旗爭奪 第七回 全國團體對抗 跆拳道大會에 이같이 盛況을 이루어 주신데 對하여 大會長으로서 먼저 感謝의 뜻을 表해 마지 않습니다.

서울신문사는 七年前 이 大會를 마련하여 우리 固有의 武道인 跆拳道의 認識을 넓히고 건실한 「스프오츠」로서 發展시켜 靑少年들에게 武道의 바른 方向을 제시하여 건전한 體育으로 發展시키는 한편 알찬 경기를 통하여 市民들과 함께 명랑하고 유쾌한 시간을 보내 왔습니다.

跆拳道는 勇名, 禮儀, 諄讓, 忍耐 등으로 人格을 涵養하며 高度의 技術과 힘으로 體育 및 武術을 널리 보급시키는 좋은 技藝인 것입니다.

특히 이제음도 멀리 칠남에서, 美國에서, 獨逸에서 세계 곳곳에서 韓國의 跆拳道가 눈부시게 활약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착실하게 보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本人은 이번 大會와 關係해서 한가닥 未洽感이 달라 不滿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例컨대 蹴球다 野球다 拳闘다 하는 다른 種目の 「스프오츠」들이 번성해가며 많은 大衆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跆拳道는 오래동안 뿌리 박아온 歷史에 비

해, 아직도 미진한 自己誇示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點입니다.

總力 安保態勢을 確立해야 할 時點을 감안할때 跆拳道는 널리 大衆化되고 보급되어 國民 心사란 心사란 이 跆拳道를 사랑하고 스스로 익히는 大衆「스프오츠」로 성장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본때

本大會는 七年의 세월을 거듭하면서 跆拳道 보급의 積極적 役割을 해왔다고 자부하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恒常 깊은 關心을 가져 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번 大會부터는 大統領閣下에서 學生部에도 優勝旗를 하사하시어 一般部와 學生部를 분리하여 競技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大會에 臨하는 일진 選手들이 一致團結하여 大會를 模範의으로 秩序있게 進行시켜 큰 成果를 거두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跆拳道를 사랑하는 來賓 및 市民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大會의 빛나는 成果와 선수들의 건투를 祝願해 마지 않습니다.

感謝합니다.

서울신문사장 申 範 植

# 第7回 全國團體對抗跆拳道大會를 마치고

경기분과 위원장 김 순 배

제7회 대통령기정말 단체전이 6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장충체육관에서 성대히 거행 되었다.

이 대회는 단체경기로서 본 협회가 주관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큰 대회인 것이다.

따라서 협회에서는 공문 발송과 동시에 제반에 걸친 계획을 수차 검토하고, 대회가 열리기 전에 심판들을 소집하여 심판 강습회를 몇번씩 하는 등, 많은 준비와 주의를 쏟아 왔다.

특히 금년에는 경기규정과 심판규정이 개정된 후 갖게 되는 가장 큰 단체전이어서 집행부 임원들은 더욱 세심한 준비와 노력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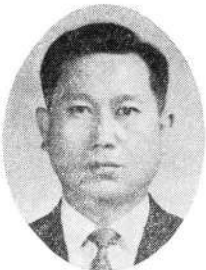
이렇게 한번의 대회가 치러지기 까지에는 준비 작업이 수월한 것이 아니련만, 올해도 접수마감 시간을 지키지 못하여 참가를 못한 팀이 있었음은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경기를 치를 때마다 느끼는 일인데 접수 시간을 잘 지켜서 사무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는 분위기가 이루어 질 것을 이기회에 말해둔다.

71년도 제6회 대회에서 일반 「팀」에 포함되어 4개 고등학교 팀이 참가, 용천분투 하였었다.

그러나 금년에는 주최자 측과 협회로 하여금 학생부(고등부)를 신설하게 하는 용단을 내리게 했고 따라서 대회는 그 규모가 작년에 비하여 배(倍)로 확대한 셈이다.

더우기 71년도 대회 예에는 1분 30초 2회전으로, 휴식시간 30초를 합하여 3분 30초에 한 「게임」이 끝났으나 금년에는 2분 3회전, 30초 휴식으로 거의 갑절로 경기시간은 늘어나고 45개팀(학생 23팀, 일반 22팀)의 「게임」을 3일간에 끝내고 6월 4일의 폐회식을 15시 30분에 하기로 대회를 운영하다 보니 오후 10시부터 시작하던 전예로는 도저히 45「게임」을 치를수 없어 계획을 변경, 공문과 「매스컴」에서는 10시부터 경기를 시작한다고 발



표하고도 오전 9시로 경기시작을 단축 집행하므로써 45개 팀의 계입을 제정대로 마칠 수 있었다.

금년 대회에는 참가 팀 수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예년의 어느 대회때 보다는 관중이 많았으며 이런 현상은 대권도의 시대적 필요성과 일반 인식이 보편적인 「스포츠」로서 정착하는 과정을 시각(視覺)으로 느끼게 하는 좋은 징후라고 생각되었다.

또한 예년에는 관중들의 웅성직한 야유와 폭언 때문에 경기장의 분위기를 그르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으며 관중이 흥분하면, 선수들 까지도 군중 심리에 말려들어 사고를 내는 일이 있었으나 이번 대회는 비교적 평온한 가운데 경기를 할 수 있었음을 다정(多幸)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기 정말 단체대항전이 있음에 따라 옮겨 우려되는 것은 과잉 응원이며 선수나 임원들의 신경은 과열된 응원으로 괴로워 있기가 일수인 것이다.

대통령기 정말전이라는 대회의 「타이틀」과, 기술로 보아, 모든 경기의 규범이 되어야 할 경기장이 난장판으로 화해버리는 것은 심히 유감된 일이고 관에자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 가운데 하나였다.

× ×

첫날 경기에서는 71년도 3.4위권에 진출 한바 있는 조선대학 팀이 일차 예선에서 무리권 서울본권에 패배한 것은 지방에서 개정된 심판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온 결과라 아쉽고 생각한다.

둘째날인 6월 3일은 작년도의 우승팀 해원대와 무덕관본관의 대전과 육군 B팀(제일 공수단)對 동아대학의 대전은 처음부터 격문을 예상케 하는 게임이었다.

먼저 벌어진 육군팀과 동아대학의 대전은 육군팀의 힘과 솜씨에 동아대학은 작년도의 3.4위 진출의 관복도 마르 못한채 2대 1로 석패하고 말았으나 이 역시 심판규정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었더라면 좀더 「익

사」이르던 경기가 될 수 있었으리라 아쉬움을 남기는 경기였다.

학생부에서는 작년도 본 대회에서 일반「팀」의 장벽을 뚫고 준결승전까지 올라와 박수 갈채를 받은 동태문상고가 선인중학교등학교 A「팀」에 4대 1로 고배를 마시고 진통을 자랑하던 수송건공이 장훈고등학교에 4대 1로 참패를 당하는 등 고등부의 삼위 관도는 심한 변화를 보여 주었다.

이날 오후 4시에는 가장 걱정과 염려를 하였던 해병대와 육군 B「팀」의 대전이 벌어졌다.

육군팀의 응원단이 첫날 부터 위세를 보이고 응원, 잘게 판자를 발로 두드리는 등 선수와 관중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위음을 내어 본부석에서 주의와 제지를 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지지 않으려는 해병대의 열변 응신속에 경기장은 흥분의 도가니가 된 가운데 경기를 진행하게 되었다.

두 팀은 우열을 가늠하기 힘든 가운데 2대 2 동점으로 「티켈」이 끝나고 대회 규정에 따라 대표 선수의 연장시합을 벌였으나 역시 비결의 관정으로 추침을 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육군 B「팀」은 결승전출의 행운에 「티켈」을 뒤계되었고 전년도 우승팀인 해병대도 낙후의 도중 하자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 관정에 대한 불만을 품은 해병대「팀」의 2선수는 관중들이 보는 앞에서 난동을 부리므로서 관계자는 물론 일반의 빈축을 사기에 이르고 만것이다.

대회를 끝내고 상벌분과위원회에서는 두 선수에게 제명 처분을 내렸으나 대회가 있을 때마다 말썽을 일으키는 군(軍)「팀」의 참가 문제는 제고 되어야 할 문제로서 과거에도 많은 논란이 되어 왔고 이번 기회로서 더욱 심각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취업적인 응원, 경기장에 무단입장, 관정에 대한 수관적인 불복태도, 언행의 불량성 등…… 선수의 선서제하고 경기에 입한 선수로서 배심원이나 심판원을 폭력 폭언하는 따위의 물지각한 소행은 선수의 자적 문제나 말할 필요도 없고 무도(武道)를 수련하는 사람의 교양과 인격의 결여를 의미하는 바 한심하기 이를데 없는 것이다.

모든 東洋의 道는 예의를 앞세우는데 意義가 있고 그것은 道로서의 값어치를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시합의 광경

按단 백을 사람이 유단자라고 자부하는 풍토는 배제되어야 할 큰 문제점일 것이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입상은 못했으나 서울大學「팀」이 참가하여 준준 결승에까지 올라온 것은 특기 할 만한 사실이며, 심판규정에 대한 제박론 이해와 知性(知性)다운 협력과 단합의 힘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되어 그 팀의 출전에 박수와 격려를 보내는 바이다.

대학 팀을 말함에서 있어 배이 놓을 수 없는 명지대학팀은 이번 대회를 제기로 작성을 하여야 될 팀으로 지적하고 싶다.

2차 예선에서 성공관 대학에게 4대 1로 완패된 것은 팀력이 부족하고 평소 수련을 게을리 하였음이 동작을 하는 가운데 충분히 나타나고 있었으니 말이다.

경기에 참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가를 하기까지의 충분한 준비는 선수들이 원연적으로 선행하여야 될 「대내」임을 명심하여야겠다.

내용이 없는 시합은 아무리 해 봐야 「편」이 생길터 없고 관중의 빈축을 사기에 알맞은 것이며, 충실한 제임을 보여 주므로서 만이 「스포츠투」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비록 패배의 쓴 잔을 마셨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였다면 敗者로서의 부끄러움이 있을 수 없다.

좋은 예로서 작년 대회에서 일차 예선에서 탈락했던 안양대학은 금년도에 감독의 발전한 모습으로 3, 4위전에 올라 아깝게 본패 했으나 이들에게는 참투성이 주위 있고 내년의 대회에 더 큰 기대를 가져 볼만한 여운을 남겼다.

고등부에서는 예상을 뒤엎고 「다크호스」 남산공전이 자신 단만한 광성고교를 누르고 우승하였으나 광성과 남

산공전의 실력의 격차는 거의 없는 것이었다.

제우리 실력이 우수한 「팀」에게도 「컨디션」의 「웨이브」는 있게 마련이고 하위 「팀」이 최상의 「컨디션」일때 상위로 오를 수 있는 기적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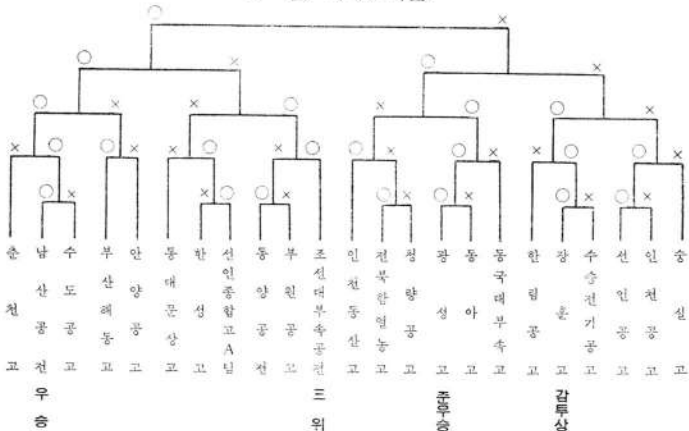
그 밖에 조선대학 부속공전은 장훈교로를 물리쳐 3위에 입상을 하였고 장훈교로는 잠부상을 타는데 그쳤다.

고등부 개인 복기상을 차지한 김 세혁은 5전5승의 전승자로서 다리에 심한부상을 입고도 끝까지 선전 본투한 보람으로 복기상의 영예가 주어졌 것은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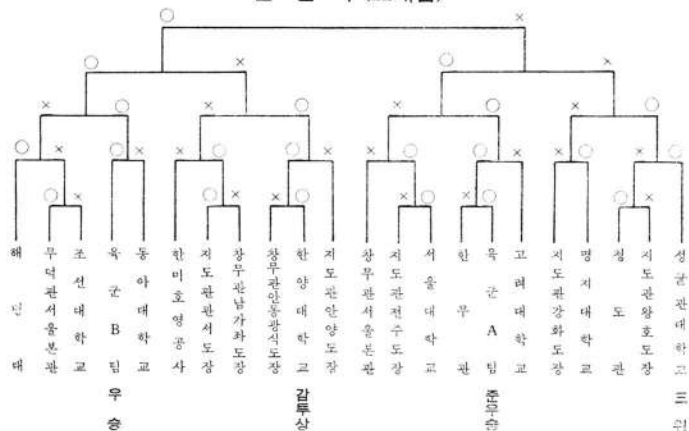
특히 대회의 「최난제」를 장식한 일반부 결승전은, 그것을 보기 위하여 찾아온 수 많은 관중과 내외 귀빈이 참석해 있는 「빅-게임」의 결전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육군 A「팀」과 B「팀」의 출연한 게임 운영은 관중에게 불쾌감과 실망을 안겨 주었고 연 3일간 동서분주히 大會를 이끌던 관계자들을 허탈케 한 경기였음을 부연 하는 바이다.

다만, 육군 B「팀」에게 대동령기를 안겨주는데 공헌이 컸던 최 승 선수는 대회 기간중 보여준 발군의 투지와 끈기를 높이 사고 싶은 마음 뜨거운 박수로 대접한다♣

### 학 생 부 (23개팀)



### 일 반 부 (22개팀)



대회 성적표

# 「나자루딘」말레이지어



本會를 訪問한 나자루딘(TAN SRI DATO UNGKU NAZARUDDIN BIN UNGKU MOHAMED)참모총장

지난 7월 1일 「말레이지어」태권도협회 회장이며, 육군참모총장인 「나자루딘」총장이 본 협회를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金 雲龍 회장은 명예 4단장과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대한체육회강당에서 벌어진 시범경기를 참관했다. 그는 이 시범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나자루딘」총장의 한국방문은 지난 3월 東南亞태권도계를 시한한바 있는 嚴 雲奎 사무총장의 순방외교의 성과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3만명이나 되는 태권도인구를 가진 「말레이지어」에는 불과 4명의 한국사범이 있을 뿐 대부분 「말레이지어」 유단자들에 의해 태권도 도장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유능한 실력을 가진 한국사범을 환영한다고 「나자루딘」총장은 밝혔다.

근대에 있었던 칠남전을 통하여 태권도가 십신단련과 전투력 강화수단의 하나로 자살을 받게됨에 따라 「말레이지어」도 그 가치를 인정하여 「나자루딘」참모총장의 한국방문을 계기로 중주국의 태권도를 「말레이지어」에 수입해 가려는 열의를 보여왔다.

「나자루딘」총장은 환영「리셉션」에서 金 雲龍 회장에 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① 사범 증파를 주 「말레이지어」한국대사관을 통해 요청하였으니 적극 협조 지원하여 줄것.

② 태권도중앙도장완공후에 열릴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말레이지어」대표팀을 초청해 줄것.

③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개최시, 서울에서 진정한 의미의 국제연경을 조직할것.

④ 경기 「물」에 있어 격과경기를 제검로 해 줄것. 예로서 「말레이지어」와 「싱가포르」에서 격과대회가 있었는데 벽울의 질(質)이 달라서 경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본다는 불만동의 견해를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격과부분 경기가 없음을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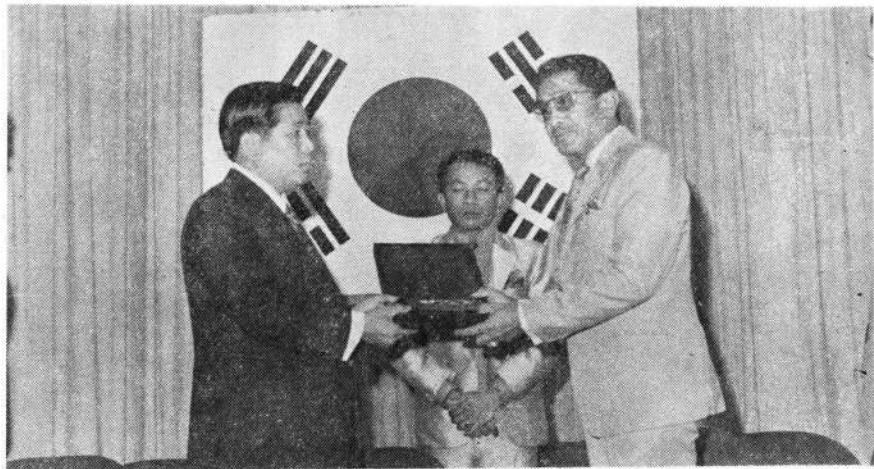
⑤ 태권도 이론의 과학적인 발전을 위한 연구에 힘써 줄것.

이상과 같은 제의를 통하여 「나자루딘」총장의 건지한 태권도관(觀)을 볼수있었으며, 주먹구구식에 의하고 구전(口傳)으로 전해지는 태권도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연구하려는 노력이 여실히 입증되었다.

특히 기술심의회의원 李 鍾佐氏와 漢陽大의 玄 友泳교수는 「나자루딘」총장에게 태권도의 과학적 근거를 실증하는 여러기구 및 자료를 제시, 장시간에 걸쳐 설명하였는데 아직도 미개척상태에 있는 무술 및 무도의 과학적 입증의 과제를 남겼다.

「나자루딘」총장은 金 회장을 방문하기에 앞서 과학기계의 전학을 요청, 태권도 도입을 위한 실증한 태도를

# 참모총장 본협회 방문



보였으며 세계태권도대회 참가를 확인하고 사범단편을 요청하는등 폭넓은 활동을 보였다. 「나자루딘」중앙의 방한이 남긴 과제로 과학적인 고증을 들수 있는데 인간에서 생성되는 최대의 「에너지를」 어떠한 속도로 가함으로서 목표물이 파괴된다는 공식이 생겨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더욱 고전래(古傳來)의 동양무술에서 인간이 보여주는 무수한 힘은 「나자루딘」중앙만의 외문이 아니며 현대과학의 총아 「컴퓨터」도 해결치 못하는 신비의 속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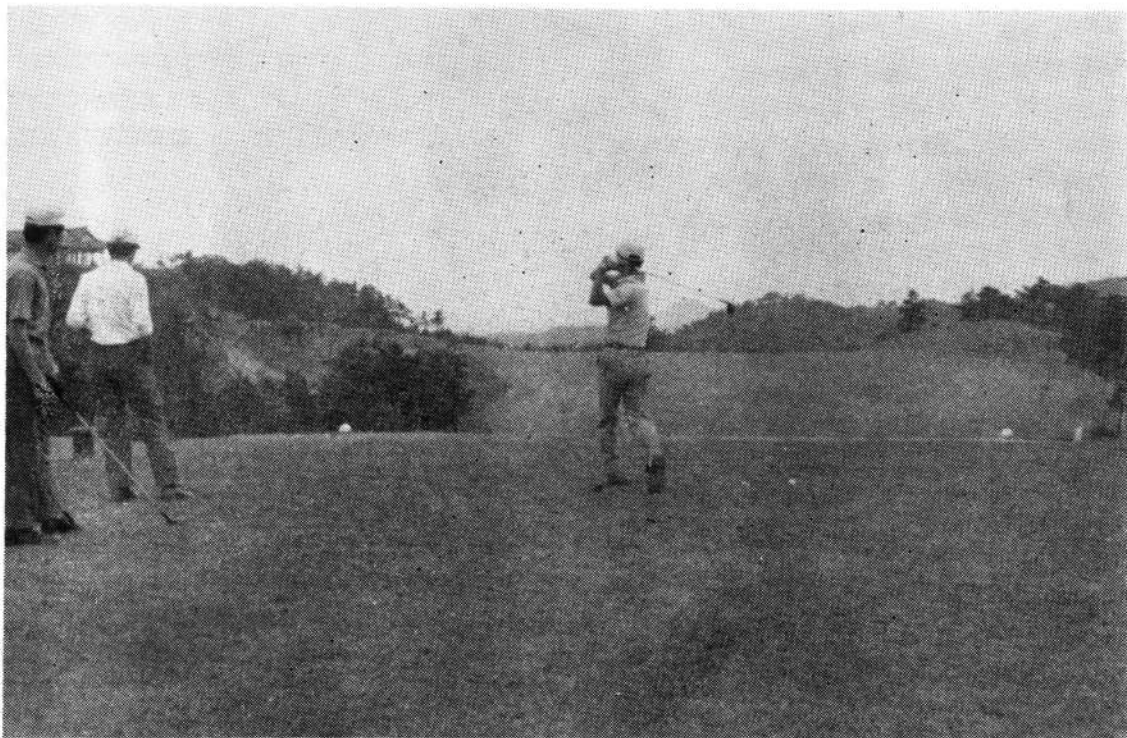
로 남아있다.

「나자루딘」중앙의 방한을 계기로 「말레이지어」 태권도 보급을 보다 강화하고 이제까지 동남「아시아」에서의 무질서한 사범활동을 체계화하게 되었다. 특히 「말레이지어」에 있는 태권도사범단은 수차례 걸쳐 결속을 위한 회합을 갖고 대한태권도협회의 전문적인 지휘아래 긴밀한 연락을 취하기로 약속하고 본협회에 통보해옴으로써 이번 「나자루딘」중앙의 방한 소득은 더욱 컸다. ❀



제 1 회 대한태권도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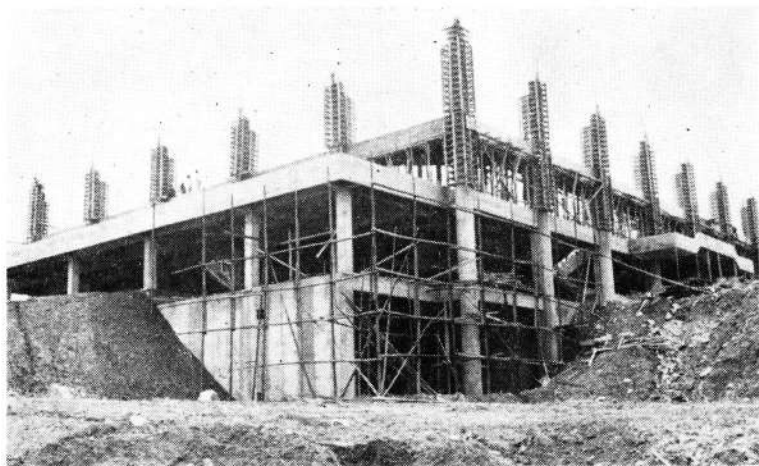
# 會長盃爭奪親善골프大會



대한태권도협회 회장배쟁탈 친선 「골프」대회가 지난 6월 25일 「漢陽컨트리·클럽」에서 열렸다. 이대회는 본 협회중앙회사의 성립을 돕는 후원인사들을 위해 金雲

태권도 「센터」건립과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듣고 태권도의 발전에 깊은 관심과 열의를 기울여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 태권반만년의 金字塔



## 내년 4월 세계 선수권대회

1백30만 태권도인의 요람이 될 태권대전도입회 중앙도장이 작년 11월 19일 착공식을 올린지 10개월만에 80%의 공사를 끝내고, 오는 10월30일로 준공을 예정하고 급「리치」를 올리고 있다.

김원초 축구, 배구, 농구등 비교적 일반인에게 인기가 높은 종목의 협회 회장들도 전용 실내경기장을 짓겠다는 화려한 청사진을 내 보였을 뿐 공약(空約)으로 그쳐있는 실정이나 본회의 金 雲龍회장은 취임초의 공약(公約)을 100% 이행하므로써 국내 체육단체가 갖는 최초의 협회전용 체육관의 기복을 남기고, 아울러 태권도 중추국으로서 전면으로 보이게되었다.

완공을 앞두고 세계각국으로부터 진출한 해외사범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73년 4월에 마련될 제1회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는 측면에서 인이 담겨하고 있다.

특히 부산 연무관의 金 鼎培씨는 1만원을, 미국의 金 秉洙사범은 2백불을 李俊九 사범은 1千弗을 도장건립에 써 달라고 보내오므로써 협회 임원들의 사기를 높여주었다. 생혼한 태권도인 가운데 가장 원로가 되는 노병직 사범은 「일찌기 불수없던 정열과 실천력을 가진 金

회장의 노고로 이룬 중앙도장은 태권도사(史)에 기린을 발자취에 붙임없다」고 말하면서 「태권도의 기반(基盤)을 반석(磐石)위에 올려놓은 金 회장의 위업(偉業)은 이 도장에서 배출되는 태권의 거목(巨木)들이 무성해 지므로써 보답될 것이다」라고 중앙도장 준공에 따르는 金 회장의 노고를 치하했다.

× × ×

중앙도장은 서울城東區驛三洞76번지의 2천평 대지위에 연건평 1,249평, 지하 1층과 지상 3층, 관중석 3천석의 건물로 세워지고 냉난방시설과 합숙시설, 강당, 식당 「사위」실등이 있는 최신식 체육관으로 총공사비 1억5천만원의 들인 「말모스」도장이다.

金 雲龍 회장은 중앙도장이 완공되면 국내의 각종 태권도 대회와 국제태권도대회를 유치하므로써 태권도의 상호기술향상과 코린을 두텁게하고 전용체육관이 없어 고전하는 「레스링」, 씨름, 「씨드민턴」등 다른 경기단체에는 이를 활용 할수있게 문호를 개방한다고 말하므로써, 한국「스포츠」 발전을 위한 金 雲龍 회장의 독립은 운영 「플랜」에 각계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 跆拳道를 위한 身體運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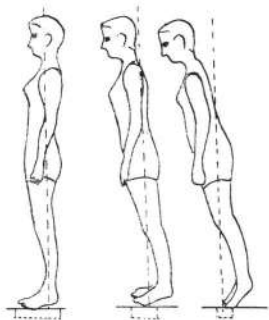
柳 根 碩

전달(제 5호)에는跆拳道를 하는데, 몸을 어떻게 쓰면 가장 힘이 안들고, 부드럽으면서도 힘이 있게 운동을 할 수 있는가 하는 問題를 내놓고, 基本의인것부터 解説을 하였다. 이번에는 그것에 이어서 安定性的의 原理를 說明하기로 하였다.

### ③ 支持面과 重心線과의 관계

사람이 넘어지지 않고 서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은 支持面 안에 重心線이 놓여 있을 경우에 성립한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으면 그것이 곧 支持面이 되는데, 그 支持面 위에 重心線이 와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몸이 제일 定全하게 유지될려면 支持面의 中心點에 重心線이 놓이게 하는 것이 첫째 條件이 된다. 이렇게 支持面의 中心點에 놓였던 重心線이 차차 支持面의 변두리에 가까이 옮겨지면 몸의 安全性은 가까워질 수록 잃게 되고, 重心線이 支持面을 아주 버서나면 사람은 쓰러지거나, 발을 옮겨 딛게 마련이다.



<그림> 左로부터 ① ② ③

는 불안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前號에 말한것 같이 사람이 운동을 할때는 安全性을 不安全性으로 바꾸어야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한 대로, 적을 공격하려하는 자기 몸의 支持面 中心點에 重心線이 놓이게 하지 말고, 重心線을 移動시켜 支持面 변두리에 가까이 두고, 다음으로 動

작을 하도록 하여야 날쌔게 움직일 수 있게된다. 그러기에는 支持面을 처음부터 작게(발바닥 전체로 디디지 말고, 발끝으로 딛고)하고 重心移動 距離가 짧게 되도록 態勢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重心移動은 前·後·左·右를 莫論하고 같은 原理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물건을 들거나 자기가 안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면 支持面을 넓히고, 面 中心線이 놓이게 하거나, 物件을 가진 反對便으로 몸을 굽혀, 左右나, 前後의 重量이 重心線을 境界로, 갈게 유지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重心線을 支持面 間에 있게 하는 同時에 重心線이 面의 中心點에 가까이 있게 하는 方法的 하나가 되는 까닭이다.

태권도에서는 한 손과 다리를 들때에 반대편 몸이 드는 反對便으로 굽어져, 자기가 쓰러지지 않는 原理가 바로 그것이다. (그림 ④)

### ④ 質量

여기서는 質量을 體重이라고 생각하기로 한다. 이룰때면, 가벼운 사람과 무거운 사람이 있다고 할때에, 무거운 사람이 安全性이 크고, 가벼운 사람은 安全性이 작다는 이야기이다.



<그림> ④

지금 들과 신문지가 한 곳에 놓여 있다고 할때에 어디서 갑자기 바람이 불어 왔다고 한다면, 신문지는 날라가 버리고 물은 남아 있게 된다. 이것이 곧 앞서 말한 것 같이 무거운 것은 安全性이 있어서 날라가지 않고, 新聞紙는 가벼워서 옮겨지고 말았다는 결론이 된다. 이러한 理致로, 유도나, 레슬링 같이 體重이 많으면 有利한 까닭에 公平을 期하기 위해서 體重別로 試合를 하게 되고, 비키면 같은 體級 중에서도 體重

가벼운 사람에게 勝權을 주게 되는 것이다.

태권도에서는 直接 몸과 몸을 잡고, 밀치고, 넘기고 하는 경기가 아니므로 체중이 크게 安全性과 관계를 갖지 않으나, 적정한 체중은 맞거나, 적었을 때에 쓰러지지 않게 할 수가 있을 것이다.

### ⑤ 外力에 의한 충격과 관성

사람에게 外力이 갑작스럽게 부딪쳐 올때에, 體重을 늘려서 이에 대한

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충격에 저 버리면 사람은 쓰러지거나, 밀리고 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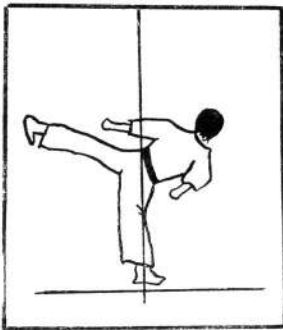
이러한 경우에는 두 가지 원리를 알아서 자기 몸을 잘 가누는 것이 重要な 일이다. 기억해 두어야 할 원리의 하나는 충격이 오는 쪽으로 몸을 숙이거나, 體重을 줄리게 하는 것이 安全性을 크게 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外力이 오는 쪽으로 발을 밀려서, 支持面을 크게 하는 것이다.

그림 ⑥은 바람이 불어 오는 쪽으로 몸을 숙히고, 그 쪽으로 발을 밀려서 支持面을 크게 한 것이고, 그림 ⑦은 태권도에서 적이 오는 쪽으로 다리를 벌리고 支持面을 적절히 잡은 기본자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세는 어디까지나, 外力을 防禦할 때의 자세로서, 공격할 때는 썩 좋은 姿勢가 안 된다.

이와 같은 理致는, 관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된다. 우리가 電車나 버스를 탈 때 急作스럽게 停車를 하면, 몸이 車가 가던 方向으로 쏠리게 된다. 이러한 境遇에 우리가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 그쪽으로 넘어지거나, 달려가게 되는데, 이것을 防止하려면, 앞서 말한대로 뒤로 힘어오는 쪽으로 몸을 숙히고 다리를 벌리는 것이 좋은 것이다.

태권도에서 이 理致를 利用할 境遇는 많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자면, 공격을 하려고 쳐들어 갈 경우, 급



<그림> ⑤



<그림> ⑥



<그림> ⑦

작이 범출 필요가 있을 때는 곧, 쳐들어 가던 反對 方向으로 몸을 숙히면서, 다리를 벌린다는 點이다. 이때에 다리가 빨리 벌려지지 않고, 몸만 숙게 되면 쓰러지기 쉬운 자세로 되고 만다. 그러므로 다리를 빨리 옮기면서 重心을 곧 낮춘다는 것이 또 重要的 일이다.

### ⑥ 마찰

마찰은 安全性을 유지하는 데에 絕對인 要素가 된다. 특히 바닥이 미끄러운(어플판파워) 곳이나, 外力에 의해서 힘을 받게 되는 境遇는 이 마찰이 크지 않으면 安全을 유지하기가 極히 困難하게 된다.

우리가 흔히 보는 陸上 選手의 「스라이프」나, 野球 選手, 「글프」選手, 축구 선수의 신바닥에 못이나, 「크리이트」(Cleft)가 박혀있고, 농구나 배구 선수들의 운동화 바닥이 고무로 되어 있는 것은 마찰을 적절하게 하자는 데서 근거를 가져왔다 하겠다.

이와 같은 마찰은 지지면이 크면 할수록 마찰이 커지므로, 外力에 의해서 힘을 받게 될 때는, 발바닥 全面을 地面에다 붙히고, 支持面을 크게 하는 것이 有利하게 安全性을 유지할 수 있다. 줄타기나 「덕비」의 「스크란」 같은 것이 우리의 경우 이러한 원리를 골간 利用한다.

태권도에서는 흔히, 원자재 자신의 몸을 알아서, 앞으로 밀고 나갈때 支持脚의 발을 全體의으로 더디고, 여기서 힘을 담뭍 얻어 박차고 나가야 한다. 만일 더딤발을 어설펁게 던고 나가다가는 미끄러져서 공격이 힘들게 되거나, 자세를 혼이저게 할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注意해야 할 점은, 발바닥을 다 밀고 힘을 쓰는 것은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利點은 있다 하겠으나, 動作이 늦어질 수 있는 可能性을 가졌으므로 必要以上の 마찰을 가지게 하는 따위는 잘 留意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競技에 있어서 어느 경우나를 莫論하고, 過·不足은 禁物이며, 安全性의 原理도 한 동작에 有利하게 하면 다른 면에서는 不利한 點을 가져오게 되는 수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면, 重心高가 높으면 움직이기는 쉬우나 安全性이 적어짐으로, 相對로 利用하기 쉬운 機會를 주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適正>이 安全性의 原理를 利用하는 데에 絕對 必要하게 한다. ♣



# (안보체육 태권도)

흔히 우리는 단군(檀君) 창업이래(創業以來) 단일 혈통의 문화민족으로 조상의 얼을 계승하여 왔음을 자랑한다. 세계유수(世界有數)의 단일민족으로서 금수강산을 지키내려 오는에는 숫한 외세(外勢)의 침략과 위협이 뒤따랐으며, 그때마다 온 겨레는 한데 뭉쳐서 용전분투 싸우고 막은것이 우리역사기록의 태반을 차지함을 볼수 있다.

고구려의 끝내 기상은 만주(滿洲)를 포함하는 광활한 영토를 지배하고, 영주(英主), 용장(勇將)의 출현으로 국력이 일익(日益)분분해 졌으며, 이때에 민족의 무에 태권이 비롯했음은 문헌과 유물로서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신라, 백제, 고려의 찬연한 문화가 오늘에 빛나는 것도 그들의 호국하는 생활에서 비롯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조 5백년의 문종무비(文宗武畢)사상으로 민족의 「스포츠투」수박(手搏), 악한(擲槳), 기사(騎射), 석전(石戰), 투호(投壺), 그네, 꿩주머니 해엄치기등이 자취를 간추었고 결국에는 왜구에 제 나라를 빼앗기는 비운의 종말을 가져온 최후의 역사를 말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약육강식(弱肉強食)에 의한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수있다.

강했던 민족에는 영광의 기록이, 약했던 민족에게는 애환의 기록이 남는 법이다. 「이스라엘」민족은 실지(失地)를 찾기 위해 천년의 기간을 유랑하는 아픔을 찾아야 했고, 이제 잃은 땅을 되찾는 일이 할아버지로부터 손자에 이르기까지 멸사봉국(滅私奉國)하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다. 때문에 몇 십배가 넘는 국토와 인구를 가진 「아람」제국들도 그들을 무력화하고 쉽게 넘보지 못하고 있음은 우리가 처한 한

국의 실정에서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할것이다.

6·25동란도 어언 22년이 지나고, 전재민(戰災民)의 상처가 겨우 아물고 전장(戰場)의 영웅들이 깨하여 가고있다. 그러나 이등안 북한은 군비(軍備)를 강화하여 한때는 전쟁재발의 위기도 있었다. 이때에 자유민을 탄압하고 자라는 젊은이들은 자각없는 퇴폐층조에 갇혀 무기력 해 지므로써 커다란 사회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더구나 급변하는 국제정세는 조석으로 그 양상을 달리하고, 대화 없는 전쟁에서 대화있는 전쟁으로 시국의 형태는 달라져가고 있으나 힘을 키워야 된다는 근본적인 준비는 항상 요구되는 것이다.

대화의 뒤에는 힘의 배경이 있어야하고, 힘이 있을수록 전쟁도발의 위험은 사라질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는 비상사태라는 긴급조치와 함께 안보체육의 하나로 태권도를 택하여 대학을 비롯한 각종 학교에 정규 교과과정으로 채택 지도하기에 이르렀다.

이미 오래전부터 태권도는 국내의 군(軍)에서 정신무장과 체력향상의 수단으로 실시되어 왔고 월남의 실전(實戰)에서 보이지 않는 병기(兵器)로서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었음은 자명할만하다. 이제 우리는 국민 모두가 시국의 중대함을 깨닫고, 다함께 환(患)을 대비하는 자세를 취할때 후심을 품었던 이웃의 당상은 차츰 소멸될것이다. 유비무환(有備無患), 태일이 갖춰질수록, 환란은 없을것이다. 국난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는 민족속원이 이루어 지기까지는 온가족, 온마을, 전국민이 멸사봉국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며 태권도가족이 되어나고, 마을과 나라가 하나의 구렁에 움직이는 꿈의 단합이 이루어질때, 단일 민족의 영원이 조용히 이루어 지리라. (권점실)

# 태권도가족

국내의 태권도 인구는 줄잡아 1백30만. 이 가운데 태권도 가족이 상당수에 달한다. 해외무대에 진출하여 빛을 남겼거나 벽지에 묻혀 말없이 후진을 키우며 공(功)을 세웠거나 여기에는 천신적인 노력이 기울어졌으며 이러한 정신태도 위에 태권가족의 공로는 한층 빛나고 있다. 저마다 활동무대와 가는 길은 다를지라도 이들이 지향하는 목표와 정신만은 하나로 이어진다. 태권일념(一念)에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태권 가족. 이들의 꿈은 바로 많은 후진을 길러 뿌리를 퍼는 것이다. 자랑스러운 태권가족의 하나, 여기에 소개하는 태권가족은 7명의 권속(眷屬)이 모두 유단자여서 더욱 이색적이다. 또한 이들 모두가 모범 지도자로 존경받고 있다. 大田에 있는 韓씨 일가를 찾아 태권일생을 엿어 본다.

大田市 大興洞에 위치한 태권도 도장 새벽 5시반 무지의 구름소리가 여명(黎明)을 뚫고 대기(大氣)를 뒤흔든다. 근육이 흥기한 사이로 밤방울이 흐르고 온몸은 열기(熱氣)에 젖는다. 힘차게 내뿜는 두팔과 두주먹, 그리고 공간을 가르며 두다리의 힘이 하나로 모아졌다간 다시 흩어져 승화(昇華)된다. 또다시 태권도 수련의 보람찬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괴로움을 참고 견디는 가운데 백절불굴(百折不屈)의 기력(氣力)과 신체의 저력(底力)을 기르는 수련의 나날은 하루도 중단될 수가 없었다.

충남 태권도의 요람이며 산신인 도장에는 3백여명의 회원들로 이른 새벽부터 깊은 밤까지 휴식을 모른다. 여기서 배출된 유단자는 무려 3천여명이나 되고 이 가운데 30여명이 해외에서 활약중이다.

이도장은 많은 태권도인을 육성, 태권도의 대중화에 공을 세운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또한 태권도가족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유명하다. 관장은 韓 敏敎씨(36). 그의 다섯 형제들이 힘을 모아 이 도장을 오늘날과 같이 키워 놓은 것이다.

大田에서 韓씨 일가(一家)하면 바로 태권가족으로 통한다. 이가족에 관한 얘기는 이미 복은 화제다. 그러나 한가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있다. 벌써 오래된 얘기지만 우리들의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복괴간첩 李德根사건의 숨은 공로자 한사람이 바로 태권가족 韓씨 일가였던 것이다. 韓 敏敎씨의 형 韓 車敎씨

는 마침 중풍공황에서 탈주 하려는 李 德根을 잡기위해 격투를 벌이기 까지 했다. 이귀로 韓 車敎씨는 「거물간첩 잡은 태권인」으로 소문이 났다.

韓 敏敎씨(41세·2단) 韓 東敎씨(40세·2단) 韓 車敎씨(39세·7단) 韓 敏敎씨(36세·6단) 韓 英敎씨(33세·5단) 韓 富敎양(22세·3단) 金 任子씨(28세·2단·韓 車敎씨의 처)이들 일가의 단수를 모두 합치면 30단에 가깝다. 6, 7단의 공인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아무튼 한 가족에 고단자가 3명이나 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들가족은 한결같이 모범 지도자, 관장인 敏敎씨를 도와 모두가 사범으로 활약, 옛 실과 화방의 기예(技藝)를 가르친다.

「태권도의 기본은 정신에 있다. 힘만의 경기도 아니며 수도만으로 끝날수도 없다. 또한 오늘의 사회가 요구하는 완전한 인간상(人間像)은 힘이 없는 지식인도 아니요, 힘만 갖춘 무인(武人)도 아니다. 무(武)를 기본으로 하는 기품있는 사회인의 배출이 절실하다.」

바로 韓관장의 말이다. 그는 이렇게 말을 잇는다. 「기예(技藝)못지않게 예의를 지키며 헛된 욕망을 버리고 이성을 잃지 않도록하며 어려움에 임하여 인내로 극복하고 전진적인 기상을 길러 밝은 사회를 이루도록 해야한다.」

韓관장은 서울문리사대를 졸업, 충남경천국사범으로 경찰태권도 보급에 힘썼으며 충남태권도 협회 전무이사물 거쳐 충청남도 본관장모도 있다. 충남본관의 지관(支館)은 모두 26개소. 그는 이밖에도 충남대학교 ROTC 태권도사범으로 4년동안 있었고 대전대학 태권공전동 8개교에서 학생들에게 태권도훈련을 실시했다. 학원과 경찰을 통해 태권도를 크게 보급, 이제는 후배들이 고단자로 자라났다. 그중에는 西獨과 「스페인」에 파견된 사범도 있다. 이것을 가르켜 청출어람(靑出於藍)이라고 하던가, 그의 지도로 유단자가 된 태권도인이 3천여명에 이르니가 기초단이라도 익힌 수련생은 그 수를 헤아릴수 없을 정도이다.

은점안의 전채식구가 사범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잇걸을 갖은 韓氏一家는 드물게 볼수있는 모범 태권도가족으로 오늘날도 그리고 언제까지 태권도의 보람으로 살아 나갈 것이다.❀

# 백제의 태권



## 百濟 태권의 역사적 배경

백제는 부여(扶餘)계의 유이민(流移民)에 의하여 서기전 18년에 지금의 한강유역에서 건국하였다. 주몽의 아들 온조(溫祚)가 남하하여 세운 백제는 진한과 마한 땅을 공략하여 국가의 기반을 굳혔고 일면 동북방향에 있는 말갈을 쳐서 세력을 더욱 확장하였다.

백제를 건국한 구성인은 유이민의 결합체였으므로 처음부터 큰 힘이 있었을 리 만무하지만, 고구려의 풍속과 문화를 이어받아 곧세고 융명하였으며, 안으로는 국력(國力)의 결속(結束)을 다지고 밖으로는 외세의 침공을 방지하는데 온갖 힘을 기울였던 것이다. 국민들은 말타기와 활쏘기를 즐겼고, 격검술(擊劍術)이 널리 성행하였다. 특히 고구려에서 침략 때동을 본 태권은 백제에 이르러 이웃 신라와 함께 태권의 개화기를 맞게 되고 부락마다 태권에 의한 우열을 가름하는 민속놀이로 유행하였다.

悲嘆의 最後를 맞은 百濟  
그들의 文化는 모두 烽火로 灰가 되었으나  
香氣 높은 民俗이 오늘에 남아  
슬기로운 草土의 業을 보드다.

이 석 호

이러한 승무(崇武)의 정신이 강한 백제는 영주(英主) 근초고왕(近肖古王) [서기 346, 347] 때에는, 남으로 호남전역과 북으로 고구려의 평양을 공략하여 고구려의 고구려왕(故國原王)을 패사(敗死)케 하는등, 백제의 무용과 기개는 삼국을 누를 만 하였다.

일찍이 신라에서는 화랑도에 의한 국력 배양에 총력을 기울이자, 백제는 농경민을 주축으로 하는 활보방위 체제를 갖추고 유사시에는 농민이 농군(農軍)으로 출전하여 보국(報國)하였다. 오늘날 농사짓는 사람을 농군이라고 일컫는 것도 「농사꾼」이나 「농부」에서 유래된 「농군」이 아니며, 백제의 농군(農軍)에서 유래함은 꼭 재미있는 역사의 연구라 할것이다.

또한 이들 농군들이 심신단련의 방법과 국력증강을 목적으로 도수공권(徒手空拳)의 태권을 수련했음이 오늘날 전해오는 해동문기(海東門記)에 수벽타(手鐃打)라고 소개되어 있고, 전라남·북도에 실려내린까지 전해오던 민속「달맞이 씨 싸움」에서 역력히 입증되고 있음은 다름한 일이라 할것이다.



## 百濟 文化와 태권

백제는 창건후 678년의 역사를 남기는 동안, 신라와 고구려를 능가하는 찬연한 文化를 누렸으나, 삼국 가운데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았으므로 오늘날 그 유물과 유적을 찾아 볼수없게 된것은 실로 마음아름을 금할것 없다.

하기사, 西洋의 문화는 물로서 이루었고, 東洋은 목조(木造)에 의한 것이기에 백제보다 더욱 비참한 최후를 맞은 서양 제국(諸國)들의 유적이 오늘날까지 견뎌내려오고 있으나, 中國도 韓國도 아방궁이나 만월대를 주춧돌만 남겼을뿐 찬란한 옛모습은 찾을것 없다. 지금도 「이태리」를 찾는 관광객은 千年來의 문화를 한눈에 볼수있으나 한국의 경우는 병화를 피할수 있던 십삼산사람이 그때 유물의 고과인것은 슬픈일이 아닐수 없다. 더더욱 그것조차 남기지 못한 百濟의 모습은 초라하기만하다. 다만 사기(史記)에서 백제의 모습을 볼수 있을뿐...

× ×

백제는 일찍부터 낙랑문화의 영향을 받아 한학이 크게 발달하였고 박사고흥(博士高興)은 서기(書記)를 편찬하였으며, 불교를 문진에서 받아들이고, 양나라에서 도시박사(毛詩博士)와 연방경소의(涅槃經疏義)를 청구하는등 백제는 학술면에서도 뛰어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뿐만아니라 강례박사(講禮博士)로서 육후(陸詡)가 와서 하늘과 땅과 종교에 제사지내는 절차를 가르쳤다. 일반 백성은 말타기와 활쏘기를 즐겼으며, 농군(農軍)은 수백타(手擗打)에 열심 이었지만 경사(經史)를 많이 읽어서 문장에 뛰어난자도 많았으니, 게로왕 때에 북위로 보낸 국서(國書)는 명문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작년에 전 세계 고고학계를 놀라게 한바있는 무영왕릉(武寧王陵)이 보여주는 찬연한 문화의 모습은 신라와 고구려에서도 볼수 없었던 놀라운 것이었다.

日本에서는 금년에 있었던 세계의 삼대발굴로서 ① 中國의 漢代墓 ② 韓國의 武寧王陵 ③ 日本의 高松塚을 꼽고 있는데, 과연 「아스카」촌의 고분벽화가 武寧王陵과 비교가 되는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러우나, 「아스카」의 문화기반을 만들어 준것이 百濟였다는 역사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미루어 백제의 문화도는 설명되고도 남음이 있다.

특히 석굴암과 다보탑의 석공예술로 세계에 자랑스러운 신라에서, 백제의 공방(工匠) 아비지(阿非知)를 모셔다 국력을 기우려 장엄무비의 거찰 황룡사를 건축한것은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이며, 일본나라(奈良)의 법릉사(法隆寺) 판유보살 목조입상(立像)

은 고구려 담경의 법릉사(法隆寺) 금당벽화와 함께 日本國寶로 전해오고, 일본書記(니홍쇼기)에 백제의 악공과 악사의 도일(渡日)에 대한 설명이 많은 것은 국내외의 문화를 주도했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 民俗에 찬연한 百濟의 태권!

특정지방의 민속을 연구하므로써 거슬러 올라가 그 조상의 발자취를 찾는것은 가장 합리적인 역사고증의 방법이다.

따라서 百濟의 연구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충청남·북도에서 비롯한다.

백제의 민속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달 밝은 한가위에 벌어지는 女子들의 놀음 강강수월래를 꼽을수가 있겠다.

무척이 좋은 女子가 선창하면 후속으로 합창이 벌어지고, 앉거나 서서하는 놀음이 아니고 손에손을 잡고 둥근 원을 그리며 빙빙리라도 좋을 무한대의 원을 뛰는 것은 아낙의 놀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스포츠로서 대단한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더욱 이채로운 것은 강강수월래(強光水越來 또는 江江水越來)라는 글에 뜻이 강강의 강은 둥글다는 호남의 방언에서 유래하고, 술래는 순라(巡羅)에서 변형된 것으로서 경계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일종의 전략(戰略)놀이였다. 사실에는 임진왜란때에 이순신장군이 적군에게 군세(軍勢)의 강함을 보이기 위해 「대몬스트레이언」의 역할로 사용하였다고 전해오지만, 실은 백제 농군(農軍)의 아낙들이 생각하면 향토방위 방법의 하나였음이 틀림없다.

男性들도 이에 못지않는 놀이로서 마을과 마을의 절고 힘센 장정들이 무기없는 徒手空拳의 수백타싸움을 벌리므로써 강한자는 마을의 영웅이되고, 유사시에는 군졸의 장이 되었다. 이러한 내용의 민속은 전라남도 순천지방에서 즐기던 정월보름에 벌어지는 「달맞이질싸움」에서 역력히 찾아 볼수가 있고, 해동문기에서 수백타를 소상히 기록하므로써 역사의 고증은 더욱 뚜렷해진다.

수백타(手擗打)

劍術先從手術妙 威將軍已教兵才

三節胸如差一節 拳鋒一瞥落頭來

옛 송시에 수술(手術)이 있는데 마치 칼 쓰는 것과 같다.

무손이 왔다갔다세 할때세 절구(節句)에 한절구만 법이 어긋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주먹이 머리에 떨어진다.





전전희(鉞戰) : 南原等地를 중심으로한 智異山 周邊에서 盛行 되는 民俗競技.

— 韓國史 —

이상과 같은 古典의 기록(記錄)과 함께 오늘날까지 전해오는 백제민속은 다음과 같다.

에나 지급이나 따스한 겨울이 계속되는 남쪽지방에는 그곳의 특산물로 대나무가 자라고 있어, 달이 뜨는 명절에 따른 술잎과 장작을 밑에 놓고, 그위에 대나무 집울 지어 달이 떠 오름과 동시에 불을 당겨, 남너노소가 그 불주위를 돌면서 새해의 풍작을 기원하고 마음에 품은 소원을 기원하였다. 이때, 술잎이 다서 장작에 불이 붙고 대나무로 지은 집에서는 요란한 굉음을 내며 밤새도록 광 땅, 하는 대나무통터지는 소리가 계속된다. 이때를 기다려 온 마을은 환성이 오르고 축제는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굉음 속에 축제는 서양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전해오고 있으며, 현대에도 경축일에는 오히려 서양의 식(式)에 의한 불꽃놀이가 성행하고 있으나, 달 밝은 밤을 턱하여 우리 조상이 하던 그 남민의 족족「해스티벌」에는 어림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기실 우리가 주목할 일은 이 족족놀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깃곳은 젊은이들의 소행에서 근원이 된 쾌싸움(鉞戰)에 있다. 그 전전희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족족을 즐기기 위하여 마을마다 「달맞이 집」을 몇일씩 걸려서 완성을 하고 달이 뜨는 순간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대나무밭이 있는 집은 부작집이므로 이 행사 때에는 관례적으로 대를 베어다 마을에 젊은이들에게 주었다 한다.) 마을은 축제의 분위기에 흥정 들떠있을 때, 다른마을의 젊은 패거리가 몰려 숨어와서 달도

뜨기전에 남의 마을 달맞이 집에 불을 붙여 버리므로 버림씩 역사하여 탄뜰고 달을 기다리던 마을 사람들을 낭패로 만드는 재미(?)를 본다. 고로, 그것을 복수하려는 꾀를 내고 힘센 장정을 골라 대비하였다가 그 다음해 정월 보름에 복수의 역습을 시도하게된다. 그러나 이러한 장난이 거듭되는 동안 마을마다 다른 풍류의 젊은 패거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밤을 새워 달맞이 집을 지키게 되었고 예외없이 보름날에는 불을 당기려는 놈과 그것을 막는 놈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던 것이다.

평소에 잘 수련된 수백타(태견)로 서로 겨루는 실전(實戰)의 싸움이 벌어지니, 싸움도 싸움이려니와 이를 성원하는 마을의 남너노소 앞에서 결투는 장관이었다. 물론 무기나 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불문불로 되어 있어 맨손과 맨발에 의한 태견이 사용되었다. 태견에 맞은 자는 머리가 상하고 팔다리가 어긋나며 눈알이 볼거져 나오는 등 부상자가 많았으나, 마을을 위한 싸움에 부상은 자랑스러운 것이었고, 부상을 입지 않은 자는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마련이었다.

마치 美式「쫓붙」의 부상자가 영웅이듯……

이렇듯 가장 한국적인 소박 따스한 낭만과 시정이 넘치는 민속에서 무(武)는 예술(藝術)에 극의(極致)를 이루는 높은 기술과 기법(技法)을 만들어 내고, 태견으로 쌓은 보국(報國)의 열은 갖은 열강으로부터 침공에서 6백여년간 백제를 지키는데 공헌한 바 있다.

### 태견장군 莫古解

백제 명장중은 수백타[태견]의 명수들로서 농군(農軍)의 수백타[태견]와 함께 백제를 지키는데 공헌한 바 있다.

그중에서도 뛰어난 장군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명장 막고해(莫古解)장군이다.

막고해는 수술(手術)이 능할 뿐 아니라 기마(騎馬)에 신수(善手)였다.

근조고왕이 총명한 군력을 이끌고 고구려를 공략할 때, 농민은 농구를 놓고 칼을 잡았고, 전전희(鉞戰)와 수백타로 익힌 몸은 전장(戰場)으로 달리는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충천했다.

가는곳마다 성(城)은 무너졌고 질풍노도와 같은 기세의 백제군이 가는 곳은 사위불 거름도 없이 문을 열어 주는 곳도 있었다. 그러나 고구려의 평양성을 천패는 고국원왕을 보라하는 정예군사에 의하여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고, 일진일퇴의 싸움은 혼전에 혼전을 거듭하였다.

백제는 근조고왕의 추상같은 명령으로 최후의 공격

을 툄붑게 되고, 왕자 구수(仇首)가 앞장서 평양성으로 돌진하여 들어갔다.

말끝에서 일어나는 군마(軍馬)의 황진은 구름같이 일어나고 평양성으로 왕자구수(王子仇首)가 진입하자, 조용하던 고구려의 성안에서 우뢰와 같은 함성을 지르고 달려오는 백제왕자의 선봉을 제지한다.

싸움은 피아를 분별할수 없는 피의 안개로 뒤덮여 어느 편에게 승리를 가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멀리서 싸움을 지켜보던 백제의 근초고왕 얼굴에는 수심이 어리고 왕자 구수의 모습을 찾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완연히 떠올랐다.

백제로 하여금 삼국의 으뜸으로 만든 영주(英主)에게도 자식을 아끼는 애뜻한 인간의 정은 있었던 것이다.

싸움은 시간이 흐를수록 치열해지고 쌓이는 양군의 시체는 성내의 흙을 덮을만 하였다.

고구려는 고국원왕이 선두로 나가 병졸을 독전하며 백제의 사기는 기울고 왕자 구수의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이 되었다.

근초고왕은 완연한 실의의 눈빛으로 열의 장졸들을 둘러보았다. 여러장군을 바라보던 왕의 용안에는 미소조차 보이는듯 하더니 장군 막고해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막고해로 하여금 혈해의 전장으로 가도록 왕의 백마를 내주었다.

막고해는 왕을 보좌하는 마지막 보루였으나 싸움의

상황이 다급함애야 왕의 신변보다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필사의 힘이 필요했던 것이다.

막고해는 두주먹은 바위같고 몸은 범같이 날렵하므로서 백제농군의 우상이었고, 이번 싸움에는 왕을 보좌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왕의 주위를 철벽같이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막고해는 왕의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왕자 仇首가 위태로운 성으로 질풍같이 달려갔다.

창과 화살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으나 막고해의 칼앞에는 힘없이 두동강이 났다. 탁류물 헤쳐가는 황소같이 성문을 진입한 막고해 앞에는 고구려의 장졸(將卒)이 길을 막고 나섰다. 막고해는 왕자 구수를 구해내는 것이 목적인 눈앞에 보이는 적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렇다고 가로막힌 적을 뛰어 넘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덤비는 적을 하나씩 들썩 칼을 휘둘러 무찌르고 아비 규환의 성안으로 접근해 갔다.

멀리 고구려 고국원왕의 당당한 모습과 그들에 휩쓸려 고전하는 구수왕자의 모습도 보인다.

막고해는 달려드는 적을 꺾는 그 숨씨는 칼을 들었을 때나 맨손이 된 후나 다름바 없었다. 이것을 본 백제군은 가일층 힘을 얻어 고구려의 병졸을 모조리 무찔러버렸다.

이 싸움에서 고구려 고국원왕은 목이 찢리었고 왕자 구수는 부왕(父王)앞에 살아올 수가 있었던 것이다♣

# 태권검 雉심에



지난 6월 제1회 「스포츠주간」이 개최된 가운데 태권검 부문은 최영희 씨가 우승을 차지했다.

# 榮光있으라!



투로 엉들어있는 불화의 섬이었다.

젊은이들은 할일없이 갯벌에서 서성거리고, 손바닥만한 열전도 황량하기만한 곳, 바람직한 것은 눈물밖고 찾아 볼래야 찾을 수가 없는 곳이었다.

그러나 태권도 4단인 權교사는 태권도의 힘과 태권도 정신으로 단결과 협동을 이루리라고 굳게 결심하였다.

먼저 할일없이 놀고 지내는 마을 청년들을 모아놓고 태권도를 가르치는 일부터 착수 하였다.

처음에는 걸시와 반목이 생활화되고 육지에 대한 섬사람 특유의 배타적인 생각때문에 주저하던 젊은이들도 權교사의 태권도시범의 위력과 약한자를 돕는 태권도정신 앞에 공감하고 따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드달리는 가난과 변화없는 생활속에 무표정하기만하고 웃을 줄도 모르는 어린이들에게도 태권도를 가르치고 들름히 농구와 배구도 가르쳤다.

젊은이들은 놀랄만큼 과피력을 가진 태권도물 몸예 익힌 權교사가 비무는 한없는 온정과 신랄한 품평을 본받고져 형과같이 따랐던 것이다.

權교사는 20여명의 젊은이들과 함께 선착장이 없어 때가 못닿은 갯벌에 돌을 날라 길이 15m 넓이 2m의 선착장을 6개월만에 완성시키는데 성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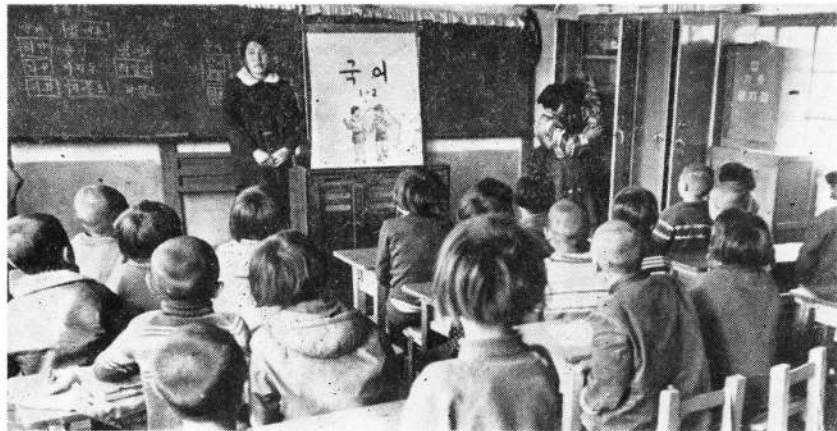
그 외에도 이반기구와 구급약을 사다가 머리를 적어 주고, 다치면 응급치료를 해주는등, 교사로서의 책임보다도 섬마을 지도자로서 특별한 사명감과 깊은 사랑 그리고 태권도인의 인내로 온갖 시련을 이겨 나갔던 것이다.

현신하는 사람들에게 밤과 낮이 없었다. 밤에는 어린이들이 입을 태권도복을 서툰 바느질로나마 정성껏 지어주고 박봉을 털어, 밀가루부대를 현값에 사다가 섬삼육수 정성들여 한사람씩 입혀 나갔다.

그는 도복을 받고 기뻐하는 어린이의 표정을 보는것으로 충분한 보람을 느꼈다. 외출복이라고는 언중 등교시에 입고 오는 단벌뿐. 그래서 이들에게 도복은 더욱 필요불가결의 것이었으리라.

일하는 젊은이와 공부하는 어린이들이 어울려 수련하는 태권도의 구경은 섬 전체를 휘돌고, 걸시하고 반목하던 어른들은 환한 웃음으로 손잡고 일하므로서 다른섬 사람들은 사치심을 태권도의 섬이라고 부르고 부러워하며 부부교사의 현신과 정성에 감복하여 이들에 대한 칭찬이 그칠날이 없었다.

이제 이들 부부교사는 「하면된다」「불가능은 없다」는 굳은 신념을 갖게 되었고 그 보람과 즐거움으로 하늘을 날듯 같은 힘이 솟아올랐다



그동안 집에서 부린 자고의 지식이 열매를 맺어 그 수확으로 육지의 어린이와 겨루는 농구대회에 나가기로 결심하고 6학년생 5명을 모아, 밤과 낮이, 없는 트레이닝을 시작하였다.

넙관리에 철사를 걸어 놓고 「웃」을 익히고, 깃털에서는 논으로 자갈밭에서 물속으로 뛰는 동안 어린이들은 구리빛으로 변하였다. 이들이 육지로 나왔을때 육지의 어린이들은 「섬 개구리」 사치섬의 어린이를 알아보았고 신기하게 생각하기도 하였다.

이들이 기술면에서 도시 어린이에 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태권도 정신을 바탕으로한 백결불굴의 투지와 믿음의 신념으로 권고사 자신도 미처 기대하지 못

한 신기백출의 웃을 성공시켜 연전연승의 강자로 전남의 모든 대회를, 석권하였을때 「섬 개구리」는 정말 자랑스러웠다.

우승기와 우승컵을 섬사람들에게 보여주는일을 생각만해도 필듯이 기쁘기만 하였다.

더구나 서울에서 벌어진 「전국스포츠포스소년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꿈같은 추억이 될 것이다.

이제 이들은 남해고도 사치섬으로 돌아가 다시 인내와 협동을 실현하는 섬의 일꾼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부디 기적의 섬 사치섬에 태권도의 정신이 뿌리를 박고, 그 힘으로 새로운 기적과 영광이 이루어져기를 기원한다. ❀ (편 집 실)



## 인 격 의 가 치

## 홍 정 표

협회가 발족 한지도 어언 10년을 넘었으며 그동안 눈부신 노력으로 발전도 많았습니다.

태권도 인기도 놀라울 정도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태권도인으로서 갖추어 져야 할 인격면에 있어서 다소 초출한 것 같은 감이 있습니다. 옛날의 선각자들은 기술면 보다는 정신면 즉 인간을 올바르게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따라서 지켜야 할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것은 아랑곳 없이 그저 손발 휘두르는 거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점은 우리 스스로가 고쳐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지어는 경기에 임하는 태도나 또는 항의하는 방법이 폭언 또는 난동으로 변하는등 소란을 야기시키는 문제가 있으니 이러한 문제는 그 옛날에는 상상조차도 못할 일입니다. 앞으로 인격에 대하여 강조하는 의미에서 참고가 될까 하여 그 가치에 관해서 몇자 적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태권도는 다른 운동과 달라서 수양을 겸한 무도이며 전전한 정신을 가진 올바른 사람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끊임없이 자기 수양에 힘써서 사회의 이니셔나 도범인 인간이 되어 모든 사람들로 부터 사랑을 받을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나가시다.

그러하여 세마음운동에 명랑하고 건실한 풍토를 이룩하는데 앞장을 씁시다.

사람이 자기를 수양해 나가야는데 있어서 인격의 관념을 분명하게 하는것이 극히 중요한 일입니다.

인격이란 인간으로서의 자격이라는 것이고 심리학상으로 말할때 이것은 지식 감정 의지가 통일되어있는 자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게 해석하여도 이해하기가 어려우니 우선 이것을 우리들 인류와 다른 동식물 또는 여러 무생물들로 구분하여 볼때에 인간의 자격이라고 말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인간입니다. 즉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자격이라는것에 대한 자각입니다. 이 자각심이 있는이상 인간으로서의 수칙스럽지 않은 동류 품격을 보존하여 나가져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인격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있지 않으면 수양따위는 모두 무의미한 것이 되는것입니다. 인격이라 함은 우리들 인류에 있어서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이 넓은 세계에서는 이에 비할바 있는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세상에서 무엇이 제일 고상하겠습니까, 금전이겠습니까 때물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것이 인격에 비하여 보면 가치가 일등한 것입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 모든 물품은 그것과 이것으로 서로 비교해서 비로소 가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이다 저것은 얼마이다. 이와같이 자격을 붙인다는 것은 비교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은 은보다 비싸다는것은 은과 대조하여 금이 어느점에 있어서 다소 우수하다는 데서 값이 비싼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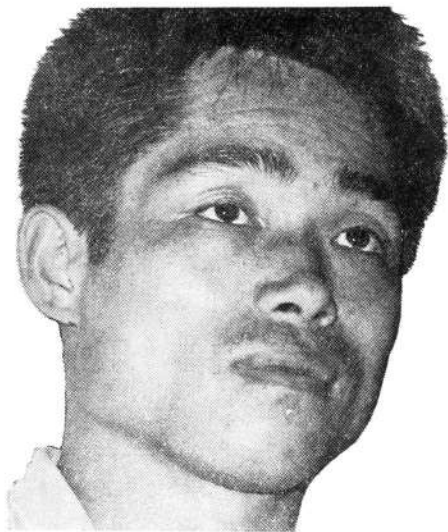
어떠한 것이라도 이와같이 그것과 이것을 비교하여 값을 정하게 마련 입니다. 그것은 상대적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렇게 상대적 가치라는 것이 생기느냐 그것은 모든 물품은 우리들 인류의 필요에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들 인류의 필요에 따라 그가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물품의 가치는 누구를 위해서 생기느냐 하면 우리들 인류를 위하여 생겨 집니다. 물품은 그 물품 자신에게는 아무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품은 우리들 인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 가치를 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인격이라고 말하였지만 인격은 우리들 인류의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라는 것은 그러한 물품의 가치 이상의 것입니다. 이것은 금전으로서 살수가 있는것이 아닙니다. 백만원이고 천만원이나 어떠한 돈으로도 고상한 인격을 살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릴코 그사람 저마다 행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며 그것은 모든 물품 이상의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인격의 가치라는 것은 상대적인 가치라 아니고 절대적 가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세상에 있어서 인격보다 고상한것은 없습니다. 인격과 같이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들 인류의 가장 귀중한 것으로서 인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인격의 가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격의 가치는 인간으로서 품위, 품격이라고 말할수 있을것입니다. ♣

# 意志는 불꽃처럼

나의수련기



주류를 이긴  
노물의 歷程。

金慶燮

약 한달전 英國의 한 경매장에서 「프랑스」화가 「로트랙」의 「버릴것이나 두친구」라는 그림 한점이, 경매가모는 사상최고 가격인 1억 5천만원에 팔렸다.

「로트랙」!

그는 1834년 「프랑스」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 14살때 두다리가 부러져 불구가 되었고, 19세기를 대표하는 「프랑스」의 화성(畫聖)으로 출세하기까지 그의 생애는 범인(凡人)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경(苦境)의 연속이었다. 비단 「로트랙」만이 아니고, 악성(樂聖) 「베토벤」과 美國의 여류문필가 「헬렌·켈러」여사는 불구를 이기고 인류문화에 공헌한 기적의 위인이었으며, 미국 「프로」 야구팀 「시카고·화이트삭스」에서 속구로 명성을 떨치던 「몬티·스트랫슨」 투수는 엄중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자르고 「마운드」를 내려서야 했던 불운을 굳센 의지와 노력으로 극복하여 오른발 없이 의족으로 운전, 「마운드」를 지키면서 「화이트삭스」팀의 연전연승을 이끈 기적의 「스포츠스」인이다.

이렇게 육신의 불행에서 오는 처절한 아픔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는 정상인과 불구자를 가릴것 없이 삶의 환희와 감동을 일으키고 용기와 희망을 불어 넣어 줌으로써 성경의 복음서에 비할바 없는 삶의 위대한 가치를 보여 주는 것이다.

여기 소개되는 김 경섭씨의 수련기는 「로트랙」이나 「몬티·스트랫슨」에 비견가는 인내와 노력으로 쌓은 피와 눈물의 기록이며, 불구자도 훌륭한 체육인이 될수 있다는 실증(實證)을 보여준 기록이다.

이같은 그의 고난의 역경(歷程)이 세상에 알려짐을 가슴아파하는 부모의 만류를 무릅쓰고 본지에 지체하게 된 것임을 알려드리면서 김 경섭씨에 집중한 사위를 표하는 바이다.

(편집실)

## 어느날 갑자기 몸의 변화—

나는 얽한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나, 부모님의 귀염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세살이 되던해 저에게는 영원히 씻어 질수없는 불행이 닥쳐 왔습니다.

어느 여름날 반공 지하실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별일 아닌듯 생각하고 무심히 넘기고 말았습니다.

겉잡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오늘날의 내 인생에 관도를 바꾸어 놓은 놀라운 사건이 될줄을 그 누구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어느날 잠에서 깨어난 나의 몸군형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몸이 뼈다귀처럼 기울며 걸음을 걸을 때 장애를 가져 왔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갑작스런 내 몸의 변화에 놀라셨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병원이나 한약방을 찾아다니며 갖은 치료로 려보았으나 정확한 병의 원인을 몰라 신묘한 효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6.25가 일어났습니다. 그나마 치료 하던것을 어쩔수 없이 연기를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후전이 되어 학교에 입학을 했으나 전쟁통에 완전히 불구가 된 나는 책가방을 들고 다닐수가 없어서 동생에게 가방을 물리고 부축을 받으며 학교에 등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신체의 장애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해 갔으며 부모님의 단력은 황상 겸은 그림자가 쫓아 다닌 것이 아직도 생생하게 머리에 떠오릅니다.

## 생(生)과 사(死)를 건 척추수술

생각다 못한 부모님은 친척들의 주선으로 S레락병원에서 나의 생과 사를 건 척추수술을 의뢰했습니다. 외과선생님들의 최선의 노력끝에 척추 수술에 성공하여 3개월 만에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는 모든 세상이 켜졌 같았고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장과 발육이 정상화 되지 않아 동배 친구들과 학생들 간에 놀림을 받았으며 억울한 일도 한두번 당한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나에게 큰 교훈이 되었을 뿐 아니라 오늘날 내자신을 이렇게 만들었고 남달리 투지와 의지가 강하게 된것이 그때 부터 싹트게 되었던것 같았습니다.

그後 상급학교에 입학 하게 되자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았던 신체적 조건에 대하여 심적고동이 점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가슴속에 맺힌 서러운 슬픔은 지울래야 지울수 없었고 나만 돼 이

런 불구자가 되어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가야만 하는가! 남들처럼 명랑하게 자랄수 없는가 하는 생각이 머리에 착착거 되었습니다. 남들에게 놀림을 받을때는 한쪽 구석에서 슬피 울기도 했으며 그 고통에 친구들간에 다름이 갖었습니다.

나는 어느한곳에 정신을 집중시키고 나만의 세계를 가지고 싶었으며 내가 결코 남보다 뒤처져 앓는다는 화신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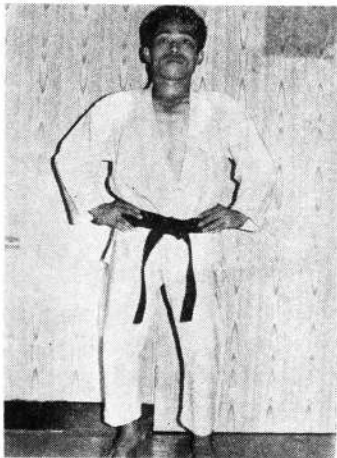
## 놀림받고 울면서 운동을 결심

머리를 두고 강리를 하던중 언뜻 운동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제 뇌리를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한쪽 마음 구석에서는 나같은 불구가 어떻게 한진한 사람들처럼 운동을 할수있을까? 한쪽 마음에서는 남들이 멀리하고 비웃고 하는것을 내운명으로 여기고 나의 운명에 순종을 해야하는가, 하는 두가지의 마음이 서로 격돌하며 싸운 결과 자신의 운명에 대하여 개척해 나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이러한 나의 생각에 동의할 표해했고 어머니를 위시하여 모든 형제들도 찬성 하셨습니다.

마음 한치의 주춤도 없이 체육관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체육관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체육관 문전에 들어섰을 때는 두렵기도 하고 겁이 앞섰지만은 사나이로 태어나 한번 마음 먹은 일에 대하여 망설인다는 것은 내자신이 용납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이병로 사범님을 찾아 뵈었고 나같은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아무장애가 없느냐고 여



태권도 공인 4단의 김경섭씨



주위보니 사범님께서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띄우시며 열심히 수련을 한다면 이까짓 신체적 약조건은 아무 지장 없이 타게 해 나갈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운동을 할수있다는 말씀에 무엇 보다도 우선 기뻐했습니다. 남들과 같이 운동을 할수있다는 것이 나의 어린가슴속에 있는 암흑과 검은 구름을 말끔이 씻겨주고 부른 희망과 생(生)의 유망이 머리속에 그리고 가슴속에 가득 차 왔습니다. 즉시 입관 수속을 마치고 도복을 가지고 도장안을 들어서자 가슴이 철렁 했습니다. 모든 수련자들의 위압감에 위축되었고 모두가 나의 초라한 모습만 주시 하는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짐으로 돌아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한 유단자가 「야! 너 오늘 처음 입관했니 이리로 와서 웃잖아 입어!」 이 한마디에 나의 마음과 정신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얼떨결에 웃을 낱아 입고 지도를 받았지만 처음날은 무엇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자세로 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부터 나의 한물 잡고 피나는 노력은 시작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면 곧장 체육관으로 체육관에서는 하나라도 농철새라 정신을 가다듬고 오직 수련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어느 유단자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아마 청피를 두르기전에 이 도장을 그만두게 될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생활을 그 유단자가 무너뜨리는것 같았습니다. 속에서 울분이 치밀어 무엇이라고 말할 하고 싶었지만 한편 마음속에서는 이런 말을 거울삼아 더욱더 열심히 수련을 하면 될것이 아니냐, 왜 남의 말에 신경을 쓰느냐, 네가 같걸은 너만이 알고 네 자신 스스로가 개혁 하는것이 아니냐, 너도 저 유단자 같은 위치에 놓일때 까지는 참고 견디어야 한다. 하는 생각으로 걸음로는 "글쎄요"라고 태연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후로는 더욱더 수련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학교 공부를 마치고 나면 한밤중 2시까지 그날그날 배운것을 다시 연습하고 반복에 반복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수련이라는 것이 그리 쉬운것이 아니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단련 시킨다는 그 자체부터 힘이 겹쳐도 버리고 어려워했습니다. 학업이 끝나면 도장안에서 불결티로 깨끗이 청소를 해야만 했으며 찌는듯한 무더운 여름철에는 밤이 도복을 발에 꿰고서 털이 되어 도복의 땀을 짜내가며 수련을 해야만 했습니다.

### 육신은 쓸어져도 의지만은

태연하다 맞아서 심한통증이 올때 울기도 많이 울었으며 「다운」(K.O)도 여러번 당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손가락이 빠고 다리를 다쳐 한의원의 문을 「노이즈」해야 했고 관에 타박상을 입어 고생을 할때 나의 고통에 침식자들은 안타까워서 이별줄을 물라했습니다.



1971. 11. 현희

쥐구멍에도 별들발 있네

어머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운동을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난 이 운동 만큼은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밀고 나가보겠다는 굳은 신념이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장 무더운 여름에 1주일 계속되는 모서수련이나 가장 추울때 1주간 계속되는 모한수련이 힘들거워 투병하다시피 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엄동설한에는 얼음장같은 마루바닥에서 편발로 입술을 깨물며 몸을 단련시키고 수련도중 언발이 녹아 잔지렁기도 한 것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괴로움을 선배님들에게 말씀드릴때마다 막대한 마음으로 감싸주시고 “하면된다”는 격려의 말씀도 계속 들려 주셨습니다. 사범님과 여러 선배님들을 찾아다니며 수련의 길을 묻고 개척해야 했습니다.

어느날몽 이던지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 지지 않듯이 꾸준하고 끈기있는 불굴의 의지를 요하는 것이었습니다. 남보다 힘이 약한 나는 힘을 기르는 여러가지 기구를 가지고 힘을 키워나가야만 했고 실장이 남달리 적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팔라야 했고기에 아침에는 남보다 일찍 일어나 트레닝을 하였고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면 고요한 밤의 공기를 케뜨리며 「트레닝」에만 열중했습니다. 만드시 어떤일을 하게되면 그것은 응분의 보람이 있듯이 어떤 알지못하는 그 무엇이 마음한 구석에 싹트고 뚜뚝한 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집한 노력끝에 첫 승단신사에 응심하게 되었을 때 태권도를 하므로서 얼마나 내 생활에 보람된 즐거움을 가지셨는가를 생각하니 감개무량 했습니다. 얼마있으면 체자신이 검은 머를 두루지게 되다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남다른 신체적 약조전에서 이루어진 것을 생각할때 모든것이 꿈속을 헤멘것 같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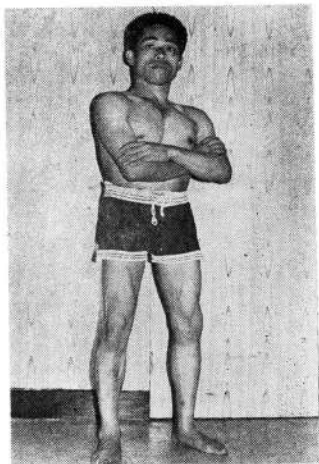
## 태권도는 생의 보람을

그후로는 내생활이 변화일모에 서져 있었으며 나의 신조는 “노력하면 된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내 향로가 점점 먼동이 터서 밝아오는 것 같았고 탄탄한 대로(大路) 위를 달리고 있는 그 이상의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마음속으로는 후배들의 본보기가 되기 위하여 좀더 연구를 하고 고된 수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다시한번 굳게 다짐을 하고 체적질을 했습니다. 검은머를 두르면 정신적으로나 기술적인 면에서 그만한 실력을 보유하고 있어야겠다는 뜻에서였기 때문입니다.

남몰지 않게 열심히 수련을 했지만 선배님들의 숙



달된 교묘한 기술을 몸에 익히려 했으나 뜻대로 될만하게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하거나 절망할 하지 않았습니다.

수련 시간마다 눈여겨 보아 주었다가 집에서 혼자수련을 할때에는 몸에 익숙해 질때까지 연습을 했습니다. 지쳐서 쓰러지면 다음날 도, 그 다음날도 계속했고 숙달이 될때까지 수련을 했습니다.

어느때 내 머리에는 검은 머를 두르게 되었고 날이 가고 날이 감에 따라 꾸준한 노력끝에 태권도의 기술을 어느정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생의 보람과 희망을 붙여 넣어준 인간 제생(?)의 기간은 기쁨과 환희를 갖게 하면서 10년이란 긴 세월이 눈깜박할 사이에 모든 아쉬움들을 남김채 흘러갔습니다.

나는 뼈아픈 지난일들을 바탕으로 부은 어려운 역경이 부딪쳐 올지라도 견대로 굴하지 않을것이며 태권도의 정신을 가지고 좀더 나의 장래를 개척해 나갈 것이며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태권도의 정신을 적용시켜 올바르게 처리해 나갈것입니다.

태권도는 나의 생애의 전부며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굳은 마음으로 계속 수련을 하면서 연구를 하여 좀더 과학적이며 보다좋은 기술을 고안하여 태권도를 배우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외국 여러나라 사람들에게까지 지도를 하여 국위를 선양하며 우리민족의 긍지를 보여주고, 어떠한 불리한 신체적 조건에 있어도 이 태권도를 수련 하는데 “불가능”이란 것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산 체험을 알리고 싶은것이 나의 뜻이기도 합니다♣

# 女性과跆拳道

金鳴鐘

.....◎ 날로 增加하는 跆拳道의 人口는 勿論 130萬名에 達하고 있으며, 그 .....  
 .....◎ 中에는 1,000여명의 女子選手가 포함되어 있음을 본다. ....  
 .....◎ 各種의 大會가 벌어 질 때마다 새로운 選手가 登場하고, 男子를 능 .....  
 .....◎ 가하는 大膽하고 強靱한 競技를 보여 줄때 태권도는 男子 專用物의 關 .....  
 .....◎ 技藝가 아니고 男女 共히 즐기는 스포츠로서 면모가 갖추어진 것 .....  
 .....◎ 이라는 確信을 가져보는 터이다. ....  
 .....◎ 돌이켜 지난날들에 女子 選手들이 보여준 競技의 內容에서, 그것이 .....  
 .....◎ 果然 「스포츠츠」(태권도) 本然의 體力과 知慧와 技術을 겸하여 움직이 .....  
 .....◎ 는 運動 이었는가 하는 물음에 滿足한 答辯을 할 수 있는지는 저이기 .....  
 .....◎ 의심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現今의 女性들의 「게임」에 있어서 그런 .....  
 .....◎ 類의 의문이 한낱 杞憂로 돌아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다. ....

지난 5월에 있었던 第3回 女子部 競技에서 보여준  
 選手들의 技術 향상과 투지력은 前例를 찾아 볼수없는  
 놀라운 것이었다.

B組의 勝者 김 인수는 이미 準決勝戰에서 발목이脫  
 골하는 不運을 맞았고 決勝에 進出하였을 때는 걸음걸  
 이조차도 할수없는 重傷의 상태였기에 節制과 코오치  
 의 挽留가 있었으나 決勝에 임하였던 것이다.

腫脹부은 상처는 肉眼으로도 쉽게 判別할수 있었고  
 폐임을 하는 途中에 신음하는 김 인수 選手의 모습을  
 관객의 마음을 아프게 해주었다.

男子도 아닌 女子의 몸으로, 더욱기 부상을 공격의



목표로 갖춰진 경 경애선수의 끈질긴 공격을 막아 내는  
 일보다 自身の 아픔을 이겨내야 했던 고충은 태권도가  
 아니면 해낼수 없는 克己의 자세였다.

그는 마침내 第3回 大會의 女王이 되었고, 장하고  
 값진 榮光의 메달을 획득 할 수 있었다.

한편 남궁 명석과 金 春玉의 決戰은 애당초 남궁 선  
 수의 뛰어난 공격을 감 존속 選手가 어떻게 리할 것인  
 가에 觀戰이 집중되어 있는 競技였다.

그러나 경기의 내용은 예상을 뒤엎고, 남궁 선수의  
 날카로운 공격의 시도가 번번히 무위로 파멸되었고 오  
 히려 金 春玉 選手의 대담하고 잔인(?) 스티클 정도  
 의 공격이 더해 갈때마다 관객은 함성을 지르고 때로  
 는 숨을 죽여야 했다.

結局 南宮 選手의 勝利로 게임은 끝났으나 金 春玉  
 選手의 게임 운영의 묘는 보기드문 수확이었음에 틀림  
 없었다.

또한 이 두 選手가 보여준 競技가 跆拳道의 內容을  
 굳이 아닌 行動으로 보여준 가장 격렬한 說明이었다고  
 볼 수 있었다.

즉 힘과 知慧와 技術 綜合한 움직임은 藝術의 극치  
 가 태권도임을 보여준 것이다.

때때로 筆者は 女子가 태권도를 하는 것에 대한 회  
 의적인 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할 때가 있으며 그  
 런 사람을 어떠한 말로서 설득, 理解를 시킬 것인가 困  
 境에 빠지는 일이 있었다.

筆者は 그런 사람들에게 이 두 選手들이 보여준 競  
 技로서 그 答辯을 대신하고 싶은 心情이었음을 부연하  
 는 바이다.

女性은 弱한 存在으로서, 閨房을 지키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李朝의 頑強觀念을 뒤집어 할 수 없는 歷史的 使命이, 非常事態를 갖어온 이 나라에 사는 온 國民의 宿命的 現實이다. 護國의 隊列에 참가한 女性들의 記錄이 밀리 權 懷의 幸州山城 싸움에서 幸州치마를 입고 몸을 나른 것에서 부터 3.1運動과 4.19에서 그 傳統은 충분한 基礎를 찾을 수가 있는바, 自我 強이 國家 強의 基盤을 在認識하여야 될 時期인 것이다.

× ×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女性들에게 아름다움을 尊重하는 民族의 열이 담긴 民族의 舞에 對해서 비록된 태권도는 先進의 藝術家들이 더욱 熱中하는 아주 靚麗한 律動藝術임에 疑의를 갖어야겠다.

現在 「오스트리아」에서 태권도 國家師範으로 活躍하고 있는 李京明 師範의 말대로 歐洲의 女性跆拳道人의 경우는 미용과 精神 수양을 目的으로 참여하고 있고 大部分 大學生과 教授들로서 博士學位를 갖고 있는 「인테리」들이 여러명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미루어 태권도의 價値가 外國에서 評價 받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餘地를 남기는 이야기가 아닐까?

여기서 우리는 어째서 그들이 그토록 태권도에 沉醉하는가를 弄알 必要가 있겠다. 또한 體力이 靚麗한 優우품의 舞에 對해서 匹敵 할만한 技와 精神이 각주어졌는가 하는 問題, 엄려도 하여 보는 것이 좋겠다.

來年으로 완공을 서두르는 中央道場의 完成과 同時에 태권도 世界選手權大會는 未久不遠 닥쳐올 公算이 크다는 것 같은 너무나 뚜렷한 展望인 것이다.

外國의 女子選手들은 跆拳道 宗主國인 韓國에서 벌어진 世界大會를 앞두고 大學生은 한글 두문씩 「아르바이트」를 하여 가면서 저축을 하고 있으며 一般人은 大會 參加費用으로 쓰여질 저금통장을 勳章처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소식이니 이런때에 國內 選手들은 汗을 奮發하고 勞力하면서 크나큰 期待를 안고 찾아오는 外國 選手들을 맞이할 충분한 誠意에찬 差備을 해야겠다.

外國의 경우로 跆拳道를 修練하는 일은 그들대로 莫大한 經費가 消要되는 것인바, 經濟的인 餘裕가 있는 사람 또는 배우고저 하는 熱意가 있는 상당 水準의 選擇된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된다고 한다. 特定地域에 限定되어 있는 師範은 數百마일씩 自動車로 찾아 다니는 것이 그들의 實情인즉, 거리마다 쉽게 찾을 수 있는 跆拳道場이 있는 韓國의 選手들은 마치 空氣의 高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人間의 愚性을 또하나 犯하고 있음과 다름이 없다.

미단 大會를 爲한 修練이 아니고 自身을 爲한 心身 鍊磨의 方法으로 跆拳道를 選擇한 이들은 우리의 跆拳道가 外國의 優秀한 選手들 水準에 미달하는 것은, 훌륭한 祖上의 遺物을 世襲하는 만큼의 愛着을 갖어야 마땅하겠나.

× ×

넓은 舞臺를 즐기 活用할 줄 아는 藝術人은 훌륭한 藝術人으로 指稱되는 것은 空間의 처리를 그만큼 잘한다는 말이며, 아름답게 보이는 높은 建築物들은 空間의 처리를 능숙하게 하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특히 東洋畫가 보여주는 靑 餘白의 部分은, 그것이 空間이면서 空間으로서의 意味를 지니는 때문에 아름답





다운 것이며 흰 道服을 입은 選手가 柔軟한 線을 긋는 律動은 그것이 虛空을 向한 무제적의 흐름에서 無限大의 아름다움을 創造하는 創作의 行爲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움직임은 作動의 모습이 古來의 韓國 建築物에서 찾아 볼 수 있는 線들과 상통하고, 어머니의 저고리와 비선과 等等에서 찾을 수 있는 아름다움들이기 때문이다.

해서 西洋의 그들은 神秘의 東洋武藝에서 人爲가 아닌 原始原來의 鄉愁가 어린 태권도에 熱中하는 것 같다.

이것은 댄스의 형태가 時代의 흐름에 따라 形式과 상관없는 아프리카 蠻人의 춤으로 되돌아 온 것에 비유할 수도 있겠다.

여하튼 人爲는 自然發生의 美를 능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두드러진 判斷이며 眞理로 定義된 확고한 論理이다. 美國의 「모던·탈레」 專門家は, 태권도에서 發散되는 律動의 분위기가 自身이 찾는 窮極「모던·탈레」였다고 하면서 八卦七場과 같은 部分에다 音樂을 걸드리면 아주 훌륭한 「모던·탈레」 作品이 될 수 있다는 提案을 들고 筆者도, 그럴듯한 말이라고 수긍을 해 본적이 있는 터이다.

또한 市内 崔景동에 있는 C 道場에는 72kg의 婦人이 約 3個月만에 「다이아트」(음식제한조절)를 하지 않고도 10kg의 살을 빼어 내는데 성공하였다는 말을 들은바 있는데 이러한 現象은 다른 「스포츠」에서 볼 수 없는 것이며 歐美 女性들이 數 많은 種類의 運動中에 우리의 태권도를 選擇하는 또 하나의 理由로 볼 수 있을 것이다.

國內의 女子選手 水準이 날로 높아가고 있고 이에 따라 精神의인 뒷받침을 하여 줄 女性 跆拳道人의 先覺者가 絶실히 要望되는 것이 跆拳道界의 現實인즉 女子選手들에게 많은 期待를 걸어보는 터이다.

끝으로 一般의 理解를 얻기 힘들었던 태권도 修練을 곳곳히 해낸 女子選手들에게 힘찬 拍手을 보내는 바이다.

# 미스터 박돌



박영래



# 태권도의 맥카

김성균

해할 수 없이 많은 외국의 태권도 수련생들이 한국을 찾아오고 있다.

대개의 경우 직장인들로서 2,3개월의 휴가를 내어 오기도 하지만, 애당초 태권도의 수련을 목적으로 5,6개월씩 유학(留學)을 오는 경우도 있어 이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이다.

지난번 瀛洲에서 태권도유학을 와서 2개월동안 국내에 머물면서 수련을하고 돌아간 「데이비드·버틀러」씨의 경우는 직장인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유학자금을 만들수 있는 처지였다. 그러나 이번엔 美國에서 온 「하밀렛·아란」군의 경우는 열외에서 출어난 고행(苦行)의 수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미 美國에 있는 「켈」사범에게 2년전에 초단을 받고, 사범의 권유로 한국에 오고 싶었으나, 충분한 여비를 마련할 방법이 막연했다. 그래서 그는 궁의 끝에 묘안을 생각해냈고 그 결과, 軍에 입대하여 서울형 군용기에 실려 온 것이다.

그의 韓國주둔 근무기간은 바로 태권도의 수련기간이며 그가 귀국하는 73년에는 2단의 공인을 받게 되므로 그의 모든 꿈이 계획대로 이루어 지는 셈이다.

40여만에 달하는 외국 수련생들의 희망은 그들의 실력평가를 종주국에서 받고자 하는것이며, 聖地「맥카」를 찾는 回教徒들의 마음가짐과도 같이, 태권도를 익히는 사람은 태권도의 「맥카」 한국을 찾는 일과 종주국의 공인을 받는 것을 최고최대의 영예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종주국을 찾았을 그들을 「리드」할 자제가 확립되어져 있는가를 우리 모두가 自省할 일이다.

때문에 지금까지의 지도자를 위한 교양의 보급과 체질개선의 시도는, 內實의 결여와 기타 부조리와 모순을 제거하고 정리하는데 그 의의는 크다 할 것이다.

기술의 발전과 정신적인 성장, 주체성과 신념을 지닌 가치관(價値觀)이 몸과 마음에 관습화 되므로서 태권도 순례자에게 뚜렷한 이념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겠다.

벽분을 깨고, 기합장을 부수고, 품세를 아무리 잘해도 그것은 모방이나 숙연으로도 가능한 것이고, 인젠 가는 신체구조상으로 월등한 외국인이 우리보다 우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다만 지도자로서의 자질육성과 그 구현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과제이다.

한주먹에 생명을 결정하기도 하는 고도의 위력을 가진 무도(武道)를 배우는 사람에게 있어서 존경과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범의 자세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수련자의 성격과 세 人間 형성에 획기적인 방향결정을 가져 오기 때문에 그들은 종주국을 찾아 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 ×

신사도를 생명으로 하는 영국인이 가장 아끼고 자랑하는 「테니스」경기에서도 태권도에서 볼수있는 경기의 예의를 먼저 가르친다고 한다. 어느 한국의 외교관이었다던가 「테니스」의 종주국인 영국에 왔으니 이 기회에 기념으로 「테니스」를 배우고 가리라는 생각으로 유명한 「코치」에게 「테니스」 사사를 받았는데 그는 1개월의 「레슨」 기간중 「볼」은 한번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라켓」을 들고 경기에 임하는 「매너」와 기초자세만을 배우고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다.

「테니스」의 기술은 영국이 아닌 한국, 또는 다른 어느 곳에서든지 배울수 있으나 경기에 임하고 「게임」을 치르는 「매너」는 영국이 아니면 배울 수 없다는 종주국의 명 「코치」다운 배려였던 것이다.

그러한 식견을 가진 「코치」가 있는 영국의 선수들은 결국 세계를 석권할수 있고 높은 수준에 오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테이비스컵」의 결승에서, 넘어진 상대에게 볼을 던질수 없는 양심때문에 「라켓」을 거두고 승리를 양보할수 있었던, 영국선수의 이야기는 다른 나라의 어떤 선수도 보여줄 수 없는 가장 인간다운 일면이라고 볼수 있다.

스포츠맨은 기술의 마술사가 되기전에 인격을 배움으로서 위대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겨준 것이다.

한국을 찾아오는 외국의 수련생들이 한국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포착하고 조식스런 행동으로 그들을 맞고 보내야만 되겠다. 우리들 눈에 높아 보이는 고층건물과 끝없이 뻗은 고속도로가 그들 앞에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다만 태권도의 맥카 한국에서 올바른 동양 예의와 사범의 가르침을 받기를 그들은 열망하고 있을 것이니까♣

# 哭 郭 根 植 教 授

玄 鍾 明

본 협회 교육분과위원장 작 근식 교수가 지난 6월 20일 환원(遠元)하셨다. 화병 수개월동안 간간히 문명하여 빠른 회복을 염려하면, 사생(死生)이 유명(幽明)인데 지금것사는동안에 죽고 사는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노라고...

위암이라는 것은 의사의 진단으로 그 자신이 알고 있으면서도 평온한 마음으로 아무 걱정이 없었다.

정녕 세간 속자로서는 도저히 따를수 없는 고매한 인격과 전형적인 무도정신에 다시금 머리물 숙이는 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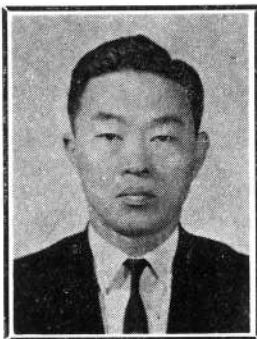
오호라, 무상한 인생이여 우리의 기대 많은 작교수는 향년 47세라는 이제 한창 일할 나이에 천수를 다하지 못하고 불귀의 여로를 떠나셨다.

작교수께서 살아놓은 德業은 기리 태권도제와 사회에 칭송을 받을 것이며, 지니셨던 그 위대한 정신은 태권도제와 함께 우리들의 심령속에서 영원히 장생할 것이다. 본래 육신을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떠나게 마련이지만, 작교수의 육신을 보내면서 서러워 하는것은 인정상으로 당연한 일인면서 필리상으로 볼때 부득이 한 일인 것이다. 그러나 성령은 무형한 것이기 때문에 무한한 것이며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죽지않고 영원히 장생하는 법, 특히 도를 탐고 덕을 쌓은 사람에 한해서 더욱 그런 것이다.

성령은 무한한 것이기에 육안으로는 볼수가 없지만 도를 탐은 사람의 영안으로는 작교수의 성령이 영원히 살아 있는 것을 똑똑히 볼수가 있는 것이다.

× ×

작교수는 경기도 이천에서 당시 大地主였던 작정수선생의 무예아들로 태어나 한학을 공부하시다 17세의 어린나이로 뜻한바 있어 만주국으로 건너가 독립군에 가담하여 조국광복에 헌신하셨고 학업에도 매진하여 남단공업전문학교를 다니시다 해방을 맞으셨다.



그 후 육군사관학교 교수부 체육과장 시절에는 태권도이론에 심련을 기울여 전교생에게 보급하였으며 예전과 동시에 광운전자공과대학 체육교수로 취임하고 학생과장을 겸임하셨다.

종종 작교수대를 방문하면, 백이 학교인지 학교가 백인지 분간할수 없을 정도로 작교수 케신것에 언제고 많은 청년들이 모여 들었다.

수련과 체력단련으로 튼튼한 몸을 만들어 국가에 봉사하자는 일념으로 무를 배우고 도를 깨치자는

말씀으로 그 이름도 무학관(武學館)으로 이름하여 태권도 무학관을 개관하시니, 수개월만에 앞을 다룬 분학생들이 심어준에게 지관을 차리기에 이르렀다.

우리가 같이 만들었던 여러단체의 활동과, 거기에 얽혔던 갖가지의 이야기들, 세상에서는 郭하면 으레 히 흐이 따르는 것으로 되었고, 작마교수로 울고웃던 작교수는 추억만 남기고 가셨으니...

× ×

특실 봉원사에서 밥을 밝히며 술을 마시던 향그러운 추억이 지금도 생생이 맴돌고, 호탕한 작교수의 노래소리가 귓전에 정정한대...

여보시오 작교수! 저승이 있다면 거기서나 다시 만나 옛날 즐겨졌던 일들은 다시 계속합시다 그려. 또한 다시 이세상에 태어날수 있다면 이나라에 태어나 가난과 밀시 속에 못다피운 태권도의 꽃을 피우고 태권도를 한껏 사랑하다 함께 가십시오.

작교수! 지금 태권도중앙도장의 완공을 앞에 놓고 마지막 완성을 위한 함마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당신의 큰 뜻이 이땅에 차츰 이뤄지고 있습니다.

먼 후일 당신이 부르던 그 경겨운 노래를 함께 들으며 당신의 백권도가 탐스럽게 꽃피울 이 낙원을 함께 거닐시다.

미덥고 정답던 이름.

아! 작근식♣

# 『』 새마을체육관개관



황 대 진

「태권도정신은 새마을 정신과 통한다」는 「술모건」을 내세운 인천의 새마을체육관은 勤學·自助·協同의 새마을 정신이 우리들의 심신(身心)생활에 생활화 되고 행동화 될때, 조국통일의 위대한 과업이 보다 빨리 성취되리라는 확신밑에 도장의 이름을 「새마을체육관」이라 정하고 도내 최선 최대의 시설로 꾸며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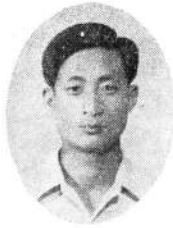


김 학 수

개관식에 참석한 본회 기술심의회의장 장 鍾佑지는 식사를 통해 「의형적인 멋보다는 대형적인 멋을지닌 신사를 배출하는 도장이 되어 국가발전에 역군이 되어 달라」고 당부 했으며 박 영철관장은 「새마을 운동의 기수가 될 역군을 배출하여 국가가 필요로하는 체육의 전당을 만들겠다」고 말하므로써 원대한 포부를 지닌 巨艦은 힘찬 출항을 하였다.

이날 「새마을 체육관」이 개관하기 까지는 인천 동구청장 신 광수씨와 이 보진 동구청 서무계장의 심혈을 기울인 노력의 뒷받침이 있었고, 남 상협 인천동맹고등학교장과 동교 태권도부장 이 인선씨와 황 대진사범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정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공무원인 몽구정의 신 경수 정장은 새마을운동의 실천을 안보체육 태권도에 근원을두고 국력이 쇠퇴이라는 정부시책을 호응, 정신 개발과 신체단련에서 국력을 배양할 수 있는 태권도에 온갖 정열을 기울였을 때 처음 도장을 만드는 일에 몰두하는 신철장에게 주



송 준 구

워 사람들은 공무원이 쓸데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한다고 비난의 소리가 높았으나 체육관이 완성되고 경기도내의 우수한 사범과 선수들이 모여들고中央社에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자 비난은 칭찬으로 변하였고 개관식 날에는 인산인해를 이룬 일과

속에 구청의 전직원이 참석하여 축복을 해졌다.

56명의 도장들에게 걸려있는 무수한 상장은 이도장을 이용할 역전의 선수와 사범들의 뛰어난 전력을 증명하여 주고 남다른으로 구분된 샤워장시설은 도내 굴지의 도장으로 손색이 없다.

현재 사범직은 동산중고등학교의 황 대진 사범과 선인중고의 유 기훈 사범, 소사농중고의 심 형기 사범과 송준구 사범을 극대 주요 경기의 강자로 군림한 여러 학교의 사범들이 말라되어 있으므로서 「새마을 체육관은 시설과 사범의 구성등, 명실상부한 모범체육관으로 개관을 보았다.

동 체육관은 앞으로 학교 단위의 선수배출은 차폐로 미루고 지역 사회개발에 공헌할 넓은 기수를 낚는 산모의 역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운동의 앞장은 우리 태권도인이 선다」는 포부를 내보이므로써 개관에 따르는 유치여러분의 수고에 보답하고 있다.

개관과 동시에 3백여명의 각급학교 학생들과 지역사회지도자가 몰려왔고, 시내에 있는 조기회원들이 태권도 수련을 희망하므로써 대동원 새마을 체육관은 밝은 앞날이 그리고 무수한 역군의 등용문으로 구실을 다할 것이다♣



# 세계로 뻗어가는

## KOREA TAEKWON-DO Groß-Veranstaltung



Kartenverkauf:  
Seo, Yoon-Nam Do Chang  
München 22, Telersdorf 20  
Tel. 22-9366  
Schwabingerbräu  
Tel. 390031-32

(17. August  
nur für geladene  
Gäste und  
Olympia-Sportler)



Veranstalter: Korea Taekwon-Do Association  
Ausrichter: Seo, Yoon-Nam Do Chang München  
Österr. Taekwon-Do Verband  
Teilnehmer: Alle koreanischen Großmeister in Europa

16./17. August 1972, 20 Uhr, Schwabingerbräu  
am Palmachplatz (Hortle-Hochhaus)

기에 따르는 세부 계획을 협의하고 떠날바 있다.

제한기간중 이 경명 사범은 태권도를 통한 외교사절로서의 증임을 통감 한다고 말하면서 주부(駐佛) 한국대사관의 요청을 받고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프랑스」의 「상디」에서 열리는 올림픽 남자 배구 아시아지역 예선에서도 태권도 시범경기를 갖게 되고, 「오스트리아」의 「인스부르크」에서 벌어질 국제 탁구선수권대의 기간중에도 시범대회를 갖는다고 전했다.

## 「원헨」 태권도 대회

전 인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원헨」 올림픽대회가 이달로 임박했다.

이 대회에 앞서 대한 태권도협회는 유럽주재 사범들을 모두 모아 「원헨」에서 대대적인 시범대회를 열어 태권도의 우수성을 세계 제국인들에게 보이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 시범대회는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독일의 서 운남 사범, 오스트리아의 이 경명 사범이 주축이 되어 「원헨」의 중심가에 자리잡은 「슈비빙거·브로이」 홀에서 열린다.

대회기간은 8월 16일·17일 양일간이며 올림픽대회를 전후하여 1주일동안은 어떠한 경기도 해서는 안된다는 올림픽 규정에 따라 올림픽 개막일로부터 1주일전에 열게 된 것이다.

이 대회에는 대회장으로 김 雲龍 회장이던 윤규 사무총장, 이 종우 기술심의회회장과 함께 참석한다.

이 태권대회를 위하여 「오스트리아」 태권도 국가사범으로 활약하는 이 경명씨가 1개월간 귀국하여 시범경

위의 두 대회는 북한과 중공이 출전하므로 이들의 경치선전을 막고, 한국 「스포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이들을 위압할 수 있는 태권도의 시범경기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면서 수많은 현지 외국인 수련생들이 참가하여 흥원을 할 수 있는 잇점이 있는 태권도야말로 다른 어떤 종목 보다도 유리한 것이라고 덧붙었다.

특히 고국의 명예를 걸머지고 싸울, 한국의 선수단이 도착하는 「원헨」 공항에는 그동안 배출된 남녀수련생들이 태극 「마크」가 달린 도복을 입고, 태극기를 들고 태권도 종주국의 선수와 임원들을 환영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 환영을 위하여 이미 이 경명 사범은 대형 태극기를 준비하여 갔으며, 현지의 수련생들은 평상시에 경의와 존경을 보내온 사범의 나라 선수를 맞을 흥분에 들떠 있다는 소식이다.

본 협회가 주최하는 이번대회는 해외 경기를 주최하는 본협회 최초의 행사라는 점에 더욱 의의가 있으며, 태권도의 해외진출에 얻을 기쁨이고 있는 김 회장의 적극적인 뒷받침으로 실현된 것이다. ❀

# 한국의 태권도

## 「이란」에 심은 태권도

본 협회는 「이란」주재 한국대사관의 요청을 받고 「이란」국왕과 왕비 그리고 3명의 왕자가 착용할 태권도복 및 장비를 외무부를 거쳐 현지에 보냈다.

현재 「이란」에는 3군 사관학교를 비롯한 자 군부대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있으며, 金 修鍊 사범의 2명의 한국사범이 가르친 특수부대 요원들이 「이란」에서 벌어지는 열매적인 군대행사에서 「팔레비」국왕 부처와 3명의 왕자가 태권도복을 착용하는 가운데 6월 25일 26일 양일간 시범대회를 가졌다.

특히 「팔레비」왕 부처와 왕자들이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이 있어 태권도를 통한 우의증진과 한국의 무예의 해외진출에 또 하나의 수확을 거두었다. 「이란」서의 시범대회를 마치고 金 雲龍 회장 앞으로 보내는 金 修鍊 사범의 서한을 여기에 소개한다.

### <前 略>

下 達하여 주신 태권도 제4호는 잘 받았읍니다. 뿐만 아니라 외무부를 통해 보내주신 태의 기념품과 장비들은 대사관에 완전히 도착했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벌써 소생이 이곳에서 태권도를 보급하기 시작한지 또 8개월이 지났읍니다. 이제는 어느정도 수준에 달했으며 자기 스스로 태권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흐뭇한 일입니다.

물어봐 생각하면, 지난 8개월동안 저 역시 약진고투 해 왔읍니다.

자연적으로는 사막지대라는 악조건이, 그리고 일본 「가라데」의 틀미구니 속에서 패로는 혈투를 해야했고 「레스링」을 국기로 갖은 나라에서 이들과 싸워 이겨야 했읍니다.

또한 열과 성의를 다하여 한시간도 빠진없는 충실한 교육을 시키므로서 이들에게 용감하고 근면하며 친절 한 한국 태권도의 열을 심어 주었습니다. 이는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니고 한국 태권도 전체의 사명이기에 힘껏 일했읍니다.

이러한 훌륭한 노력들은 결과적으로 전 「이란」군에게 우리의 태권도가 채택 되었고, 일본 「가라데」는 드디어 물러가고 말았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팔레비」국왕께서 친히 「이란」에 주재하는 외교사절을 모시고 (공산국가 포함) 우리 한국의 고유무도인 태권도 시범을 보이는 영광을 갖기도 했읍니다.

### <中 略>

이제 이곳은 태권도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일이 단단히 심어져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 대사관의 도움으로 인접국에 시범을 보일 기회를 자주 갖고 있으며, 그중 세계 제일의 국민소득을 자랑하는 「루웨이 트」에도 태권도 보급을 위한 계획이 추진중이며 라티오와 텔레비전에서도 중계하기도 략의 했읍니다.

지금 이곳 주변의 소국가(왕국)에 태권도를 보급할 수 있는 여건은 많습니다. 다만 저의 신분이 군인이고 초청되어 온 손님의 입장이기 때문에 대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 협회장님!

이제 저의 이곳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으나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 이곳에 흔적을 남기도록 노력하였으며 제가 귀국후에도 민간사범 파견은 물론 한국을 모르는 「유럽」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태권도 정신과 기술을 통해 한국을 소개하겠읍니다.

회장님과 사무총장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들의 가정애 행운이 깰것기 믿니다.

주 「이란」 한국군 태권도 교관단장

소령 김 수 련 드림

## 유 석렬씨 「이태리로

이태리 태권도 협회 「트리노」(Torino)市 「스프로츠칼럼」 초청으로, 2年間 태권도를 가르치게 된 유 석렬 사범이 7월 23일 C.P.A.편으로 金浦공항을 떠났다.

1961년부터 태권도 수련을 시작한 유 사범은 예술의 나라 이태리를 가는것을 열망한 태권도인이면서 연극인이다.

그는 中央大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모교에서 후배 양성을 하여 왔었다.

그는 떠나기에 앞서 본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태권도의 기술보급도 중요하지만 개인 외교로 국위를 선양하고 싶다고 말했다. ❀

#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의 태권도

## 自由中國三軍大學 副總長 蔣 緯國中將 本會訪問

자유중국 三軍大學 부총장이며 국방대학원장인 蔣緯國 중장이 지난 5월 28일 본회의 金雲龍 회장을 방문하여 우리나라 태권도 상호교류를 위한 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金회장은 감사패와 태권도 명예 3단증을 증여했다.

蔣중장은 매일 1시간씩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는 성실한 태권도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自由中國 海兵隊에 태권도를 보급시켜 전 장병이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

蔣總統의 차남이며, 직업군인으로 군사이론에 밝은 蔣중장은 서울을 방문한 동안 국방대학원에서 「三角대결에 있어서 兩者結合의 戰略의 運用」이란 강연을 함으로써 급변하는 동양 여러나라의 경제를 기하학상의 이론으로 풀이 하는 등 臺灣의 국제적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삼각형의 두변의 합은 다른 한변을 압도한다는 물리치인 이론과 「태권」의 경·반·합의 원리를 토대로 미국, 소련, 중국의 전략을 설명하고 미국은 3각의 대결에서 우위를 차지하는데 있어서 너무 지나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산정권의 문제는 중국 내부에서 배 3분마다 한



전의 반공투쟁 사건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아 불안정한 것이고 대만을 비롯한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타이」, 칠남, 인도등이 결합한다면 중국의 힘은 보장없이 없이되며 아세아에서 미군철수가 강행되어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그의 주장에서 강국의 정책변동에

따른 힘의 균형을 자기실력의 강화에서 대비하여야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蔣중장은 스스로가 태권도로 심신을 단련하고 우방의 협력을 구하는 등 자력을 배양하고 힘을 모으는 선술가다운 외교를 벌이고 돌아 가르쳐주게 주목을 끌었다.

특히 대만에는 5천여명의 태권도인이 있고 굳이 수많은 태권도수련생이 있음을 감안할때 蔣중장의 내한에 의의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 「홍콩」의 「씨비아」夫妻 本會訪問

홍콩에서 6년간 태권도 수련을 하고 美國의 「씨아들」에 도장을 차리기 위하여 向美하인 中國出生의 「씨비아」夫妻가 本會 嚴雲奎 사무총장을 방문하고 국제사업 자격문제와 도장개설에 따르는 제반문제를 협의하고 7

월 30일 미국으로 떠났다.

「씨비아」氏는 지난 2월 모국을 방문한바 있는 「피터·李」씨와 함께 수련을 시작했고, 앞으로도 美國에서 합체 활약하게 될것이다.

When foreigners would obtained the Black Belt Certificate authorized by the Korea Taekwondo Association, they must be fulfil the followings:

1. A letter of recommendation by the Korean instructor in their country.
2. An application in writing their adress, date of birth, name of gymnasium, and instructor.
3. Test fee, U.S. \$ 25.00.

#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의 태권도

## 破竹之勢로 뻗는 「아프리카」의 태권도!

암흑의 대륙 「아프리카」의 곳곳에서 태권도 「불」이 일어나고 있음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파죽지세(破竹之勢)로 「가나」 「아르헨티나」 「라이베리아」 「다호메」 「카메룬」 「중앙 아프리카」 등 여러 나라에 까지 확대 보급되므로서 현지 대사로부터 金 雲龍 회장에게 다음과 같은 감격의 서신이 도착했다.

### 김 운용 회장 귀하

보내 주신 「태권도 5호」 감사하 보았습니다. 그간 金 회장을 위시한 협회 여러분의 절치하신 노력으로 우리의 국력이 성장하는것 처럼 태권도가 우리의 국기로서 5대륙에 번치고 있음을 축하 하는 바입니다.

본인이 주재하고 있는 「아이보리·코스트」에서는 4년에 걸친 김 영태 사범의 탁월한 기술과 불굴의 의지로써 이곳 「아이보리·코스트」에서만도 현재 17개 도당이 각지에 산재해 있고 그 일부는 김사범으로부터 태권도를 전수받은 제자들에게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4년간에 걸쳐 김사범 휘하에서 배출된 수련생만도 3천 5백명에 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 김사범의 제자중에는 이 나라의 현직 공보장관, 축산장관, 형법사령관을 위시한 고급관리 및 주요인사들이 망라되어 있으며 김사범

이 매일 태권도를 교수하고 있는 천병학교에서는 가까운 장래에 태권도를 정식 과목으로 채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태권도가 비단 「아이보리코스트」에서만 보급된 것이 아니고 이곳에서 배출된 수련생에 의하여 「라이베리아」, 「다호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등지에 계속 태권도장이 설치된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가는 곳에 태권도가 따르고 태권도가 있는 곳에 한국 남자의 우렁찬 호령과 함께 우리의 태극기가 나부껴게 마련이니 어찌 장한일이 아니라 하겠습니까. 이 모두 회장님을 비롯한 협회 여러분 그리고 여러 사범들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우리 국가의 원익신장을 위해 밀력하나마 봉사하고 있는 자로서는 열독하신 박태룡명장하의 영도로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물론 체육면에서 까지 세계의 구석구석에 우리의 국위가 선양되고 있음을 볼때 가슴벅참을 느끼게 되고 가일층의 분발을 다짐하게 됨이 솔깃없는 심정입니다.

귀협회의 계속적인 발전과 태권도의 무한한 번영을 기원하면서 인사의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환 「아이보리·코스트」

대사 남 철 배 드림

## 「터키」對 서독 태권도경기

지난 7월 29일 외무부를 통하여 확인된 보고에 의하면, 「터키」 체육성이 주관한 「터키」와 서독의 국가대표 태권도 경기가 7월 16일 「이스탄불」에서 열렸고, 7월 19일에는 「터키」의 「앙카라」市와 서독의 「후탈루프르」市 대항 친선경기가 성황리에 끝났음이 밝혀졌다.

이 대회에는 英國과 서독, 「터키」에 체육중인 韓國 사범들이 심판및 진행을 담당하였으며, 「이스탄불」대회에는 약 8천명의 관중이 참관하고 「앙카라」에서는 4천명의 관중이 성황을 이루므로서 한국태권도에 의한 국위 선양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전래했다. ♣

#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의 태권도

## 駐「캐나다」장 재용 총영사의 현지 태권도 활약보고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의 태권도」란의 소식은 현지 사법을 통한 보고에 의해 소개되는 경우가 있으나, 현지의 외교「채널」을 통해 신빙성있는 보고가 담겨 하므로 더욱 본지의 무게를 더 해가는 느낌이다.

본 협회 金雲龍 회장이므로 보내온 駐「캐나다」「뱁쿠버」의 장 재용 총영사는 장문(長文)의 현지 사법 활약상을 알려줌으로써 관계자들을 감격케 하였다.

장 재용 총영사의 서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공무와 결하여 협회 사업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애쓰시는 노고에 많은 보람이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김포장께서 계속하여 보내주시는 「태권도」지는 감사히 받아 읽고 있으며 우리 관내에 있는 태권도 사범들에게 돌아가며 일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부캐나다 지역에는 최 창근(뱁쿠버시), 박정태(위니페시), 이 춘제(칼가리시), 건 덕기(에드몬튼시) 권 태선(빅토리아시) 등 제 사범들이 태권도 보급과 아울러 극위선양을 위해 활발히 활약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뱁쿠버」에서 활약중인 최 창근 사범(6단)의 활약을 별첨과 같이 소개 드리오며 기타 제 사범들의 활약상도 추후 차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귀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장 재용 드림

최 창근 사범의 활약상

<前略>

동인은 69년초 캐나다에 이민하여 오랫동안 「뱁쿠버」

「뱁쿠버」에서의 태권도 보급 가능성을 확인한후 70년 8월 15일 중앙사범의 후원으로 태권도 도장을 개관하였으며 태권도 시범을 실시한바 있음.

그간 동인의 태권도 보급을 위한 테레비존 및 신문광고를 통한 선전이 주효하여 「뱁쿠버」에서는 태권도에 대한 인식이 어느정도 보급되었다고 본인은 말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로 본인 개인 도장이 2개있고 당지 2개 대학인 U.B.C, S.F.U, 각 대학에 학생들의 특별활동부문으로 태권도부를 설립하여 지도하고 있음.

현 수련생은 약 5백여명 정도이며 본인의 현재 전망으로 1.2년 후이면 태권도에 대한 인식이 완전 보급될 것이라함.

동인의 앞으로 계획은 ① 당지 상류층에 대한 태권도 인식 확장, ② 73년도경 북미주 지역내 각 지역별 태권도대회 개최, ③ 태권도 교본 발행 계획 ④ 태권도 종합체육관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함.

그간 동인은 테레비방송국 및 신문 광고를 통해 수차례 걸쳐 태권도 시범을 한바 있으며 지금 현재 동인의 태권도 보급으로 인해 일본 「가라게」 활동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여러차례 간접적인 도전을 받고 있으나 본인 자신의 탁월한 기술로 이를 물리치고 있다고함.

<中略>

앞으로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후배들을 위해 말하고 싶다면서 ① 사범은 극위선양을 위해 훌륭한 정신과 인격을 소지하여야 하며, ② 우수한 기술을 소지한 자여야 하며, ③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이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고 믿고자 한다

#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의 태권도

## 「프랑스」 태권도 단체 대항전

—李 觀 永 사범 報告—



「프랑스」에서 활약중인 이 관영 사범은 제1회 「프랑스」 태권도대회 단체대항전 보고와 함께 현지 소식을 알렸다.

李 사범의 보고에 의하면 南佛지역에 있는 50개 佛人 「가라데」도장 사범들로부터 태권도 교육을 요청받고, 내년부터 계약에 의하여 「가라데」사범들을 지도하게 되었다고 전혀 오묘로서 「가라데」의 勢가, 태권도의 우수성을 국제무대에서 인정하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프랑스」대사관으로부터 태권도를 통한 국제선양과 한국의 태권도를 불란서에 심는 공이 지대함을 인정받아 대통령수상 해외유공자로써 8월 중순에 그국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왔다.

### 〈보고전문〉

지난 6월 3일 「프랑스」 「파리」市에서 약 15km 떨어진 ORSAY 市의 市立체육관에서 불란서 태권도협회 주최하고, 주불 한국대사관과 ORSAY 市 태권도부가 후원하는 제1회 선수권 단체대항전이 이관영 사범의 진행에 의하여, 대한태권도협회 경기규정 그대로 실시되었다.

4급이상 초단까지의 각지역 代表선수 6명이 출전했으며 시종일관 좋은 기술을 발휘하여 약 천5백명의

관중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특히 결승전에 앞서, 독일 「뮌헨」의 저출남 사범과 그의 수련생(독일인 초단)과 독일 Köln지역의 장광명 사범, 현지의 이관영 사범의 15분간에 걸친 시범에는 전 관중이 숨소리까지 죽어가며 관람하여, 각 시범이 끝날때는 노래를 부르는 듯 박자를 맞춰 「앵콜」을 연 말함으로써 즐거운 비명을 지르기도했다.

이날 대회 시상식에는 市長인 Mr. Le Maire氏가 나와서, 한국태권도의 우수한 체육적 가치를 인정하는 찬사와 아울러 ORSAY 市의 보급수련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주불 한국대사관의 장 창익 영사관은 불란서 태권도 수련생들의 훌륭한 무도정신에 찬사와 아울러 각 우승팀에게 5개의 「트로피」가 수여되었다.

특기할 일은 대회관중 가운데 日本 「가라데」의 불란서 취원들과 불란서 국가선수들이 참관했고, 그들의 관경평은 체육적 가치에서 100%에 가까운 경기라고 극찬했으며 「가라데」경기보다 관중들의 피도가 좋았다고 말했다.

우 승: ORSAY 市팀

준우승: 제불 월남학생팀

3 등: 「파리」(동부)팀

개인 묘기상: 월남학생 「유란자」(초단)

#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의 태권도

## 美國 태권도의 「프론티어」 李 俊九 사범

### 센타 建立 贊助金 1千弗送金

15년전 도미(渡美)하여 지금은 「워싱턴」 「커티캐터트·아케뉴」에 있는 李 俊九태권도장을 비롯하여 「도미니카」 共和國과 「하이티」 共和國, 그리고 「텍사스」 등 광범위한 지역에 도장을 갖고 있는 태권도의 「프론티어」 이 준구 사범은, 태권도종주국의 태권도 중앙도장 건립소식을 듣고 1千弗을 송금해 오므로서 열렬한 호응과 협력을 보였다.

그동안 이 준구 사범은 수천명의 수련생과 수백명의 유단자를 배출하였고 「제임스·크레브렌드」 하원의원과 「밀턴·영」 상원의원 등 수십명의 美 國 會 上 하 의 員 을 포함하는 고위인사를 지도하므로서 그 명성을 날린바 있다.

「워싱턴」을 방문하는 한국인에게 李 사범을 아느냐는 질문을 던지는 시민이 많은 것으로 미루어 李 사범의

활약상은 가히 짐작이 되는 것이며 그 人 氣 의 도를 측정 할수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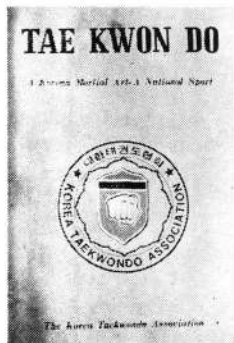
李 사범은 전 미국대통령인 「존슨」이 수학한 「사우드·웨스트·텍사스」 주립대학에서 보건학을 전공한 「인테리」 태권도인으로서 현지의 수련생들은 태권도 뿐이 아닌 정신적인 지도자로 존경을 받고 있다.

오랜동안 모국의 태권도계 소식과 사정에 어두웠던 李 사범은 협회의 눈부신 발전에 진정한 의미의 축하를 보내왔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과 기대를 갖을 것을 약속하므로서 본 협회와 결속을 다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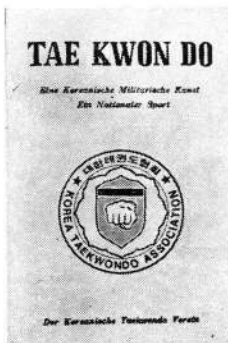
송금을 접수한 본 협회의 金 雲 龍 회장은 「1천불의 찬조금에 보답하는 것은 우리 임원진제가 단합하여 앞찬 도장을 건설하므로서 이루어질 것」 이라고 말하고 그 성의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바 있다.

## 태권도 영화 및 영·독어 「팸프리트」 제작

### 「린헨」 올림픽 참가자와 관람자 위해



(한글)



(독어)



(영어)

본 협회는 외국인에게 태권도의 올바른 소개를 위하여 영문판 「팸프리트」를 출간한데 이어, 독일어 「팸프리트」를 출간하므로서 「린헨」 올림픽에 참가자와 관람자들이 분수 있도록 지난 7월 10일 현지공판으로 보냈다.

「팸프리트」의 내용은 한국태권도의 현황과 역사등을 간결하게 소개하고 있다.

본 협회가 문화공보부의 후원을 얻어 제작완료한 35밀리 태권도영화는 품새(品勢), 태련, 격파시범등 여러 가지 태권도의 수련 모습이 실려 있다.

이들은 모두 오는 8월 16일·17일에 「린헨」시 「쉬바이징·브로이·홀」에서 열리는 태권도 시범대회에서 배부, 상영될 것이다.

#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의 태권도

## 「마릴리아」도장 창립 1주년 기념시범



〈방건모 사범〉

南美브라질의「마릴리아」에서 활약하는 방건모사범은 현지의 도장 개관 1주년을 맞아 기념시범대회를 수련생 26명이 참석하여 성대히 끝냈다는 보고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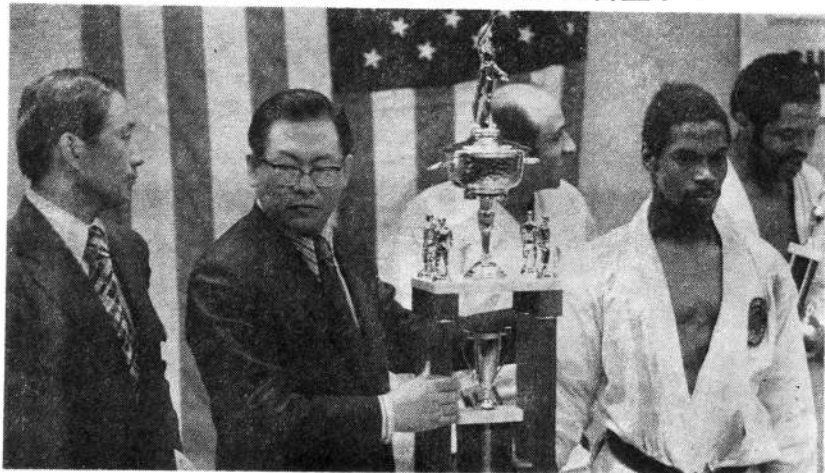
시범대회에는 현지「마릴리아」시장과 시의원, 주기경, 부대장, 학교장을 비롯한 시민 6백여명이 참석하

였고, 인접한 도시에서 이 대회를 보기 위하여 부시장이 인솔하는 30여명의 유지가 관람하므로써 대회는 더욱 활기를 띠었다.

대회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도 신문과 라디오에서는 태권도 동주국인 한국의 위치와 역사가 소개되고 있으며, 세계평화를 위한 월남참전동 한국외교장관회의에 참가할 정치외교문제를 보도하고 있다.

방건모사범은 도장개설 1년만에 민간인 편인 80명과 군인 태권병력을 지도하는등 성공적인 태권도 보급을 하고 있다.

## 미국지역 태권도 「챔피언·쉽」大會盛了!



지난 4월 미국의 「로버트·와그너」경기장에서 거행된바 있는 미국지역 태권도 「챔피언·쉽」대회 보고가 뒤 늦게 알려왔다.

보고에 의하면, 대회 우승자로 「조엘·에이스」(Joseph Hayes)씨가 4년째 연승한것으로 되어 있으며, 본 협회 金雲龍 회장이 보낸 장려상 「트로피」도 그에게 돌아갔다고 한다.

또한 이 대회에 金회장이 보낸 명예 단장과 감사장은 김인면 총영사와 「미리」미국하원의원, 「필·패슬

러」광고회사 사장, 「필·벤키」클럽회사 사장, 박보희 부회장에게 대회 주최자인 뉴욕의 「리차드 슌」(본명 全麟文)사범이 전달했다.

예선전에서 8백명의 신수가 출전하여 각축전을 벌였으며 결승전이 벌어진 마지막날에는 입주의 여지가 없는 수많은 관중이 쇄도하므로써 대회는 절정에 이르고 「미리」하원의원이 수많은 관중 앞에서 태극기를 바라보며 오늘의 한국을 설명하므로써, 뜻깊은 대회가 되어 막을 내렸다.





## 대회장인사

# 全 國

## 中·高·大學 태권도 團體戰

오늘 제10회 전국 중·고·대 태권도 단체전을 거행함에 즈음하여 이 대회가 地方에 계신 여러분들의 열의에 찬 태권도 釜山에 유치되고 작년의 성공적인 개최이후 두번째 맞는 地方大會임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전국에서 모인 200여명의 선수가 평소에 기본 역량을 거부어 함투와 모교의 명예를 높이는 「페스티벌」을 벌임으로서, 범 국민적으로 태권도에 관심을 쏟게하고 地方의 태권도 육성을 기하는 일석삼조의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국내적으로는 태권도 정신에 의한 새마을운동에 앞장 서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띠고 계시고 있으며 국외적으로는 태권도를 통한 국위선양에 이바지 하여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협회에는 10월에 완공될 태권도 중앙「센터」의 완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준공과 동시에 73년도 4월에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를 개최하여 명실 상부한 태권도 총주국의 면모를 갖추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협회는 지도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수차례 결친 지도자 교육을 실시하고, 승단 심사를 일원화하는 등 내실을 공고히 하고 외세를 맞을 준비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밖으로는 세계의 체육인이 모이는 聖都「원현」올림픽에서 본회 주위로 태권도 시범대회를 개최하는 준비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빈번한 국제경쟁의 변동에 따르는 우리의 입장은 유비무환(有備無患)의 法則에 준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해서 정부는 태권도를 안보체육의 하나로 채택하고 정규 교과과정에 삼입하는 작업을 본 협회의 기술심의회와 더불어 정리 완성시킨것은 모두가 시대적 필연성에 의한 국가적 요청에 부응하는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國民의 體力은 곧 國力과 직결되는 함수관천 이므로 우리 130만 태권도인이 일치단결 결집 때 나갈때 국력은 무한히 솟아 오르고 한국의 태권도는 세계속에 힘차게 뻗어 나갈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선수 여러분은 태권도인의 긍지를 갖고, 태권도인이 지켜야할 예의규범을 이행함으로써 枝外 精神의 「스포츠클럽」 태권도를 實證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釜山 협회장과 임원 여러분을 비롯한 전국 멀리에서 오신 임원 여러분의 健勝을 축원하면서 인사를 가름하는 바입니다.

1972년 7월 14일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김 훈 용

# 全國中·高·大學 태권도 團體戰 評

기술심의회 부의장 **홍 증 수**

釜山九德체육관에서 7월 14, 15, 16일 3일간에 걸쳐 벌어진 제10회 전국 중, 고, 대학 단체대항전은 분투하는 선수와 내외의 성원속에 무사히 막을 내렸다.

이는 대회를 주최한 부산태권도협회의 성의있고 세심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중앙에서 열렸던 어떤 경기에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대회운영이 있음에 감사드리라는 바이다.

협회측은 대회개막을 앞둔 7월 12, 13일 양일간에 걸쳐 일선 지도자 사범의 자진 향상과 격조높은 인격정립을 위한 강습회를 가졌다. 이 강습회는 항상 중앙에서 실시함으로써 겪는 길거리 지방지도자의 불편을 덜기 위한 방편으로 실시된 것이고, 태권도라는 격렬한 무기 경기를 치르므로서 발생하는 불상사들을 대비한 고단(高段)지도자의 상호이해와 단결을 겸한 전초강습이라고 볼수있다.

이번 강습회에 참석하였던 강습생들의 태도는 매우 열의에 찬 것이었고 질서있던 수감태도는 이번 대회를 성공리에 끝낼수 있다는 확신을 예상 할만한 것이었다.

대회가 시작되고, 중등부 7개「팀」과 고등부 15개팀, 대학부 5개팀은 자율을 거두는 불꽃튀는 격돌이 시작되었고 대통령기단체전에서 이미 금년도의 실력판별이 표출(表出)된 예상대로 경기는 무르익었다.

중등부 경기와 고등부의 무경기는 서울 광성과 인천 동산의 선두부대로서 시작되어 결국은 중등부에서 인천 동산중이 우승하고 고등부는 서울 광성고가 이겼으나, 두팀의 박중지세는 우열을 가분하기 더욱 어려운 것이어서 대회년의 선수「권리선」 혹은 대회의 운으로 지고 이기는 러 이므로「제임」도 매우 「액사이프」하였다.

그러나 두팀이 격돌할때마다 본부임원들의 서신을 끄는것은 선수들의 묘기에도 있었으나 「벤치」를 지키는 동산의 황 대진 사범과 광성의 고 의민 사범의 작전에 흥미를 갖는 것이다.

무사범은 인천과 서울을 대표할만한 역전의 명「코치」로서 경기「스케줄」이 짜이기가 무섭게 상대의 선수를 자기 선수들 뜻지않게 연구하여 포석(布石)하는 선수기용의 묘는 매우 흥미로운 싸움이다.

동산고에는 71년도 최우수선수로 명성을 떨친 이 철

우 선수가 있어 믿음직스러우나 광성고에는 약관의 명장 손태환 선수와 같은 「킬러」가 있어 만만치 않은 것이다.

이 대회에 행운을 잡은 광성고는 동산고를 이긴 승리의 도취보다 대통령기정발전의 고등부 우승팀 남산공원이 불참한 경기의 우승임에 자중이 있어야 마땅하고 전년의 실욕을 위한 명렬한 수련을 더 쌓아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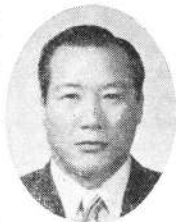
그리고 대회때마다 선전분투하면서도 빚을 못보는 서울장준고임은, 짧은 출전력(出戰歷)의 「헛디젤」에서 오는 역부족임을 명심하고, 이번 대회의 장려상을 건뭉을 쌓는 초석(礎石)으로 삼아야겠다.

한편 대학부에서는 대통령기정발전의 우승팀인 성균관대가 고른 실력을 보여 연승의 영예를 찾아왔고, 향상된 「매너」로 선전 2위만 명지대는 지난 대회때의 불성실한 「제임」운영의 수치를 씻는데 무드러진 노력의 흔적이 보였음은 반가운 일이었다.

이 대회를 통하여 새삼스러운 일은 연세대의 출전이었고, 대통령기 정발전때 서울대가 보여준바 있는 깨끗하고 차분한 경기「매너」를 이번 대회에서는 연세대가 보여주므로서 신에팀의 출전에 기대를 모으게하고 관계자들을 기쁘게하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팀」구성 1년의 초년병 연세대에게 장려상이 주어질 것도 이책로운 일이 거니와 71년도 예비급 「참모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서 문원 선수가 있는 고려대의 패배 또한 이번(異變)이라 하겠다.

부산에서 대회유치가 2회로 거듭되는 동안 부산선수들의 날아등고 예리한 공격기(攻擊技)는 서울선수들의 독주(獨走)를 막을 만큼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무기 경기의 생명이라 할수있는 「라이빙」이 있어 73년도 대회는 부산에 유리한 전망이다. 이 대회가 지방선수 각출과 보급에 주목적이 있을진대 그들 선수의 성장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닐수 없다. 끝으로 학생들만의 깨끗한 경기를 볼수 있었음은 유쾌한 일이었다♣



기술심의회 부의장 홍 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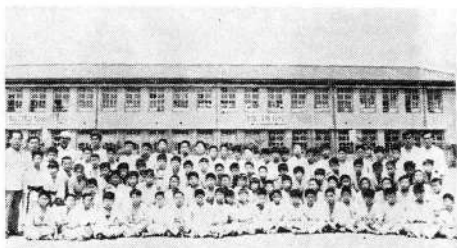
## 1인 1기 교육으로 태권도를!

—공덕 국민 학교—

국민의 성원과 정부의 후원을 얻어 날로 성장하는 태권도의 보급은, 내일의 이 나라 주인이 될 어린이들에게 크게 「불」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그 전망은 더욱 밝아져 가고 있다.

서울마포에 있는 공덕국민학교의 경우는 교장과 교감선생의 폭넓은 이해와 조 현중 교사의 적극적인 뒷받침으로, 태권도가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一人一技교육으로 특별활동시간에 태권도를 익히게 하는 공덕국민학교는 국내 태권도「불」이 최초로 달았던 2년전에 창설을 했고, 노 영열 사범이 열심히 지도를 함으로써 유단자수는 90여명을 헤아리게 되었고, 총 수련인 2백 3십명이라는 데 태권도 가족을 확보했다.

지난 72년 6월 11일 공덕국민학교 교정에서 5천여명의 학부모와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벌어진 연무시범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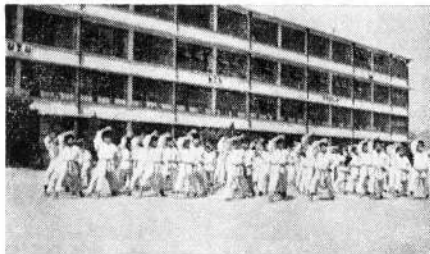


학부원들에게 태권도인식을 높여주고, 태권도를 배우는 학생수가 늘어나는데 전환점이 된 바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초창기에 겪는 진통으로 학부모나 학교측의 무관심을 들수 있으나, 이제 공덕국민학교측의 협조와 학부모의 성원으로 밝은 전망이 기대되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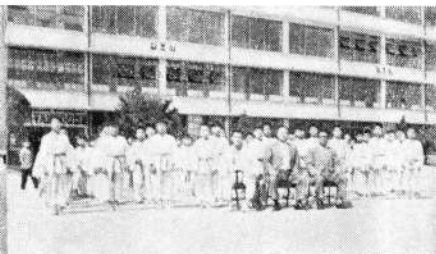
## 창설 1년만에 유단자 50명!

—동명 국민 학교—



2백여명의 태권도 수련생이 질서정연히 지도를 받고 있는 서울마장동의 동명국민학교 교정은 온통 진도부드러운 물결이 용솨솨치고 있다.

매일 2시간씩, 이들 어린이의 수련을 지도하는 김성재 사범은 고사리 손에 굳은 살이 생기고 기합소리가 영그는 성장훈을 보는것에 온갖 보람을 느끼며 5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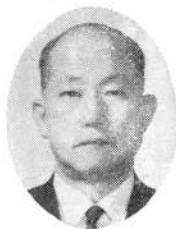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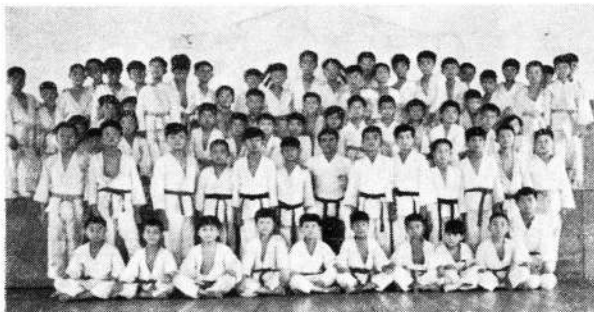
의 유단자가 대견스러울 뿐이다.

결과와 성을 다한 김성재사범의 노력은 1년만에 학교에 버금가는 실력으로 울려 울었다.

이 익승 교장의 태권도 관심이 높아짐에따라 더욱 많은 수련생이 확보될 전망은 뚜렷해지고 있다.

# 태권도의 기린아 출현을 기대 !

—미 동 국 민 학 교—



김 동 옥 교장

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미동국민학교는 개교이래로 수많은 체육인을 배출한 체육의 명문교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태권도부가 발족한 것은 불과 1년전의 일로서 아직도 유아기의 형태를 못벗어나고 있는 실정 이지만 다른 부를 알서는 빠른 성장을 보이므로서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방 서흥 사범이 처음 미동국민학교를 맡았을때 과연 다문학교를 처럼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몹시 우려 했으나, 짧은 기간동안에 2년 5살명의 수련생과 60명

의 유단자를 확보하므로써 체육 명문교의 자리에 힘입은 바 큰 것이다.

또한 김 동옥 교장과 이 상문 교장의 관심이 없으서 는 급성장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방 서흥 사범의 설명이요 보면, 태권도인의 저변확대를 위해 힘써준 두분의 노고에 감사를 보내야 하겠다.

불과 1년의 기간에 대성장을 보인 미동국민학교의 태권도는 다른 종목에 기린아를 배출한 전통을 본받아 보다 힘차게 자랄 것이다.

<독자의 詩>

## 하 안 숲

### 정 경 애

나는  
 폐기에 넘치는 젊음의 밀림 속에  
 내 힘을 발산시킨다.  
 끊임없이.....  
 내 몸과 마음은 무엇을 목적으로  
 단련 시키는 가는.....  
 가슴 깊이 새긴 신념과 긍지로 영여진  
 나의 꿈만이 알고 있어라.  
 내 조국이 담긴 둥근 세계는

내 사랑하는 부모형제가 사는 가정은  
 내 고향과 경다운 친구가 숨쉬는 나라는  
 나의 힘과 젊음을 원하는 것이다.

× ×

하루의 일과 속에  
 속명처럼 찾아오는 하얀 숲이여 !  
 우렁찬 기합소리에  
 나의 책임과 의무와  
 맑과 희망이 불끈 솟는다.





## 椰子樹 위의 人生

金娜美

모든 생물은 종족(種族)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은 하나 일생을 통하여 여러 시기를 나누어 가지고 있다.

몇 백년씩 산다는 거목과 하루살이의 비교는 차라리 그 대조가 어리석게 보여진다. 인간의 수명도 과거에 비하여 오늘날 문명한 사회에서는 커다란 연장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 문제는 능력이 있다든가 없다는 문제와는 조금도 관계가 없는 것이다.

젊다는 것, 힘이 있다는 것, 그래서 젊음의 능력을 최대한도 발휘 할수 있다는 것은 생각만 하여도 우리에게 호뭇함을 안겨 준다.

창경원의 늙고 초라한 사자는 그 자신이 최독물을 잡아서 죽일수 있는 나이에나 혹은 다른 짐승들과 겨루어 그들을 제압 할 수 있을 때에는 많은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노쇠하여져서 체력이 쇠약한 늙은 사자는 이미 그의 생애(生涯)는 끝나가고 있고 껍데기만이 습관에 따라 움직임을 유지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그래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젊은 시절의 그 야망이나 투쟁력, 호기(虎氣)에 대한 안타까운 추억만을 불러 일으켜 줄 뿐, 그의 젊은 날의 명에는 되찾을 걸 없는 것이다.

우리를 인생에서도 가을이란 언제 타칠지 예측 할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정신도 육체와 같이 단련이 필요하다. 육량을 잃지 않는 정신력이 필요한 것이다.

일하려는 욕망은 젊음이 만의 특권인 것이다. 노년이란 육체의 쇠약이 아니고 젊은이들에게 이미 빼앗겨 버린 욕망의 상실이다.

그러므로 청년은 그 힘을 상징한다. 옛날부터 전통(傳統)된 힘은 어떠한 지혜(智慧)보다도 가치가 있다고 하였지만, 그러나 이 힘도 항상 젊어 있을 수는 없다. 힘이 노쇠하여지면 늙은 사자와도 같이 우리는 자기의 불명예를 감추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권지도 많은 우리 인생에 힘이 있는 시기는 또 극히 짧다. 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며 정면으로 그에 도전하여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승부는 판가름 되어지는 것이다.

임어당(林語堂)은 그의 수필에서 「人類의 歷史는 언 날리기와도 같다. 때로는 順風을 만나서 줄을 길게 풀어 주어서 눈이 떠졌다가 갑자기 모진 바람이 불게 되면 연줄을 주러서 낮게 날리고 그러다가는 조금 失手로 연줄이 나무가지에 걸려 버리듯 한다」라고 썼다. 이 말은 행복의 최고봉에 도달하기란 힘든 일이며 이런 생각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업적 또한 위대하다 아니 할 수 없다.

사람들은 젊은시절에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다.

「슈베르트」, 「베토펜」 같은 악성(樂興)들이 젊은나이에 위대한 곡들을 작곡했으며 많은 젊은 작가와 화가, 정치가들, 영웅들이 젊은 시대에 나왔던 것이다. 그들은 젊음이 주는 크나 큰 힘으로 그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발자크」, 「레미」같은 문학가들이 노년기에도 많은 완숙한 작품을 썼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노년기에 보다는 청년기에 많은 사람들이 보다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도 이 젊은 힘을 그대로야 보낼수가 없지 않은가? 무슨 일에는 내 자신을 소용되게 하고 싶다. 그러므로 자기가 맡은 일, 자기에게 맡겨진 일부터 힘이 자라는데 까지 다하는 생활철학을 가져야 할 것이다. 불란서의 작가 「앙드레·모오르」는 현실의 비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남양(南洋)의 어떤 섬에서 사는 토인은 노인을 야자수(椰子樹)에 올라가게 하고 밑에서 흔든다. 만일 노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는 살 권리를 얻는 것이며, 떨어지면 재판에 붙여서 판결은 즉시로 집행되는 것이다.」

이 습관은 정말 아담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도 이 야자수는 있는 것이다. 연설, 강연, 또는 운동장에서 경기나 축구 야자수이며 이에따라 사람들은 경기가던지, 작가던지, 선수들한테 「그는 이제 물렸다」라는 판결을 하는 것이다. 이 현실의 야자수 위에서 우리가 할말을 찾자. 우리가 얼마만 한 성공을 거두었거나 많은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내 最大의 努力을 다 했다」는 말을 몇몇이 할수 있어야 한다. ❀



# 少率將軍李澄玉

김 태 준

김 종서(金宗瑞)는 세종대왕께 충성을 받치다가 수양대군의 역모(逆謀)때 참혹한 죽음을 당한 충신으로, 여진족(女眞族)의 발호를 진압평정하고 육진(六鎭)을 개척한 명장으로 잘 알려진 사람이다.

그러나 김 종서와 함께 대양의 총애와 신임이 두터웠고 김 종서의 뒤를 이어 북도절도사(北道節度使)를 지낸, 소년장군 이 정옥(李澄玉)의 이야기는 잘 알려지지 않았기에 그의 이야기를 적어 보기로 한다.

× ×

때는 세종말년

이 정옥(李澄玉)은 일찍이 아버지를 여고(幼)형 정석(澄石)과 함께 흠여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두형제는 굉장한 장사로 소문이 자자 했으나, 아우 정옥이 더욱 뛰어난 무용(武勇)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특히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여 어머니가 원하는 일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기필코 하여 드렸고, 어머니는 두 아들의 효심을 보는 것으로 낙을 삼고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정석이 17세, 정옥이 14세 때 어느날, 「너희를 누구든지 산채로 죽이지 말고 산채로 잡아 가지고 울수가 있겠느냐?」고 어머니는 두 아들에게 물어 보았다.

제 아무리 힘이 강사라 할지라도 사나운 맹수를 산채로 잡는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더우기 어린 소년들로서 더욱 곤란한 일이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원하는 일을 못하겠다고 해본적이 없는 두 형제는 「어머니가 원하신다면 그러면 흠이야 못해드리겠습니까?」라고 자신있게 말을 하고, 아침일찍 활을 메고 말에 올라 산으로 달려갔다.

두 형제는 산속에서 서로 헤어져 산채지를 찾았다. 먼저 정석이 산채지를 발견하고, 사력을 다해 걸주하는 맹수를 쫓아가 보았으나 그것을 생포하는 일은 불가능 하였다.

그래서 그날 저녁때 활을 쏘아 잡은채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으나, 정옥은 그날도 그 이튿날도 집으로 돌아 오지 않는 것이었다.

어머니와 정석은 매우 걱정되었다. 아무리 용맹이 건투한 정옥이기는 하나 혹 실수를 하여 산중에서 고생을 하거나 잃어 버린다고 걱정되었다.

정옥은 그 이튿날 저녁때 해가 넘어 가려 할때쯤하여 빈손으로 안마당에 들어서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매우 반가웠다. 아무리 빈손으로 왔으나 아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 만으로도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나 그렇듯 무용이 절한 정옥이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 온것이 궁급하여 「남들이 네 용력(勇力)이 네 형보다 뛰어나다고 하는데 네 형은 그날도 산채지 한마리를 활로 쏘아 잡아가지고 왔는데 너는 이튿날이 무고서 빈손으로 돌아 왔으니 어쩌면 일이나,」하고 물으니 정옥은 빙긋이 웃으며 「어머니 말씀이 궤이치 않사오나 대문 밖으로 나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하였다. 그래서 어머니는 정옥이 말대로 대문 밖으로 나가보니 집채같은 산채지 한마리가 바깥 마당에 자빠져 혈맥이 고 있는 것이었다.

「죽여서 잡아 올렸던 그날 점심때엔 잡아 울수도 있었겠지만 산중으로 잡아 오라는 말씀이 제것기에 이렇게 늦었습니다.」하고 정옥은 자기 어머니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만족한 웃음을 웃었다.

「그대 어떻게 산채로 잡아가지고 왔단 말이나?」하고 어머니가 물으니 정옥이는 다음같이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날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서 응달하게 생긴 산채지 한마리를 만났다.

그러나 활로 쏘고 주먹으로 때려 죽이자면 단번에 잡을 수가 있었으나 산채로 잡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환한번 오지 않고 그놈을 쫓아서 이리물고 저리물아 밤낮 산을 넘고 물을 건너기 이틀만에 기진맥진한 그놈을 집으로 물고 온것이다. 그래서 밖에 붙여져 있는 산채지는 혈맥뻑뻑 숨을 쉬고 있으나 일어설

기력도 없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 마음은 매우 민중하였다. 불과 14살의 어린 소년이 육중한 산돼지를 생포하여 가지고 올 줄은 몰랐던 것이다.

남편이 돌아가고 슬하의 아들형제가 유일한 낙이며 자랑으로서 사랑스러운 나머지 농담삼아 할 것만 같아 어찌 실천한 아들의 기상이 한 없이 대단스러울 뿐이었다.

그리고 그 어느때이던가는 정옥이 불일이 있어서 경상도 김해(金海)에 갔던 때의 일이다.

그는 말을 타고 어느 산골 고개를 넘으며 한쪽에 어딘 소부(少婦)가 고개 등턱에 앉아 슬피 울고있는 것이었다. 정옥은 가던 길을 멈추고 말 위에서 「부인은 누구시온데 왜 그리 슬피울고 계시오?」라고 물었다.

「저의 남편을 호랑이가 물어 저 산골로 올라 갔읍니다.」하는 것이었다.

정옥은 이 소부의 말을 듣고 소나무가 우거진 산속으로 깊숙히 들어가 보니 커다란 바위 밑에 병호 한마리가 사람을 물어 먹고 있는 것이었다.

그때서 그는 급히 말에서 뛰어내려 두 팔을 걸어서 쫓고 병호 앞으로 풍우(興雨)같이 대들어 달려드는 병호의 머리를 「야잇」하는 기압소리와 함께 무쇠 같은

주먹으로 때려치고, 허공을 나르며 말로 목덜미를 지르니 병호는 산이 떠나가도록 포호(咆哮)하더니 사지들 쭉 펴고 죽어 버렸다. 그래서 배를 갈라고 그 뼈대끼 먹던 사람의 뼈를 고르고 호피(虎皮)까지 벗겨서 그 소부에게 주었던 것이다.

정옥의 뛰어난 용맹과 단력은 이것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넉넉히 추후할수가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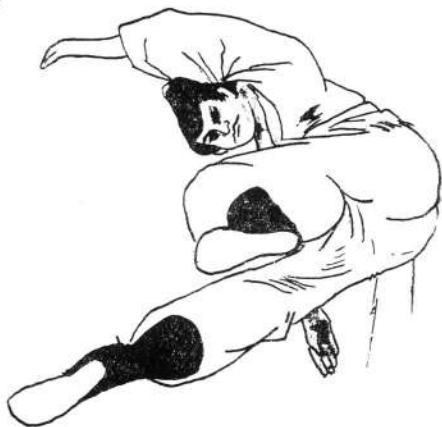
× ×

그후 정옥이 18세가 되어 무과(武科)에 장원급제하여 김 중서와 더불어 육진(六鎭)을 평정하고 개척하는 데 전공(戰功)이 많았다. 그래서 김 중서가 전공을 세우고 서울로 올라와서 세종대왕에게 봉단하여 경계진수(境界鎭守)의 중임을 맡기었다.

나이 어린 정옥은 오직 대왕의 은총과 김 중서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면담치적은 날로 그 명성이 높아 갔고, 또다시 북도원도사가 되었다. 북도원도사라면 함경도의 국방군권(國防軍權)에 절대 권한을 부여 받는다. 소년장군으로서 이만한 군권을 가지고 군림하게 되었으니 나라에 대한 은총에 감응하고 자기는 생명이 붙어 있을 때까지 이 나라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려 마음을 굳게 가졌다.

× ×

이 정옥은 노력할만 일심는 여진 오랑캐들을 평정하





는데 있어서 무력으로 위압하는 것이 아니라 대왕의  
이진 뜻을 받들어 왕화(王化)를 그들에게 일터려 하였  
다. 그래서 왕화에 감복하여 귀화하는 여진족은 그 수  
를 헤아릴수 없이 많았으며, 귀화한 者 가운데 말 잘  
타고 활 잘 쏘는 사람을 뽑아 三千의 정예를 만들어 북  
방의 적재처소에 배치하니 변방에 대한 근심은 없어지  
고 태평연월이 계속되었다.

× ×

기원일이 있으면 슬픈일도 오는 것인가, 이 정옥을  
그 처럼 아껴 온종일 주시던 세종대왕이 붕어하시고  
물종대왕이 대몽을 이은후 불과 2년만에 돌아 가시고  
어리신 단종대왕이 정몽을 이으셨다. 그러나 단종대왕  
의 숙부가 되는 수양대군(首陽大君)이 어린조카 단종  
대왕을 물리치고 왕위에 오르므로 가진 참혹한 것을  
기침없이 계속해왔다.

수양대군은 제일먼저 노강군 김 증서를 철퇴로 무참  
하게 타살하고 무죄한 선왕의 충신을 학살하여 나갔다.

나라의 정세가 위급해서 무고한 충신을 학살, 더구나  
자기의 상관 김 증서마저 참혹한 죽음과 민문의 화  
를 단하데, 이 정옥은 극도로 적분하여 군대를 물고,  
서울로 올라와 뽀뽀를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나 선조  
(先朝)때의 충신들은 모두 죽어가고 수양대군을 따르  
는 무리만 득실거리는 이때에 누구를 위해 울바로 감

아 울을 것인가, 벌써 시기가 늦었다고 생각이 들었  
다. 그렇다면 수양대군의 사람이 되기는 차라리 죽는  
것 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할까. 예라! 남  
아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나는 나대로—」

그는 칼을 절고 숲루(茂樓)에 올라 북쪽의 넓은 평  
야를 바라보고 오랑캐를 정복하여 새나라를 이룩하기  
로 마음을 먹고 통패한 웃음을 웃어 보였다.

그리고 다음날 군사를 이끌고 도강북진(渡江北進)하  
려는 동군령(動軍令)을 내렸다. 계획은 실로 어마어마  
하였고 건국의 대제가 이루어지려는 찰라였다.

그러나 세상의 일은 마음대로 순탄히 이루어 지기는  
어려운일.

이 정옥의 만인부당지용(萬人不當之勇)이 꺾이났던  
수양대군은 신야를 이용하여 무명의 심복 역사(力士)  
를 감입시켜 감이 든 이 정옥의 어깨를 장점으로 내려  
치니 어깨가 멀어지 나갔다.

「억!」

칼이 잡이 들었던 이 정옥은 칼을 맞고 밀려 일어났  
다. 그리고 역사의 손에 뒤엎던 장검을 셋이가지고 무  
역사를 한칼에 빼어 버렸다.

그리고 좌우의 수백명을 모조리 격살하였으나, 사람  
에서 날아드는 화살에 24세의 젊은 나이로 용지(雄志)  
를 격멸 사이없이 마침내 애석한 최후를 마쳤다❀

# 태권도의 敎本!



—〈 11月 발매예정 〉—

130만 跆拳道人의 師範

대한태권도협회 기술심의회 편찬

이종환 신관홍 한인수 이종근  
 천상철 김승진 고종서 김지상  
 양승재 천창운 김태진 김병주  
 손원일 이성호 조교현 윤기용  
 강종길 안영진 박창해 김 경  
 윤현구 백원석 김동걸 박용덕  
 권순우 서명석 한수철 정영기  
 황병준 이승복 원종서 성노동  
 김상필 문 어 장상훈 전영림  
 김승태 임관철 김인호 김재문  
 정안태 한홍현 정시태 조지환  
 김현서 김주현 한상후 김종수  
 이기홍 전홍서 경익수 이경재  
 조동호 박상훈 이상운 차동진  
 박병욱 황계영 김상훈 나찬영  
 김상진 하재훈 김영태 신윤성  
 김태연 이영재 이용운 남성우  
 김준기 권복학 김동찬 김정진  
 이두훈 이규섭 김동우 김기광  
 김진만 이상문 이정수 이순제  
 이지호 김종태 김유용 김우영  
 진영수 김태섭 이종윤 한강석  
 조우영 김택진 이상우 조영재  
 박명환 한대연 안병탁 김종훈  
 안병기 이병주 홍외수 김기덕  
 지성휘 이종진 김준범 공훈수  
 양한석 장 홍 권유택 최민식  
 정진화 홍태봉 김영집 김인철  
 서재현 김용철 임용진 인덕수  
 이병구 임기선 이정진 봉명수  
 염준덕 봉길수 박동석 박영기  
 김익식 권혁희 김정태 이경진  
 이현수 이영범 김상규 장재용  
 왕희용 조상욱 김승희 김경호  
 이원종 권 민 백상기 백춘기  
 이종삼 김종철 김재경 한승수  
 이 철 최현국 민병구 윤형근  
 허강주 정원교 김한수 원영덕  
 권혁수 황인갑 주백규 신영철  
 김영덕 최성식 정승우 김성진  
 정우교 오명환 윤기원 권혁진  
 이일형 김홍기 김민수 신봉근  
 엄영희 지효종 김주영 정재균  
 윤 규 김희명 백기창 윤태현

조휘희 김병환 안병세 방호탁  
 전태숙 황명숙 임동열 김영국  
 윤진선 노재록 김용일 이신복  
 김호진 김명학 이정남 김석찬  
 엄재관 박인관 김광수 박현목  
 이정원 신재성 조덕희 최동수  
 박기재 공인배 김운성 이진구  
 이성규 조경옥 김태영 김태준  
 김태용 김덕만 김석주 신현만  
 박성복

**初段 · 경기 (72. 6. 11)**

명승호 한준희 김지용 명덕호  
 박익범 이천수 전원철 김주태  
 최이현 안수일 유한근 고철우  
 박성호 정연진 이인수 한국진  
 한국남 이금도 최희좌 김광섭  
 김현기 김상현 최민욱 박병열  
 최규억 유석근 어영만 남기영  
 한창수 장윤규 정재익 박문섭  
 정형근 차석봉

**初段 · 경남 (72. 6. 11)**

윤대진 조영실 임광수 임용욱  
 변인열 엄준현 김인태 황문호  
 강동호 허선필 허용석 한인선  
 천기삼 김용만 강기현 이현태  
 이흥재 김경태 구자만 김요성  
 임종환 이진후 조태호 장남극  
 유경석 주재현 조현택 성보경  
 서운태

**初段 · 전북 (72. 7. 2)**

이광은 김익상 정삼만 양태진  
 최원화 허영복 송영수 김종화  
 김만년 파흥옥 최재문 정 철  
 김정출 오종택 강동모 김광원  
 장윤용 박동운 강석한 이근희

**初段 · 충북 (72. 7. 2)**

박재용 윤현희 유진상 박은호  
 이상현 장경우 엄장수 박영배  
 이광현 괴광석 지용택 김병현  
 최윤성

**初段 · 충남 (72. 7. 9)**

박종민 방권선 손제강 최병근  
 이재구 김수덕 이학운 이승우  
 김광익

**初段 · 전남 (72. 9. 10)**

양락진 김영식 차은석 송동식  
 염문열 윤세영 안남형 박병현  
 임경운 이명구 임효성 김영학  
 김성현 배석인 배석어 강효성  
 손영석 황화영 김태현 정연관  
 이길범 김영걸 임석현 구영수  
 이영철 정정만 이계현 최정섭  
 최두섭 이상선 최영기 김영남  
 조종현 정연관 김창영 조범용  
 유효경 이정식 김현영 장희관  
 백기훈 김용연 나병진 우승식  
 광상수 이승호 박종현 박 현  
 구남종 서정식 김종욱 최문형  
 최성민 김박용 김창수

**初段 · 강원 (72. 7. 20)**

박정진 홍형만 김종현 최종만  
 이훈극 문재선 김 응 정금석  
 공남필 조병수 안성모 송하동

**初段 · 충북 (72. 7. 23)**

현순호 원원석 윤병국 이문영  
 정원경 김근식 김연성 김석구  
 이재욱 하종호 한장환 한정관  
 이창우 연호흠 이 용 이인욱  
 이도섭

**初段 · 강원 (72. 7. 23)**

윤진경 이한기 배재권 신창호  
 이명걸 박종만 이동진 최천수  
 이명성 백선훈 채병권 유형근

**初段 · 서울 (72. 7. 30)**

최덕진 이석현 김재권 전용근  
 김만영 이길준 김봉석 김치영  
 진천명 최성진 이 화 성백영  
 송환기 성재경 전용기 성백문  
 김기선 박태식 김익환 김성호  
 김동근 송상현 유근철 하서광  
 유봉영 서경원 김진호 김남훈  
 이인수 안경호 조동수 이희석  
 오상욱 강성호 유종열 윤용배  
 최병영 남정훈 박보린 노경민  
 탁만홍 한승덕 성은모 백창현  
 유용섭 진승복 진승일 한규석  
 백오현 장 욱 이일영  
 이호현

# 제48회 審査

## 〈一般部〉

### 初段・서울 (72. 4. 16)

이형운	류용진	위성원	전영국
박조열	김기태	정화순	성노현
권규철	김성규	정영백	김중식
김영일	김 준	여동규	박경수
신기남	노병수	이창휘	오세단
김성원	이윤구	한현규	김기태
강학준	임종욱	고종근	안병국
신현호	이윤수	서정걸	이종훈
신봉구	임성근	송원빈	이미훈
박병구	백정규	정민국	이정만
박용현	박명호	박기동	이경창
장경철	황인선	김기석	김태현
이재경	김영훈	김태형	류영수
김옥현	이승규	조동훈	박신우
이종찬	김진호	진주배	이종혁
송만기	김인배	김시중	박민관
정영태	이영환	장성학	박상록
김광일	이기복	윤희선	지성복
심제대	손오균	박상희	
조성동	송준삼	김동영	김현배
이병제	희병문	김중성	조병현
권오복	안광열	이정규	한창호
김현권	이명수	정광열	박기석
김영식	김철영	주양선	김기욱
류근홍	김주열	양종선	심태봉
문종현	강장기	강광희	오홍준
김종식	홍용기	이기철	조남훈
주상석	최홍섭	윤학도	공재학
안은수	한사열	이재용	최영환
최영만	강태원	윤유한	김창기
김태산	김세찬	고용우	공만철
임종열	박노규	유재걸	정영수
김종인	임원교	오기웅	이유봉
조병호	최원성	장성호	김학제
황건영	정연대	전태원	장도순
임석순	박수창	현영남	이창운
김태순	김태철	조성남	임영호
김영서	정태용	박성원	정제국
김훈기	정윤섭	장필기	이봉근

정재득	서명실	곽익석	황승주
박경준	박춘근	김종남	송원근
김희선	조효동	강성수	이병호
최태용	김용걸	전대기	김원환
양근식	김명호	한상문	고재규
이여향	최미자	최정숙	민정숙
신명철	배용경	김준자	김태만
류신희	김미애	박상희	

MICHAEL TAMES GNAEGY  
RICHARDSON WILLIAM

민병일	백종근	최종윤	박갑용
이재홍	안철상	문병철	김상준
김경환	오동섭	정성수	조재우
송효식	심환중	김은각	김은우
김철문	이명희	김기중	강홍원
박상오	장덕희	조호진	정용식
이병준	오창수	지찬호	권오운
김용한	나천식	추연택	이경성
한대주	강준호	변우홍	오선두
김영철	정용교	박종섭	장찬규
권오병	최병섭	이종범	김동만
김인철	손성준	백승신	김도연
김용수	정문화	박종부	채규철
한기진	이용출	유석중	김완선
황수일	김강석	최종태	이기수
하광주	조종찬	현영숙	이광성
송영우	김승치	김진철	김웅기
김원남	정병화	최대창	최돈열
함종도	최복교	김진갑	권오직
김득선	장동현	김효일	장용석
김보연	이오형	장종수	이일호
천명태	오정훈	김은신	최진호
임운상	이용상	김승연	장사성
박상우	주영현	김태수	전수배
이계호	장원식	최희성	유현상
김명도	김현수	서남률	서제원
고성선	지영준	양이모	이호섭
정양구	최승일	권승민	권오성
최외규	제충근	조홍석	손병주
황서호	김명준	전영수	지동여
신석순	김희자	정영택	김은동
이성동	김준식	전승규	김대용
전철호	박원준	이치제	김규원
홍종준	김동석	김태희	이봉규
김규원	강인필	김창용	전진상

박광일	김성하	류영숙	류윤상
석균호	석균일	김영택	원영복
박정성	박창성	이원형	최준철
이원희	김규성	신동원	최기홍
황일선	원옥희	이영수	박무원
박종찬	김종운	신상악	이걸용
최상화	현정민	정봉용	노인진
한성희	곽명숙	박상주	김갑철
최순남	채은경	주영진	권신경
이종석	성기두	김홍태	김기환
김정수	차제원	이순우	백은철
김동훈	김학규	최현식	최광근
조영호	김지용	이명숙	김진모
이훈수	이석구	김용수	김영한
김선홍	이은걸	천연우	김희재
허인욱	박승태	서정석	박병희
강기학	정두찬	현길원	박영진
이준식	고재오	강대국	김호석
남 시	김홍영	김태훈	임재술
이사득	이 경	오 영	정의환
김진중	오학관	박명근	김일형
천인권	박동일	이석희	김정우
김승중	이병호	홍호선	노찬근
배홍수	이성열	강택상	박성근
이인희	조영태	박장호	

### 初段・경기 (72. 5. 6)

현현길	허 진	이기선	은강석
정대승	한경석	권영내	김원호
맹덕인	오윤성	윤상익	최태운
안찬철	임병현	손기진	김희진
임재동	이선평	이영원	이영원
윤원홍	조병식	이상규	이명철
박동선	이내환	서옥택	최태운
김동규	최 철	홍선기	윤호중
이용운	방문수	정윤봉	박규준
송제호	박근근	김성수	이광래
장성빈	고희종	조동국	한기현
주익환	주봉진	송병범	오동일
이강준	송덕규	이영은	남윤규
김홍경	유유수	전경수	김태경
김학룡	이영식	조세현	황규감
김용주	조대찬	박은국	류옥자
안상국	유영복	윤요용	이병화
이주호	김선호	최희성	성기홍
윤호근	왕선정	최인철	신영운

# 태권도 교실

TAE KWON DO ILLUSTRATED



담당 이 종 우

그 동안 연재되어 절찬을 받은 바 있는 유급자의 품세(型)는 이번호로 모두 끝났다.

다음호 부터는 고단자를 초빙하여 제작한 유단자의 품세가 계속 연재 된다.

이 『태권도 교실』은 국내의 독자는 물론 외국인 독자들도 함께 읽으며 배울 수 있도록 영문을 삽입하고, 생생한 전달을 위해 사진을 싣고, 진행선과 발의 움직임을 상세히 표시함으로써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익히도록 신중한 검토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게재하여 왔다.

이번호(105페이지)에는 용어의 해설을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많은 독자의 요청에 호응하였고, 앞으로도 기술상의 의문이 있거나 용어에 이해가 모호한 것은 협회로 직접 문의하면 그 때마다 상세한 해설을 해드릴 생각이다.

연재를 해오는 동안 몇몇 독자는 사진의 품세와 설명이 다소 차이가 있다는 평(評)을 하여 왔으나, 그러한 대부분의 경우는, 공격 목표가 가슴인데 얼굴에 주먹이 올라가 있다거나 설명문보다 무름이 더 굵어 있다는 정도의 차이를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 점은 사진효과에서 오는 오차(誤差)로 생각하면 거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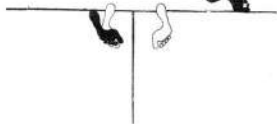
앞으로 연재될 유단자 품세를 읽는 분에게는 柳根碩 교수가 집필하고 계신 격조 높은 「컬럼」을 함께 읽어 가며 과학적인 수련방법을 연구하여 보도록 권고하는 바이다.

끝으로 본란의 영문해설을 손수 집필해 주신 金雲龍 회장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유급자 품세 제작에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임 창수, 신 동규 사범의 노고에 깊은 감사로 보내는 바이다.

- 연무 표준시간
- 연무 동작수~35동작



준비 ~ 나란히 서기 (편이서기)



### 제 1 동작

- 왼발을 "다1" 방향으로 옮겨
- 왼 앞굽이로
- 왼 바깥 팔뚝 아래막기

#### 1st action:

- Move the left foot toward "L-1,"
- Take a forward stance,
- Execute a low block with the left outer wrist.



### 제 2 동작

- 시선과 오른발 그대로 왼 발을 약간 끌어
- 어깨 넓이로 무릎을 펴 서면서
- 왼 손목을 틀어 빼며 몸앞으로 원을 그려 머리 위로 부터 왼 뺨주먹 내려치기 ("다1"방향)  
※ 1. 때린 주먹의 높이는 어깨 높이  
2. 발의 모양은 뒷굽이를 무릎을 펴 선 모양.

#### 2nd action:

- Draw in the left foot a little without moving your eyes and the right foot,
- Stand keeping the knees apart as wide as the shoulders,
- Twist out the left wrist and draw a circle then execute a downward strike with the left fist from the top of the head (toward "L-2").  
\* The punched fist at the height of the shoulders.  
\*\* Foot stance like a back stance with straight kne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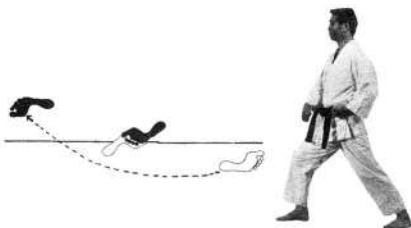


### 제 3 동작

- 오른발이 한걸음 나가
- 오른 앞굽이로 ("다1" 방향)  
오른 주먹 뒤통 반대 지르기

#### 3rd action:

- Take a right foot step forward,
- Take a forward stance (toward "L-1"),
- Execute an opposite middle punch with the right f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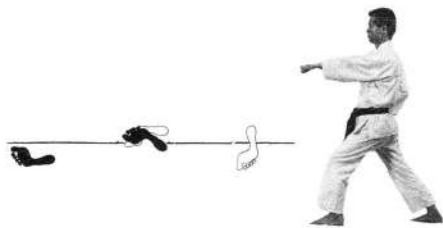


#### 제 4 동작

1. 왼발 축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며 오른발을 "라1"방향으로 옮겨
2. 오른 앞굽이로
3. 오른 바깥 팔목 아래막기

#### 4th action:

- (1) Rotating on the left heel, move the right foot toward "R-1,"
- (2) Take a forward stance,
- (3) Execute a low block with the right outer wr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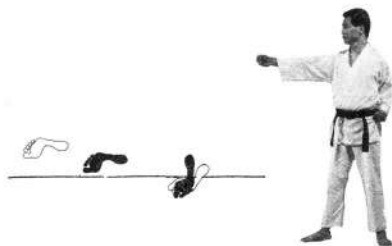


#### 제 6 동작

1. 왼발이 한걸음 나가
2. 왼 앞굽이로 ("라1"방향)
3. 왼 주먹 몸통 반대 지르기

#### 6th action:

- (1) Take a left foot step forward,
- (2) Take a forward stance (toward "R-1"),
- (3) Execute an opposite middle punch with the left f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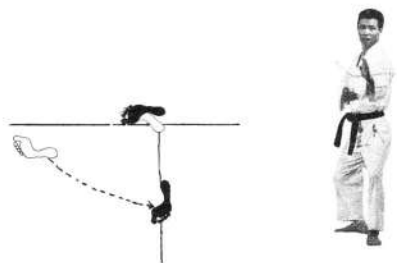


#### 제 5 동작

1. 시선과 왼발 그대로 오른발을 약간 끌어
2. 어깨넓이로 무릎을 펴 서면서
3. 오른 손목을 틀어 빼며 몸 앞으로 원을 그려 머리 위로 부터 오른 외주먹 내려치기 ("라1"방향)  
※ 요령은 제2동작과 같음

#### 5th action:

- (1) Draw in the right foot a little without moving your eyes and the left foot,
- (2) Stand keeping the knees apart as wide as the shoulders,
- (3) Twist out the right wrist and draw a circle then execute a downward strike with the right fist from the top of the head (toward "R-1".)



#### 제 7 동작

1. 오른발 축 몸을 왼쪽으로 돌리며 왼발을 "가" 방향으로 옮겨
2. 오른 뒷굽이로
3. 손날 몸통 막기

#### 7th action:

- (1) Rotating on the right heel, move the left foot toward "F,"
- (2) Take a back stance,
- (3) Execute a middle block with knife-hands.



### 제 8 동작

1. 오른발이 한걸음 나가
2. 오른 앞꿈치로 ("가"방향)
3. 왼 손바닥 눌러 막으며 오른 권손끝 세워 찌르기  
※ 눌러 막은 왼 손등이 오른 팔꿈치에 오도록 한다.

#### 8th action:

- (1) Take a right foot step forward,
- (2) Take a forward stance (toward "F"),
- (3) Execute a downward block with the left palm-heel and a right spear-hand thrust.

\* Back of the pressing hand comes under the right elbow.



### 제 10 동작

1. 오른발 한걸음 나가
2. 오른 앞꿈치로 ("가"방향)
3. 오른 주먹 얼굴 반대 지르기 ~"기합"

#### 10th action:

- (1) Take a right foot step forward.
- (2) Take a forward stance (toward "F"),
- (3) Execute an opposite high punch with the right fist—"ye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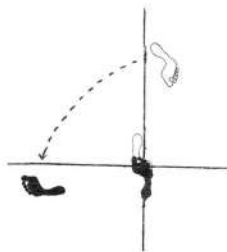


### 제 9 동작

1. 오른손을 왼쪽으로 틀며 앞으로 밀어 빼는 동시에 오른발 축 몸을 왼편(뒤)으로 돌아 왼발을 "가"방향으로 옮겨
2. 오른 뒷꿈치로
3. 왼 외주먹 바깥치기

#### 9th action:

- (1) Twist out the right hand to the left, rotate on the right heel, and move the left foot toward "F,"
- (2) Take a back stance,
- (3) Execute an outer punch with the left f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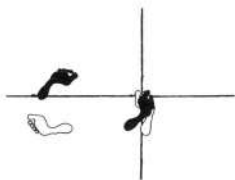


### 제 11 동작

1. 오른발 축 몸을 왼쪽으로 돌리며 왼발을 "리2" 방향으로 옮겨
2. 오른 뒷꿈치로
3. 왼 손날 바깥치기

#### 11th action:

- (1) Rotating on the right heel, move the left foot toward "R-2,"
- (2) Take a back stance,
- (3) Execute an outer chop with the left knife-hand.



### 제 12 동작

1. 오른발 제자리 왼발을 약간 앞쪽으로 끌어드려
2. 사선서기로
3. 왼 손목을 틀어 빼며 가슴앞으로 끌어 드린다.  
 ※ 1. 동작이 끝났을때 손등이 아래를 향하도록 한다.  
 2. 속목 잡힌것을 빼는 동작임으로 손을 빼는 힘에 발이 따라오는 기분으로 동작한다.
3. 시선은 "라2"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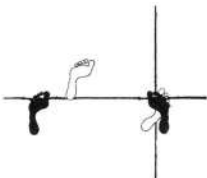
#### 12th action:

- (1) Draw in the left foot a little without taking off the right foot,
- (2) Stand obliquely,
- (3) Twist out the left wrist and draw in to the front of the chest.

\* The back of the hand faces downward upon completion of actions.

\*\* This, being an action relieving a caught wrist, must be executed with a feeling that feet respond to the relieving action.

\*\*\* Keep your eyes to "R-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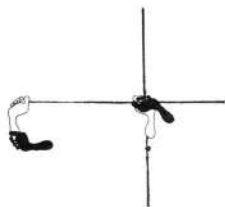


### 제 13 동작

1. 왼발을 "라2"방향으로 옮겨
2. 주춤 서기로
3. "라2" 방향을 향하여 왼 팔굽치기 (손바닥 편채로)

#### 13th action:

- (1) Move the left foot toward "R-2,"
- (2) Stand still,
- (3) Execute a left elbow strike facing toward R-2.



### 제 14 동작

1. 오른발 제자리 왼발 옮겨
2. 왼 앞굽이로 ("라2"방향)
3. 왼 안팔뚝 몸통 바깥막기

#### 14th action:

- (1) Move the left foot without taking off the right foot,
- (2) Take a forward stance (toward "R-2"),
- (3) Execute a middle outer block with the left inner wrist.



### 제 15 동작

1. 제자리에서
2. 자세 그대로
3. 오른주먹 몸통 바로 지르기  
 ※ 제 12, 13, 14, 15 동작은 빨리 연속으로 한다.

#### 15th action:

- (1) Same position as in the 14th action,
- (2) Same stance as in the 14th action,
- (3) Execute a middle straight punch with the right fist.  
 \* The actions 12, 13, 14 and 15 are executed quickly one after ano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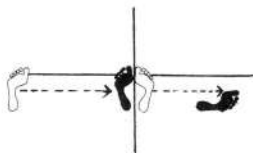


### 제 16 동작

- 오른발 제자리 왼발 옮겨 (몸의 전면이 "나" 방향을 향하도록)
- 주춤서기로
- 왼 주먹 허리에 대고 오른 주먹이 그위에 오도록 자세를 잡는다.  
※ 시선은 "다2" 방향  
    { 왼 주먹등~밑을 } 향하도록 한다  
    { 오른 주먹등~밖을 }

#### 16th action:

- Move the left foot without taking off the right foot,
- Stand still (facing the front of the body toward "B"),
- Keep the left fist at the waist with the right fist on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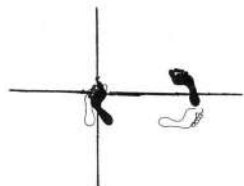


### 제 17 동작

- 왼발 끌어 오른발에 부치고 오른발이 "다2" 방향으로 나가
- 왼 뒷꿈치로
- 오른 손날 바깥치기

#### 17th action:

- Draw in the left foot to the right foot and take a right foot step toward "L-2,"
- Take a back stance,
- Execute an other chop with the right knife-h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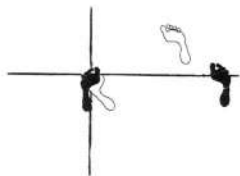


### 제 18 동작

- 왼발제자리 오른발 앞쪽으로 약간 끌어
- 사선서기로
- 오른 손목 뒤편에 뺀어 가슴앞으로 끌어 드린다 (손바닥 편채로)  
※ 요령은 12 동작과 같음

#### 18th action:

- Draw in the right foot without taking off the left foot,
- Stand obliquely,
- Twist out the right wrist and draw in to the front of the chest (with palm op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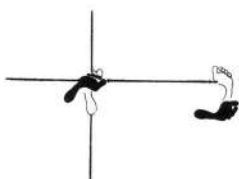


### 제 19 동작

- 왼발 제자리 오른발을 다시 "다2" 방향으로 옮겨
- 주춤서기로
- "다2" 방향을 하여 오른 팔굽치기 (손바닥 편채로)

#### 19th action:

- Move again the right foot toward "L-2,"
  - Stand still,
  - Execute a right elbow strike toward "L-2."
- \* This action is executed in the same manner as action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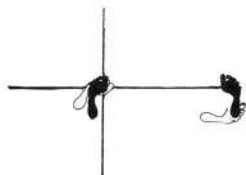


#### 제 20 동작

1. 왼발제자리 오른발 옮겨
2. 오른 앞굽이로 ("다2" 방향)
3. 오른 안팔뚝 뚫통 바깥막기

#### 20th action:

- (1) Move the right foot without taking off the left foot,
- (2) Take a forward stance (toward "L-2"),
- (3) Execute a middle outer block with the right inner wrist.



#### 제 22 동작

1. 왼발제자리 오른발 옮겨
2. 주춤서기로(몸의 전면이 "나" 방향을 향하도록)
3. 오른주먹 허리에 대고 왼 주먹이 그위에 오도록 자세를 잡는다

※ 요령 16 동작과 같음

#### 22nd action:

- (1) Move the right foot without taking off the left foot,
- (2) Stand still (the front of the body will face toward "B"),
- (3) Put the right fist at the waist with the left fist on it.

\* In same manner as action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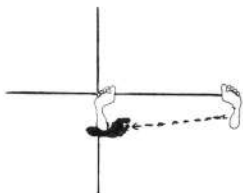
#### 제 21 동작

1. 제자리에서
2. 자세 그대로
3. 왼 주먹뚫통 바로 지르기  
※ 제 18, 19, 20, 21 동작은 빨리 연속으로 한다.

#### 21st action:

- (1) Same position as in the 20th action,
- (2) Same stance as in the 20th action,
- (3) Execute a middle straight punch with the left fist.

\* The actions 18, 19, 20 and 21 are executed quickly one after ano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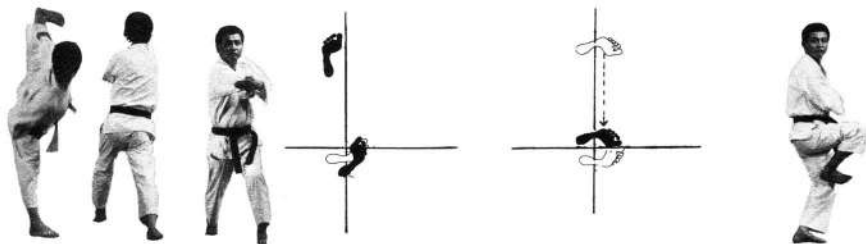


#### 제 23 동작

1. 오른발 끌어 왼발에 부치고 왼발 들어 올려
2. 오른 허다리 서기로
3. "나" 방향을 향하여 열할 준비

#### 23th action

- (1) Drawing in the right foot to the left foot, and raise the left foot,
- (2) Stand upright on the right foot,
- (3) Be ready for a side-kick toward "B."



#### 제 24 동작

1. 왼발 옆차는 동시에 왼 주먹도 함께 지르고 찬발 내딛어
2. 왼 앞굽이로 ("나"방향)
3. 오른 팔꿈 앞으로 내뻗어 왼 손바닥을 향하여 팔굽치기

#### 24th a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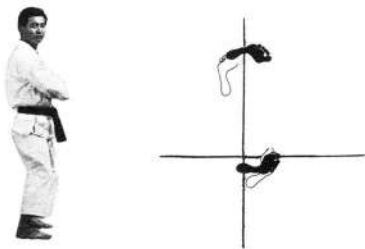
- (1) Execute simultaneously a left foot side-kick and a left fist punch then step forward,
- (2) Take a forward stance (toward "B").
- (3) Execute a right elbow strike to the left palm.

#### 제 26 동작

1. 왼발 끌어 오른발에 부치고 오른발 들어 올려
2. 왼 확대리 서기로
3. "가" 방향을 향하여 옆찰 준비

#### 26th action:

- (1) Drawing in the left foot to the right foot, and raise the right foot,
- (2) Stand upright on the left foot,
- (3) Be ready for a side-kick toward "F."



#### 제 25 동작

1. 오른발 제자리 왼발을 "가" "나" 선상에 옮겨
2. 주춤서기로 (몸의 전면 "다"방향)
3. 왼주먹 허리에 대고 오른주먹 그위에 오도록 자세를 잡는다  
※ 시선은 "가"방향

#### 25th action:

- (1) Move the left foot on the lines, "F" and "B,"
- (2) Stand still (the front of the body will face toward "B"),
- (3) Put the left fist at the waist with the right fist on it.

\* Keep your eyes toward "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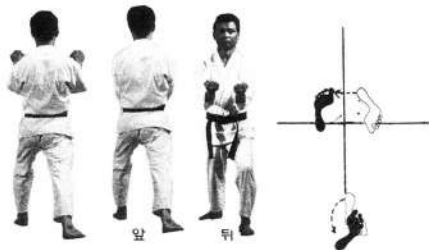


#### 제 27 동작

1. 오른발 옆차는 동시에 오른 주먹 함께 지르고 찬발을 내딛어
2. 오른 앞굽이로 ("가"방향)
3. 왼 팔꿈 앞으로 내뻗어 오른 손바닥을 향하여 팔굽치기

#### 27th action:

- (1) Execute simultaneously a right foot side-kick and a right fist punch then step forward,
- (2) Take a forward stance (toward "F"),
- (3) Execute a left elbow strike to the right pal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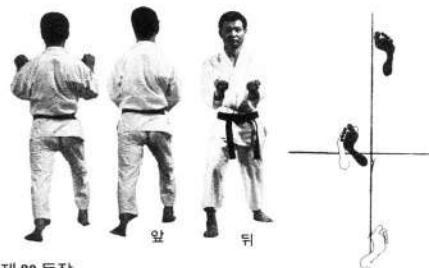
제 28 동작

- 오른발 제자리 몸을 왼편으로 돌리며 왼발 옮겨 "나"방향을 향하여
- 왼 앞굽이로
- 바깥 팔목 몸통 헤쳐막기한다음  
양주먹 옆구리로 끌어 들었다, 명치 옆 양 늑골을 제쳐 지르기(주먹들이 밑으로 가도록)  
※ 이 동작은 빨리할것

28th action:

- Turning to the left, move the left foot toward "B."
- Take a forward stance,
- After outer wrist middle block, draw in both fists to the waist, and punch at the lower sides of the chest.

\* This action must be executed fast.



제 29 동작

- 오른발이 한걸음 나가
- 오른 앞굽이로 ("나"방향)
- 바깥 팔목 몸통 헤쳐 막기 한 다음 양주먹 옆구리로 끌어 들었다 명치 옆 양늑골 제쳐 지르기  
※ 요령 28 동작과 같음

29th action:

- Take a right foot step forward,
- Take a forward stance (toward "B"),
- After outer wrist middle block, draw in the fists to the waist, and punch at the lower sides of the ch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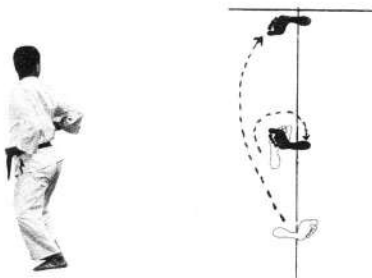


제 30 동작

- 왼발이 한 걸음 나가
- 오른 뒷 굽이로 ("나"방향)
- 왼 왼손날 몸통 안막기

30th action:

- Take a left foot step forward,
- Take a back stance (toward "B").
- Execute a middle inner block with the left knife h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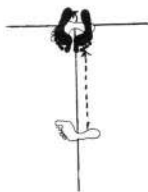


제 31 동작

- 왼 손으로 장대의 손을 잡아 비틀어 옆구리에 끼며 왼발 축 몸을 오른쪽(뒤)으로 돌리며 오른발을 "나"방향으로 옮겨
- 주춤서기로 (몸의 전면이 "라"방향)
- 손등이 밑을 향하도록 손바닥을 펴서 뒤를 향하여 오른 팔굽치기  
※ 시선은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려 뒤를 본다.

31st action:

- With the left hand hold and twist the opponent's hand and keeping it at the side, rotate to the right and step forward to "B,"
  - Stand still (the body will face "R").
  - Execute a right elbow strike backward with open palm facing up.
- \* Look back turning your head to the 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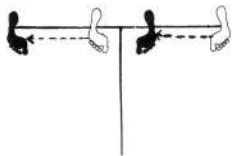


### 제 32 동작

1. 왼발 끌어 오른발에 부쳐 "가" 방향을 향하여.
2. 모아서기로
3. 오른손동위에 왼손을 포개어 단전 앞에 모은다.

#### 32nd action:

- (1) Drawing in the left foot to the right foot toward "F,"
- (2) Stand straight on two feet,
- (3) Overlap your left hand over right hand, and keep them in front of the abdomen.



### 제 34 동작

1. 오른발 들었다 "라1" 방향으로 미끄럼 발로 나가
2. 주춤서기로("가"방향)
3. 왼팔굽 뒤치기  
 왼주먹 오른 어깨위로 하여 뒤틀 } 동시에 공격한다.  
 ※ 오른 손은 펴서 손날 부분이 옆구리에 오도록 한다. 시선은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려 뒤를 본다.

#### 34th action:

- (1) With your right foot raised, slide toward "R,"
  - (2) Stand still (toward "F"),
  - (3) Execute simultaneously a back strike with the right elbow and a left fist punch on the right shoulder.
- \* Keep your right knife-hand at the waist.  
 \*\* Look back turning your head to the 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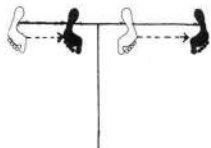


### 제 33 동작

1. 왼발을 "다1" 방향으로 옮겨
2. 주춤서기로("가"방향)
3. 두 팔꿈치를 굽혀 어깨 높이로 양옆으로 펼친다.  
 ※ 뒤에서 깨안은 것을 빼는 동작으로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고 젓가슴 앞에 오도록 한다.

#### 33rd action:

- (1) Move the left foot toward "L-1,"
  - (2) Stand still (toward "F"),
  - (3) Extend both elbows at the height of the shoulders.
- \* This action is designed to relieve oneself from holding from behind, and palms face down at the height of the chest.



### 제 35 동작

1. 왼발 들어 "다1" 방향으로 미끄럼발로 나가
2. 주춤서기로("가"방향)
3. 왼팔굽 뒤치기  
 오른 주먹 왼 어깨위로 하여 뒤틀 } 동시에 공격한다.  
 ※ 왼손 펴서 손날부분이 옆구리에 오도록 한다. 시선은 머리를 왼쪽으로 돌려 뒤를 본다.

#### 35th action

- (1) Keeping your left foot raised, slidet oward "L-1,"
  - (2) Stand still (toward "F"),
  - (3) Execute simultaneously a back strike with the left elbow and a back punch with the right fist on the left shoulder.
- \* Keep your left knife-hand at the waist.  
 \*\* Look back turning your head to the left.



왼발을 끌어 준비서기로

"그만" Back to the starting position.

八卦 6 場 PALGYE VI

연무선 라 1 중앙(C) 다 1  
(R1) (L1)

라 2 다 1  
(R2) (L2)

총동작수 ~ 24개 동작  
준비 ~ 나란히 서기



제 1 동작

1. 왼발을 옮겨 "다1" 방향을 향하여
2. 오른 뒷굽이로
3. 오른 바깥 팔목 얼굴 막기  
왼 안팔목 몸통 바깥 막기 } 동시에 한다.

1st action:

- (1) Move the left foot toward "L-1,"
- (2) Take a back stance,
- (3) Execute simultaneously a high block with the right outer wrist and a middle block with the left inner wrist.



제 2 동작

1. 제자리에서
2. 자세 그대로
3. 왼 주먹을 어깨쪽으로 잡아끌며 오른주먹 제쳐 딱지르기.

2nd action:

- (1) Same position as in the 1st action,
- (2) Same stance as in the 1st action,
- (3) Pulling the left fist to the right shoulder, execute a high punch with the right f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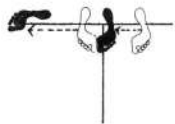
제 3 동작

1. 오른발 제자리 왼발을 약간 끌어
2. 나란히 서기로 ("가"방향)
3. 왼 한손날 바깥치기 ("다1"방향)

3rd action:

- (1) Draw in the left foot a little without taking off the right foot,
- (2) Stand in a row (toward "F"),
- (3) Execute an outer strike with the left knife-hand (toward "L-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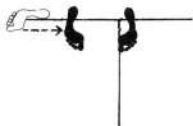


#### 제 4 동작

1. 왼발을 오른발에 끌어 부치고 오른발이 "라1" 방향으로 나가
2. 왼 뒷굽이로
3. 왼 바깥 팔목 얼굴막기  
오른 안 팔목 몸통 바깥막기 } 를 동시에 한다.

#### 4th action:

- (1) Draw in the left foot to the right foot and take a right foot step toward "R-1,"
- (2) Take a back stance,
- (3) Execute simultaneously a high block with the left outer wrist and a middle block with the right inner wrist.



#### 제 6 동작

1. 왼발 제자리 오른발을 약간 끌어
2. 나란히 서기로 ("가"방향)
3. 오른 한 손날 바깥치기 ("라1"방향)

#### 6th action:

- (1) Draw in the right foot a little without taking off the left foot,
- (2) Stand in a row (toward "F"),
- (3) Execute an outer strike with the right knife-hand (toward "R-1").



#### 제 5 동작

1. 제자리에서
2. 자세 그대로
3. 오른 주먹 왼어깨쪽으로 끌며 왼주먹 제쳐 덕지르기

#### 5th action:

- (1) Same position as in the 4th action,
- (2) Same stance as in the 4th action,
- (3) Pulling the right fist to the left shoulder, execute a high punch with the left fist.



#### 제 7 동작

1. 오른발 왼발에 끌어 부치고 왼발이 "가" 방향으로 나가
2. 오른 뒷굽이로
3. 손날 몸통 막기

#### 7th action:

- (1) Draw in the right foot to the left foot and take the left foot step toward "F,"
- (2) Take a back stance,
- (3) Execute a middle block with knife-hands.



### 제 8 동작

1. 오른발 앞차고 앞으로 내딛어
2. 오른 앞굽이로
3. 왼 손바닥으로 눌러 막으며 오른편 손끝 세워 찌르기.  
※ 왼 손등이 오른 팔꿈 밑에 오도록.

#### 8th action:

- (1) Execute a front-kick with the right foot and step forward,
  - (2) Take a forward stance,
  - (3) Execute a downward block with the left palm-heel and a right spear-hand thrust.
- \* The back of the left hand comes under the right elbow.



### 제 10 동작

1. 오른발 한걸음 나가
2. 오른 앞굽이로
3. 오른 주먹 몸통 반대 지르기—"기합"

#### 10th action:

- (1) Take a right foot step forward,
- (2) Take a forward stance,
- (3) Execute an opposite middle punch with the right fist—"yell."



### 제 9 동작

1. 양발 제자리 몸을 뒤로 빼며 오른 손목을 왼쪽으로 틀어 뒤희리에 가져오고 (손목 빼는 동작)  
오른발 축으로 몸을 왼편으로 돌리며 왼발이 "가" 방향으로 나가
2. 왼 앞굽이로
3. 왼 외주먹 바깥치기

#### 9th action:

- (1) Moving the body backward without taking off the two feet, twist out the right wrist to the left on the back of the waist, rotate on the right heel, and take the left foot toward "F,"
- (2) Take a forward stance,
- (3) Execute an outer strike with the left f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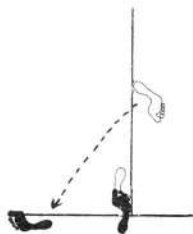


### 제 11 동작

1. 오른발 축 몸을 왼편으로 돌리며 왼발을 "라2" 방향으로 옮겨
2. 오른 뒷굽이로
3. 오른 바깥 팔목 얼굴막기 } 를 동시에 한다.  
    왼 안팔목 몸통바깥막기 }

#### 11th action:

- (1) Rotating on the right heel, move the left foot toward "R-2,"
- (2) Take a back stance,
- (3) Execute simultaneously a high block with the right outer wrist and a middle outer block with the left inner wr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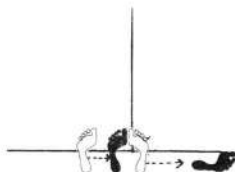


### 제 12 동작

1. 제자리에서
2. 자세 그대로
3. 왼 주먹 오른 어깨 쪽으로 오른 주먹 제쳐 킥치르기

#### 12th action:

- (1) Same position as in the 11th action,
- (2) Same stance as in the 11th action,
- (3) Keep the left fist to the right shoulder and execute a jaw punch with the right f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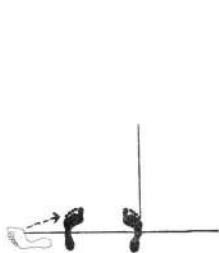


### 제 14 동작

1. 왼발 끌어 오른발에 부치고 오른발이 "다2"방향으로 나가
2. 왼 뒷굽이로
3. 왼 바깥 팔목 얼굴 막기  
오른 안 팔목 몸통 바깥 막기 }를 동시에 한다.

#### 14th action:

- (1) Draw in the left foot to the right foot and take the right foot step forward to "L-2,"
- (2) Take a back stance,
- (3) Execute simultaneously a high block with the left outer wrist and a middle outer block with the right inner wrist.



### 제 13 동작

1. 오른발 제자리 왼발 약간 끌어
2. 나란히 서기로 ("나"방향)
3. 왼 한손날 바깥치기 ("라2"방향)

#### 13th action:

- (1) Draw in the left foot a little without taking off the right foot,
- (2) Stand in a raw (toward "B"),
- (3) Execute an outer strike with the left knife-han (toward "R-2").



### 제 15 동작

1. 제자리에서
2. 자세 그대로
3. 오른 주먹 왼 어깨쪽으로 끌어 왼 주먹 제쳐 킥치르기

#### 15th action:

- (1) Same position as in the 14th action,
- (2) Same stance as in the 14th action,
- (3) Draw in the right fist to the left shoulder and execute a jaw punch with the left fist.



### 제 16 동작

1. 왼발 제자리 오른발 약간 끌어
2. 나란히 서기로 ("나"방향)
3. 오른 한손날 바깥치기 ("다2"방향)

#### 16th action:

- (1) Draw in the right foot a little without taking off the left foot,
- (2) stand in a row (toward "B").
- (3) Execute an outer strike with the right knife-hand (toward "L-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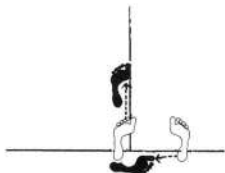
### 제 18 동작

1. 오른발 앞차고 앞으로 내딛어
2. 오른 앞굽이로 ("나"방향)
3. 왼 손바닥 눌러 막으며 오른 편손 끝 세워 찌르기  
※ 왼 손등이 오른 팔꿈 밑에 오도록

#### 18th action:

- (1) Execute a front-kick with the right foot and step forward,
- (2) Take a forward stance (toward "B").
- (3) Execute a downward block with the left palm-heel and a right spear-hand thrust.

\* The back of the left hand comes under the right elbow.



### 제 17 동작

1. 오른발 끌어 왼발에 부치고 왼발이 "나" 방향으로 나가
2. 오른 뒷굽이로
3. 손날 몸통막기

#### 17th action:

- (1) Draw in the right foot to the left foot and take the left foot step forward to "B."
- (2) Take a back stance,
- (3) Execute a middle block with knife-hands.



### 제 19 동작

1. 양발 제자리 몸을 뒤로 빼며 오른손목을 왼쪽으로 틀어 왼 어깨 쪽으로 가져오며 (손목 배는 동작)  
오른 발 쪽으로 몸을 왼편으로 돌리며 왼발을 "나"방향으로 옮겨
2. 왼 앞굽이로
3. 외 주먹바깥치기

#### 19th action:

- (1) Moving the body backward without taking off the two feet, twist out the right wrist to the left shoulder, rotate on the right heel, and move the left foot toward "B."
- (2) Take a forward stance,
- (3) Execute an outer strike with the left fist.



### 제 20 동작

1. 오른발이 한걸음 나가
2. 오른 앞굽이로 ("나"방향)
3. 오른 주먹 뚫음 반대 지르기—"기함"

#### 20th action.

- (1) Take a right foot step forward,
- (2) Take a forward stance (toward "B"),
- (3) Execute an opposite middle punch with the right fist—"ye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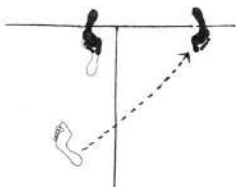


### 제 22 동작

1. 왼발 옮겨 "다1" 방향을 향하여
2. 왼 앞굽이로
3. 오른 주먹 뚫음 바로지르기

#### 22nd action:

- (1) Move the left foot toward "L-2,"
- (2) Take a back stance,
- (3) Execute a middle straight punch with the right f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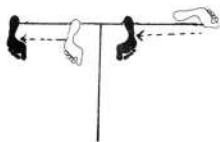


### 제 21 동작

1. 오른발 축 몸을 왼편으로 돌리며 왼발이 "다1"방향으로 옮겨
2. 주춤서기로 ("가"방향)
3. 왼 바깥팔목 아래막기 ("다1"방향)

#### 21st action:

- (1) Rotating on the right heel, move the left foot toward "L-1,"
- (2) Stand still (toward "F"),
- (3) Execute a low block with the left outer wrist (toward "L-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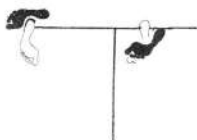
### 제 23 동작

1. 왼발 끌어 나란히 서기로 놓고 오른발이 "라1" 방향으로 나가
2. 주춤서기로 ("가"방향)
3. 오른 바깥 팔목 아래막기 ("라1"방향)

#### 23rd action:

- (1) Draw in the left foot, stand in a row, and take the right foot forward to "R-1,"
- (2) Stand still (toward "F"),
- (3) Execute a low block with the right outer wrist (toward "R-1").

"준비"~나란히 서기



### 제 24 동작

1. 오른발 옮겨 "라1" 방향을 향하여
2. 오른 앞굽이로
3. 왼 주먹 몸통 바로지르기

24th a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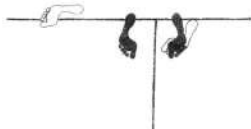
- (1) Move the right foot toward "R-1,"
- (2) Take a forward stance,
- (3) Execute a middle straight punch with the left fist.

### 제 1 동작

1. 왼발을 "다1" 방향으로 옮겨
2. 오른 뒷굽이로
3. 손날 모퉁막기

1st action:

- (1) Move the left foot toward "L-1,"
- (2) Take a back stance,
- (3) Execute a middle block with knife-ha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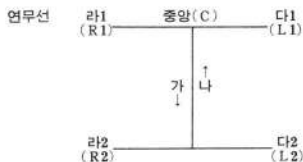


"그만" 오른발 끌어 준비 자세로  
Back to the starting position.



八 卦 7 場

PALGYE V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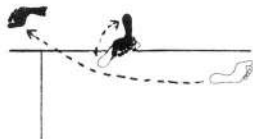


### 제 2 동작

1. 오른발 앞차고 찬발을 앞으로 내밀어
2. 오른 앞굽이로 ("다1"방향)
3. 오른 주먹 몸통 반대 지르기

2nd action:

- (1) Execute a front-kick with the right foot and step forward,
- (2) Take a forward stance (toward "L-1"),
- (3) Execute an opposite middle punch with the right fist.



### 제 3 동작

1. 왼발축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며 오른발을 "라1" 방향으로 옮겨
2. 왼 뒷굽이로
3. 손날 뚫음막기

#### 3rd action:

- (1) Rotating on the left heel, move the right foot toward "R-1,"
- (2) Take a back stance,
- (3) Execute a middle block with knife-hands.



### 제 5 동작

1. 오른발 축 몸을 왼쪽으로 돌리며 왼발이 "가" 방향으로 나가
2. 왼 앞굽이로
3. 왼 바깥 팔뚝아래 막기

#### 5th action:

- (1) Rotating on the right heel, move the left foot toward "F,"
- (2) Take a forward stance,
- (3) Execute a low block with the left outer wrist.



### 제 4 동작

1. 왼발 앞차고 앞으로 내딛어
2. 왼 앞굽이로 ("라1"방향)
3. 왼 주먹 뚫음 반대 지르기

#### 4th action:

- (1) Execute a front-kick with the left foot and step forward,
- (2) Take a back stance (toward "R-1"),
- (3) Execute an opposite middle punch with the left fist.



### 제 6 동작

1. 양발 제자리에 두고
2. 몸을 왼쪽으로 틀며
3. 왼 손날 얼음막기  
오른 손날 뚫 안치기

#### 6th action:

- (1) Without taking off the two feet,
- (2) Turning to the left,
- (3) Execute simultaneously a high block with the left knife-hand and a right inner knife-hand strike to the ne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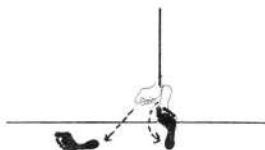


#### 제 7 동작

1. 오른발 앞차고 발을 들은채로 왼발로 밀며 뛰어나가  
오른발로 힘있게 땅을 구르며
2. 오른 꼬아서기로
3. 오른 등주먹 얼굴치기 (왼 주먹 보조)~“기합”

#### 7th action:

- (1) Execute a front-kick with the right foot, push forward hopping on the left foot, and stamp the right foot,
- (2) Stand upright on the right foot,
- (3) Execute a high strike with the back of the right fist (the left fist aiding)——“ye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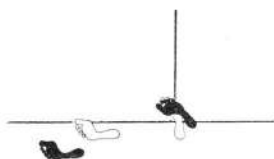


#### 제 8 동작

1. 오른발 축 몸을 왼편으로 돌리며 왼발을 “리2”방향으로 옮겨
2. 오른 뒷굽이로
3. 손날 아래막기

#### 8th action:

- (1) Rotating on the right heel, move the left foot toward “R-2,”
- (2) Take a forward stance,
- (3) Execute a low block with knife-ha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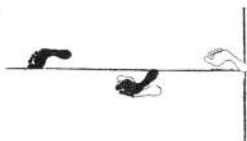


#### 제 9 동작

1. 왼발을 내딛어
2. 왼 앞굽이로 (“리2”방향)
3. 바깥팔목 몸통 해치막기

#### 9th action:

- (1) Take the left foot step forward,
- (2) Take a forward stance (toward “R-2”).
- (3) Execute a middle block with outer wri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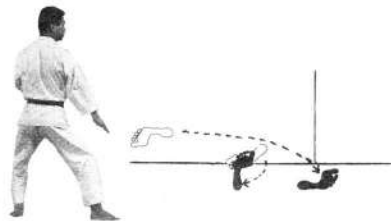


#### 제 10 동작

1. 오른발 앞차고 앞으로 내딛어
2. 오른 앞굽이로 (“리2”방향)
3. 오른주먹, 왼주먹 연속 몸통 지르기

#### 10th action:

- (1) Execute a front kick with the right foot and step forward,
- (2) Take a forward stance (toward “R-2”),
- (3) Execute a double middle punch with right and left fists.



### 제 11 동작

1. 왼발축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며 오른발을 "다2"방향으로 옮겨
2. 왼 뒷굽이로
3. 손날 아래막기

#### 11th action:

- (1) Rotating on the left heel, move the right foot toward "L-2,"
- (2) Take a back stance,
- (3) Execute a low block with knife-hands.



### 제 13 동작

1. 왼발 앞차고 앞으로 날리어
2. 왼 앞굽이로 ("다2"방향)
3. 왼주먹 오른주먹 연속 몸통 지르기

#### 13th action

- (1) Execute a front-kick with the left foot and stop forward,
- (2) Take a forward stance (toward "L-2"),
- (3) Execute a double middle punch with right and left fi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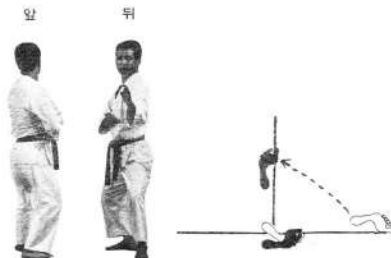


### 제 12 동작

1. 오른발을 내딛어
2. '오른 앞굽이로 (다2)방향)
3. 바깥 팔목 몸통 해치막기

#### 12th action:

- (1) Take a right foot step forward,
- (2) Take a forward stance (toward "L-2"),
- (3) Execute a middle block with outer wrists.



### 제 14 동작

1. 오른발 축 몸을 왼쪽으로 돌리며 왼발을 "나" 방향으로 옮겨
2. 오른 뒷굽이로
3. 손날 몸통막기

#### 14th action:

- (1) Rotating on the right heel, move the left foot toward "B,"
- (2) Take a back stance,
- (3) Execute a middle block with knife-hands.



### 제 15 동작

1. 오른발 제자리 왼발 앞으로 내딛어
  2. 왼 앞굽이로 ("나"방향)
  3. 왼 손날 얼굴막기
- 오른 바깥손 얼굴치기(손끝이 위로 가도록) } 둘 동시에 한다.

#### 15th action:

- (1) Take a left foot step forward,
- (2) Take a forward stance (toward "B"),
- (3) Execute simultaneously a high block with the left knife-hand and a high strike with the back of the right hand (tip of the hand pointing up).



### 제 17 동작

1. 왼발 앞차고 앞으로 내딛어
2. 왼 앞굽이로 ("나"방향)
3. 왼 바깥 팔목 얼굴막기

#### 17th action:

- (1) Execute a front-kick with the left foot and step forward.
- (2) Take a forward stance (toward "B"),
- (3) Execute a middle block with the left outer wrist.



### 제 16 동작

1. 오른발 앞차고 앞으로 내딛어
2. 오른 앞굽이로 ("나"방향)
3. 오른 등주먹 얼굴 치기~"기함"

#### 16th action:

- (1) Execute a front-kick with the the right foot and step forward,
- (2) Take a forward stance (toward "B"),
- (3) Execute a high strike with the back of the right "fist—yell."



### 제 18 동작

1. 오른발 옆차고 (주먹도 함께 지름) 앞에 내딛어
2. 왼 뒷굽이로 ("나"방향)
3. 손날 몸통막기

#### 18th action:

- (1) Execute a right side-kick with both fists punch and step forward,
- (2) Take a back stance (toward "B"),
- (3) Execute a middle block with knife-hands.





준비~나란히 서기



제 19 동작

1. 두발 제자리에서 “가” 방향을 향하여
2. 오른 뒷굽하기로 고쳐서며
3. 손날 몸통 막기  
“그만” 오른쪽발이 앞으로 나와 준비 자세로

19th action:

- (1) Facing toward "F" without taking off the two feet,
- (2) Take a right back stance,
- (3) Execute a middle block with knife-hands.



“그만” 오른쪽발 끌어 준비 자세로  
Back to the starting position.



제 1 동작

1. 왼발이앞 으로 나가 “가”방향)
2. 왼 앞굽이로
3. 밖알 손목 아래 해쳐 막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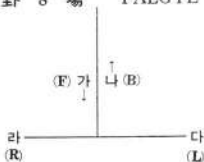
1st action:

- (1) Take a left foot step (toward "F").
- (2) Take a forward stance,
- (3) Execute a low block with outer wrists.



八 卦 八 場 PALGYE VIII

연무선



총 동작수 23

제 2 동작

1. 오른쪽 발 앞차고 앞으로 내딛어
2. 오른 앞굽이로 (“가”방향)
3. 안 팔목 몸통 해쳐막기

2nd action:

- (1) Execute a front-kick with the right foot an step forward,
- (2) Take a forward stance (toward "F"),
- (3) Execute a middle block with inner wrists.



### 제 3 동작

1. 왼발 앞차고 앞으로 내딛어
2. 왼 앞굽이로
3. 양주먹 엇거러 얼굴막기

#### 3rd action:

- (1) Execute a front-kick with the left foot and step forward,
- (2) Take a forward stance,
- (3) Execute a high block with both fi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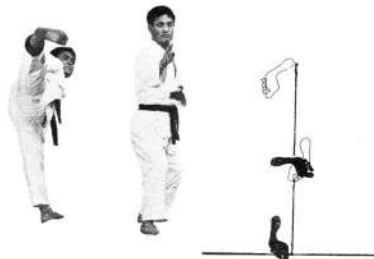


### 제 5 동작

1. 오른발 축 몸을 왼편으로 돌리며 왼발이 "라" 방향으로 나가
2. 오른 뒷굽이로
3. 왼 안팔목 몸통 바깥 막기

#### 5th action:

- (1) Rotating on the right heel, take a left foot step forward to "R,"
- (2) Take a back stance,
- (3) Execute a middle block with the left inner wr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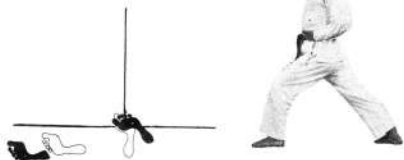


### 제 4 동작

1. 오른발 옆차고 —"기합" 앞으로 내딛어
2. 왼 뒷굽이로
3. 손날 몸통막기

#### 4th action:

- (1) Execute a side-kick with the right foot and step forward—"yell,"
- (2) Take a back stance,
- (3) Execute a middle block with knife-hands.



### 제 6 동작

1. 왼발 앞으로 내딛어
2. 왼 앞굽이로 ("라"방향)
3. 오른 주먹 얼굴 바로 지르기

#### 6th action:

- (1) Take a left foot step forward,
- (2) Take a forward stance (toward "R"),
- (3) Execute a high straight punch with the right f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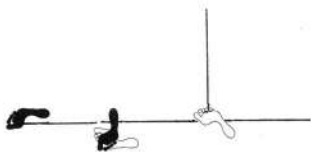


### 제 7 동작

1. 제자리에서
2. 자세 그대로
3. 왼 바깥 팔목 얼굴막기

#### 7th action:

- (1) Same position as in the 6th action,
- (2) Same stance as in the 6th action,
- (3) Execute a high block with the left outer wr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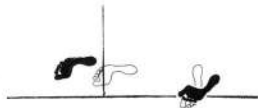


### 제 8 동작

1. 오른발 옆치고 앞으로 내딛어
2. 왼 뒷굽이로 ("라"방향)
3. 손날 아래막기

#### 8th action:

- (1) Execute a side-kick with the right foot and step forward,
- (2) Take a back stance (toward "R"),
- (3) Execute a low block with knife-ha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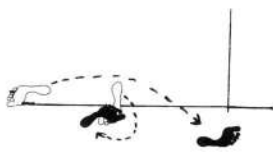


### 제 9 동작

1. 오른발 약간 내딛어
2. 오른 앞굽이로 ("라"방향)
3. 왼 주먹 몸통 바로 지르기

#### 9th action:

- (1) Take a right foot step forward,
- (2) Take a forward stance (toward "R"),
- (3) Execute a middle straight punch with the left fist.



### 제 10 동작

1. 왼발축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며 오른발을 "다"방향으로 옮겨
2. 왼 뒷굽이로
3. 오른 안 팔목 몸통 바깥막기

#### 10th action:

- (1) Rotating on the left heel, move the right foot toward "L,"
- (2) Take a back stance,
- (3) Execute a high outer block with the right inner wrist.



### 제 11 동작

1. 오른발 앞으로 약간 내딛어
2. 오른 앞굽이로 ("다"방향)
3. 왼 주먹 얼굴 바로지르기

#### 11th a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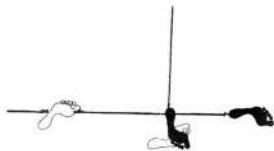
- (1) Take a right foot step forward.
- (2) Take a back forward stance (toward "L").
- (3) Execute a high straight punch with the left fist.

### 제 13 동작

1. 왼발 옆차고 앞으로 내딛어
2. 오른 뒷굽이로 ("다"방향)
3. 손날 아래막기

#### 13th action:

- (1) Execute a side-kick with the left foot and step forward.
- (2) Take a back stance (toward "L").
- (3) Execute a low block with knife-hands.



### 제 12 동작

1. 제자리에서
2. 자세 그대로
3. 오른 방향팔뚝 얼굴 막기

#### 12th a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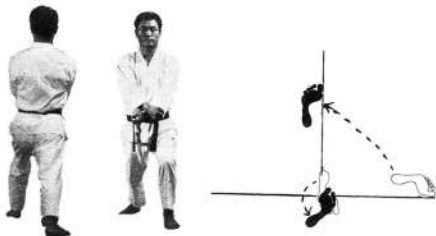
- (1) Same position as in the 11th action.
- (2) Same stance as in the 11th action.
- (3) Execute a high block with the right outer wrist.

### 제 14 동작

1. 왼발 약간 내딛어
2. 왼 앞굽이로 ("다"방향)
3. 오른 주먹 몸통 바로 지르기

#### 14th action:

- (1) Take a left foot step forward.
- (2) Take a forward stance (toward "L").
- (3) Execute a middle straight punch with the right fist.



### 제 15 동작

1. 오른발 축 몸을 왼편으로 돌리며 왼발을 "나" 방향으로 옮겨
2. 왼 앞굽이로
3. 양 주먹 엇거러 아래막기

#### 15th action:

- (1) Rotating on the right heel, move the left foot toward "B,"
- (2) Take a forward stance,
- (3) Execute a low block with both fists.



### 제 16 동작

1. 제자리에서
2. 자세 그대로
2. 양주먹 엇거러 얼굴 막기

#### 16th action:

- (1) Same position as in the 15th action,
- (2) Same stance as in the 15th action,
- (3) Execute a high block with both fi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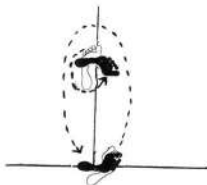


### 제 17 동작

1. 제자리에서 양주먹을 펴 막힌손을 비틀어 잡아다리며
2. 자세 그대로
3. 오른 주먹 얼굴 바로 지르기—"기함"

#### 17th action:

- (1) Open the both fists, and twist and draw the hand closed,
- (2) Same stance in the 15th action,
- (3) Execute a high straight punch with the right fist —"yell."



### 제 18 동작

1. 왼발 축 몸을 왼편으로 회전 시키며(270°) 오른발을 "가" 방향으로 옮겨 굴러 디디며
2. 주춤서기로 ("다"방향)
3. 오른 바깥 팔뚝 아래 막기 ("가"방향)

#### 18th action:

- (1) Rotating on the left heel about 270 degrees, move the right foot stamping toward "F,"
- (2) Stand upright on the right foot (toward "L"),
- (3) Execute a low block with the right outer wrist (toward "F").

## 母國을 찾은 海外師範

익 이경명 사범

Mr. Lee Kyung-myung, an instructor,  
plays an active part in



미국 「텍사스」의 유병용 사범

Mr. Yoo Byung-yong, an instructor,  
plays an active part in Texas, U.S.A.

미국 「텍사스」의 김병수 사범

Kim Byung-soo, an instructor, plays  
active part in Texas, U.S.A.





# 이런 일

## A VICTORIAL REPORT



Miss Namkoong Myung-suk, a winner of the 3rd Taekwondo Contest for woman was awarded a medal by Mr. Kim Un-yong, the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태권도의 「엑카」를 찾아온 미국인들을 맞아 기념 「케난트」를 증명하는 김운용회장



The Americans who are visiting to Korea is awarded.



제 1회 대한 태권도협회 회장배정말 「골프」 대회 광경  
A scene of the 1st Golf Contest for the President's Cup of the Korea Taekwondo Association.

대통령기 쟁탈 전국단체대항전에서 시범을 보이는 어린이들



The children is demonstrating their skill

# 지련일 OF CURRENT EVENTS



「나자루딘」 말레이저어 육군참모총장이 본회를 방문하여 시범을 보고 있다.

Lt. Gen. Nazaruddin, the Malaysian Chief of Staff of the Army is looking at the Demonstration of the Korean Taekwondo.



일본 태권도협회 회장복키사장과 김태호 회장  
Mr. Hwang Chil-bok, Director General and Mr. Kim  
Tae-ho, Chairman of the Japanese Taekwondo Association.

대통령기 쟁탈 단체대항전 광경  
The 7th National Team Tournament for the  
President's Flag.



개인선수권대회에서 우승메달을 수여하는 엄윤규 사무총장  
Mr. Uhm Woon-kyu, Secretary General of the Association  
is awarding the medal to the prize-winners at the National  
Teakwondo Contest.

대한 태권도협회 회장배쟁탈 제 1회 골프대회 시상식 광경  
A scene of Awarding ceremony at the 1st Golf Contest for the  
president's cup of the Association.







터키-독일 대항 선수권 대회

Mr. Lee Kwan-young, an instructor and his trainees in France.

불란서의 이관영사범과 그 수련생들



The Taekwondo Contest of Turkey vs. Germany.



미국 「텍사스」의 추교승사범과 그 수련생들

## 세계속의 태권도



미국에세 병환약 중인 「셀」사범  
Mr. Edward B. Sell, an instructor, plays an active part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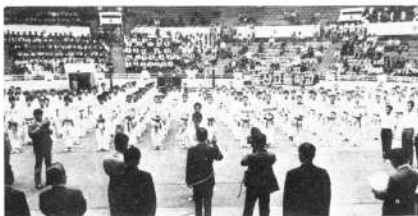
미국 「챔피언쉽」대회 어린이 입상자들  
The prize-winners of children at the American  
Taekwondo Championship Contest.



미국의 손덕성사범 일시 귀국  
Mr. Shon Duk-sung, an instructor is coming home.

미국 「챔피언쉽」대회에서 이용철군의 시범  
A Scene of the demonstration of Taekwondo by Mr. Lee  
Yong-chul at the American Championship Contest.





각종 경기 스넵

All sorts of Taekwondo contest.





제 1 회 전국중·고·대학  
개인전 선수권대회 입상자



제 3 회 여자부 및 소년부 우승자

